금주의 법구-〈출요경〉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의 빠르기는 번개와 같으니
사람의 목숨 빠르기도 그러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25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40호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갈등 원인은 '마음'… 내려놓고 화합하자

시 론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사태
양분된 사회, 이젠 하나돼야
우리는 우리를 믿어야 한다
한국의 저력, 우리에게 있다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러나 광장엔 아직도 깃발이 펄럭인다. 광장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던 곳이다. 전통은 로마로 이어져 광장은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다.

유럽에서는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다. 광장의 가장 좋은 곳에 성당을 짓는다. 성당의 맞은편에 시청이 있다. 하늘의 권능과 지상의 권능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광장과 성당과 시청. 이것은 도시의 심장이다. 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산다.

동양에는 광장이 없다. 그 대신 대로(大路)가 있다. 대로. 왕이 다니는 길. 왕도(王道)다. 왕의 행차가 없는 평상시 백성들이 이용하지만 모든 것이 왕의 소유였던 시대. 대로는 왕의 길이었다. 대로를 중심으로 소로(小路)들이 뻗어나가 도시를 이루었다. 생래적 직접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는 동양에서는 광장도 없었다. 오직 절대자와 그 통치를 받드는 신민들이 있을 뿐이었다.

동양의 광장은 이후에 만든 것이다. 도시의 기능상 미관과 시민 휴식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이 그러하고, 서울의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이 그러하다. 도쿄에는 아예 그런 광장이 없다.

그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이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보도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광장이 점거당한 것이다.

광화문 쪽의 시위대는 결박당한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인형을 들고 나왔고, 단두대와 처형당한 모습, 상여 등의 끔찍한 모습들이 등장했다. 이석기 前 의원을 석방하라는 정치적 구호도 등장했다.

시청 앞의 시위대는 광화문 쪽을 빨갱이들이라고 매도했다. 대부분 나이든 세대인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의 가치관을 무시당했다며 분노했다. 군복과 군가가 등장했으며 젊은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두 시위대 사이에는 경찰 버스가 막아섰다. 북쪽과 남쪽을 가로막은 분계선이었다. 그 상징성이 보는 이의 마음을 쓰리게 했다.

두 집단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북쪽은 남쪽을 '틀딱(틀니 딱딱)'이라고 매도했다. 남쪽은 북쪽을 '좌좀(좌익좀비)'이라고 비하했다. 이 같은 대립은 심각한 세대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양 진영에서는 마침내 자살자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스님이 소신공양했고, 시국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60대가 투신했다.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다. 부모와 대화하다 "말이 안 통한다"며 뛰쳐나가는 자식. 고생하며 부족한 것 없이 길러냈더니 배신감을 느낀다는 부모도 있다. 오랜 친구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태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익혀 소통하는 현상도 보였는데 이 문자 소통이 갈등의 요인도 됐다.

대통령은 파면되고 갈등만이 남았다. 이제 국민들이 오롯이 안고 가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파면 후에도 청와대를 바로 떠나지 않다가 사흘만에 자택 앞에서 환히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많은 이를 당황케 했다. 도대체 오랜 다툼의 결과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은 커녕 탄핵 반대 시위 중 사망한 3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른 아침, 미용사는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해 몸 던져 법정 변론을 하고 사재를 털어 신문 광고를 내던 변호사는 문전박대했다. 죽은 이들, 변론한 이들, 그들은 누구를 위해 그토록 싸웠단 말인가?

대통령 탄핵 소식을 나는 대구 동화사에서 들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재취임 회견을 위해 BTN불교TV 녹화팀과 함께한 자리에서였다. 소식을 접한 종정 스님은 무척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다. 마음 한 번 잘못 먹음으로써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이었다.

한 시간 동안의 회견에서 종정 스님은 참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현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참선에 있다는 말씀이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이 참선의 세계화에 있다시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세대 갈등도, 가족 갈등도, 친구 갈등도, 진영 갈등도 그 원인은 마음이다. 우리는 이제 갈등을 풀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이후, 주가를 연중 최고치로 끌어올려 실물 경제가 끄덕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는 나라이다. 광화문과 시청 앞에는 주말 시위대들이 들끓으면서도 큰 사고는 없었고, 인천 공항에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저력을 보여주는 나라이다. 이 힘을 보여주는 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다. 너와 나, 일반 국민들이다.

우리는 이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빚어낸 갈등을 씻고, 다음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사랑스런 후손들이 살아갈 소중한 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유자효
(시인 · 언론인)



도심 속 천년 고찰에 봄이 오다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에 봄빛이 완연하다. 3월 15일 봉은사 영각 앞은 꽃망울을 터트린 홍매화를 사진으로 담기 위한 상춘객들로 붐볐다. 겨울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이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비친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기대와 설렘이 번져나간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핵심 승려복지 '건강검진' 제공

승려복지회 ·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의료원 MOU
종단소속 모든 승려 대상, 원활한 수행생활 지원

형편 어려운 스님 사전 검진
실무위원회 꾸려 본격 논의
대기실 · 병실 구분 두는 등
편안한 진료방안 모색한다

출가수행자의 수행 · 포교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인 건강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조계종이 동국대의료원과 함께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 동국대의료원(원장 오민구)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서 '안정적인 수행생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3자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단체들은 △수행생활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 △동국대의료원이 스님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각 기관 협력과 지원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검진 제공키로 합의했다. 또한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 분담한다.

협약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스님들의 특정 질환 검진을 돕자는 취지서 시작됐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은 여성질환이 발생했을 때 부인과 진료를 마음편히 받게 어렵다는 호소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에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동국대의료원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뤄졌다.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대상 범위를 조계종 소속 모든 출가수행자로 포괄 · 적용한 점이다. 그간 승려복지회의 치료비 지원사업이 발병 이후 돕는 사후적 성격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예방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스님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동국대일산병원이 현재의 일반인 대기실과 병실에 일정 정도 구분을 둘 예정이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스님들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스님들이 부인과 · 비뇨기과 진료를 받는 데 오해의 시선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일반인과 대기실을 달리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병실 한 칸을 스님들만 입원할 수 있게 조정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각 단체는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장검진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방에서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강원 등 인원규모가 큰 곳을 방문해 검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실무논의서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진료차 등에 관한 언급도 있었지만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진료봉사 등과 중복되지 않게 일정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협약식에서 승려복지회장 지현 스님은 "집행부 핵심과제로 2011년 출범 이후 6년째를 맞았다. 그간 해오지 않았던 승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스님들이 노후나 병원 등 걱정 없이 포교와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민구 동국대의료원장은 "스님들께서 병원 진료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스님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일을 많이 접했다. 건강하게 수행생활을 하실 수 있게 돕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윤호섭 기자**

봄꽃 산사부터 축제 · 템플스테이까지… 특집 섹션 '봄, 花寺하다' B1~7면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 추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14대 종정 眞際 法遠 大宗師의
추대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일 시
불기 2561(2017)년 3월 27일 (월) 오후 2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추대법회에 참석하시는 스님들께서는 장삼과 종단 대가사를 수하시기 바랍니다.
* 추대법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오후 1시까지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도사 산중총회 성원미달로 무산

3월 15일 164명 참석, 빠른 시일 내 다시 열기로

4월 이후 산중총회 열릴 듯
방장 유고 사태 불가피해
노천문도회장 현문 스님 선출
영배 스님에게 산중총회 요구

영축총림 통도사 차기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성원미달로 무산됐다.

통도사는 3월 15일 경내서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회의를 개회하려 했으나 전체 구성원 461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예정된 오후 2시까지 77명이 출석했으며,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 30분가량 기다렸으나 164명을 끝으로 성원 되지 않았다.

결국 참석자들은 산중총회 대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서는 산중총회 홍보에 주지 영배 스님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영배 스님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로써는 4월 1~3일간 봉행되는 보살계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노천문도회 소속 120여 스님들이 보광선원에 모여 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임했다. 문도회장은 자장암 감원 현문 스님, 수석부회장은 정우 스님(구룡사 주지)이 맡았으며, 부회장은 명신 · 동주 스님이다. 분과위원과 운영위원 임명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또한 노천문도회는 다음 산중총회 시일을 앞당겨 달라는 요지의 산중총회 요구서를 영배 스님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산중총회 구성원 12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전체 3분의1인 154명을 채워 산중총회법에 따른 소집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산중총회법 제5조에는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은 산중총회서 추천하고 중앙종회서 추대한다. 따라서 영축총림이 오는 27일 개원하는 중앙종회 전까지 방장 추천을 하지 못하면 방장 유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현방장 원명 스님 임기는 3월 25일 만료된다. 특히 영축총림은 과거 前방장 월하 스님 입적 후 수년간 방장을 선출하지 못한 바 있어 또다시 총림 내 혼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성미 기자

백년대계본부 내달 공식출범 예정

4월 13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종단지도부 대중공사
2017년 첫 사부대중공사 더불어 서울서 출범식

조계종 제34대 집행부의 마지막 핵심 사업인 백년대계본부가 내달 공식출범한다. 이에 따라 본부장 선임을 비롯해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등 관심이 쏠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서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백년대계본부 출범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는 백년대계본부 출범에 앞서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종단 주요소임자 대중공사를 4월 13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무원장 · 종회의장 · 호계원장 · 교육원장 · 포교원장 · 각 부실장 ·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 기관장 · 신행단체장 등 종단 핵심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백년대계본부의 대중공사는 '불자 감소'와 '출가자 감소 및 고령화'를 대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한국불교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대에 부응하는 사찰과 종단 등 한국불교 전반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대중 공의를 모을 계획이다.

불자 · 출가자 감소 주제로
조계종단 백년대계 모색
본부장 인선에 관심 집중
미래세대委 출범 가시화

또한 백년대계본부 운영위원회는 4월 중으로 2017년 제1차 사부대중공사와 백년대계본부 출범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소는 서울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년대계본부는 △불교사회연구소 △종책개발위원회 △대중공사추진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화쟁위원회 등 5개 산하조직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종책개발위와 미래세대위원회는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부는 출범식 전까지 공석인 본부장을 선임하고, 미조직 위원회를 갖추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년대계본부장으로는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나 스님의 완강한 고사로 인해 본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크게 거론되는 인물이 없어 본부장직을 누가 맡게 될지는 주요 관심사다. 종책개발위는 중앙종회의 협조와 참여를 중심으로 갖춰지며, 미래세대위원회는 준비위원회를 꾸려 본부 출범 후 적합한 인사 물색에 나설 전망이다. 미래세대위원은 불교계 인사보다는 일반사회에서 한국불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1월 종단 미래전략 수립 등을 위해 '백년대계본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하고, 사무총장에 일감 스님을 임명했다. 윤호섭 기자

대선주자에 '통합' 당부

자승 스님, 안철수·남경필 후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예방을 받고, 서로 통합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이 자리서 안 의원은 "많은 시민을 만나면서 치유가 필요한 때라는 걸 느꼈다. 통합은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인위적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시작된다"며 "촛불과 태극기 모두 애국의 다른 표현임을 서로 인정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중도적 입장으로 중심을 잡아 갈등이 치유되도록 발품을 팔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튿날엔 바른정당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조계종을 예방했다. 남 지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원장스님께서 통합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통합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운주사 석불·석탑'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동아시아 희귀한 공간" 평가


화순 운주사 와불.

화순 운주사 석불 · 석탑군이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제출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최종 등재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에는 10~16세기말까지 조성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석불상과 석탑 그리고 별자리나 칠성신앙과 관련되는 칠성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공간적 조성과 형태의 다양성, 조형성은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또한 운주사는 다른 불교사찰과 달리 불교적 요소와 외에도 밀교, 도교적 요소가 강하게 반영돼 있으며, 사찰 경내에 불상과 불탑의 석재를 채굴했던 채석장과 석재 운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도 매우 특이하다.

문화재청은 2014년 전라남도로부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2015년도에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으로 유산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등재신청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올해 1월 24일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잠정목록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려는 예비목록이다. 잠정목록에 등재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만 세계유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문화재청은 "향후 전라남도 · 화순군과 함께 유산 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추진하여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포교 스펙트럼, 태아·영유아까지 넓힌다

조계종 포교원, 태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작

조계종이 미래세대 포교 영역을 확장해 태아 및 영유아 포교에 나섰다. 인간이 받는 최초의 교육이자 가장 근본적인 교육인 태교부터 영유아 교육 및 신행활동까지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태교 및 영유아 인성교육프로그램 '명상과 예술놀이로 부모 자녀의 행복한 마음정원 가꾸기'를 개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태교 △수기(수계)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 인성교육 △태교 및 영유아 프로그램 위한 사찰 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교태교의 실천방안으로 임산부에 맞는 팔정도 수행법을 제시하고, 호흡 · 알아차림 · 조약돌 명상, 행복한 감각태교, 부모은중경 사경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태아와의 교감을 높인다. 또 자연과 교감하는 불교적 예술놀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는 데 주목한다. 가족과 함께 부르는 동요 중 '마야부인의 잉태', 찬불가 '부처님 마음일세', 개사곡인 '엄마의 마음일세' 등도 눈길을 끈다. 포교원은 현재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료집 및 CD를 조계종 전법중심도량 130여 곳 중심으로 배포한 상태이며 사찰 법회 등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불교의 세대 간 전승과 미래세대를 위한 방안인 태아 및 영유아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젊은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사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교수행법 접목해 심성 순화
주요사찰 영유아 포교 나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도 기대"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국내 주요사찰은 태아 및 영유아 포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올해부터 연간 한차례 열리던 기존 유아수계법회를 매월 진행하는 영유아 돌맞이 마정수기법회로 확대했다. 마정수기 법회에는 100일부터 돌 직전 아기들이 참여한다. 동참한 아기들에게는 어린이용 오계가 내려지며 미륵전 아기 인등을 1년간 무료로 밝힌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2월 25일 처음 열린 마정수기 법회에는 20명의 영유아들이 수계를 받았다.


지난달 열린 봉은사 마정수기법회. 주지 원명 스님이 법회에 참석한 아이 정수리에 마정수기를 하고 있다.

차혁진 봉은사 교무팀장은 "가족이 함께 오는 사찰을 목표로 포교의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 영유아 포교는 부모세대 포교도 함께 진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4월 9일 일요일 영유아 마정수기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사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어 왔지만 영유아까지 확대한 것은 처음이다. 조계사 측은 지난해 4월 대웅전 앞마당에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영유아 부모를 위한 포교에도 나선 바 있다.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는 "태교는 심신수행의 방법으로 산모의 노력은 스님들의 수행과 다름없다. 즉, 태교 방법으로 불교 수행이 잘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영유아 포교 또한 부처님 사상과 수행방법을 통해 아동기 바른 종교성과 사회성을 확립하고, 또한 가족포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포교방법 개발과 보급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3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3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7년 양력 4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7년 4월 10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수강료 별도)
※ 특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8514-7468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조계종복지재단, 경제취약계층 자활 통로로 '우뚝'

2012~현재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성과 주목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은행 대출은 꿈도 못 꾸는 경제취약계층. 이들을 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저소득층 자립 구원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우리나라에서 '미소금융'으로 불리며 각 지역자치단체마다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제도로 널리 상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고정저금리(1.8%)로 창업자금 또는 경영개선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계종복지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연간 일정금액을 할당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는 일을 수행한다. 보증료율은 0.5%, 상환기간은 총 5년, 대출은행은 우리은행이다.

조계종복지재단을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7개 업체가 약 29억6890만원을 대출받았으며, 이중 81개 업체(45.8%)가 저소득층에 해당돼 눈길을 끈다. 이처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및 다양한 창업교육도 지원해 만족도가 높다.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남강숙 대표는 "20년간 옷장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조계종복지재단을 만나 다양한 의류를 비치할 수 있게 돼 자금운영이 원활해졌다"며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웃어보였다.

또한 동작구에서 '주영텔레콤'을 운영 중인 박상훈 대표는 "지인 소개로 조계종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알게 됐다. 사업을 확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매달 방문해주시는 사업장 운영 관련 상담도 세무·회계 부분서 꼼꼼히 점검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조계종복지재단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할당받은 9억1500만원 중 9억1400만원을 총 42개 업체에 대출을 지원하며 99% 지원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2012~2015년에 비해 높은 비율일 뿐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들이 할당액을 번번이 채우지 못하는 점에 비하면 월등한 성과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이에 대해 홍보 및 템플스테이 효과라고 자체 평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영텔레콤' 박상훈 대표(사진 왼쪽)가 사업장 운영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저금리 창업·경영개선 대출
5년간 177개 업체 30억 지원
저소득층 대출지원 45% 달해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만족

숫자로 보는 조계종복지재단 '마이크로크레딧'

5년간 대출지원액 29억6890만원

2016년 대출지원액/할당액 99.89%

총 대출 지원업체수 177곳

저소득층 지원 비율 45.8%

조계종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처음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어 대상자들이 크게 만족했다"며 "이런 특화 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 및 창업교육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지인 소개를 통한 지원 신청자가 크게 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통한 지원 내용은 크게 창업자금과 경영개선자금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자금은 신규창업준비자 및 창업 6개월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이내 자기자금 투자범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경영개선자금은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 서울소재 사업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자영업자(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 △서울희망플러스통장 저축 완료자 △실직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자녀 2인 이상, 막내자녀만 13세 이하) △다문화가정 및 새터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도박·사치·향락 등 사회건전문화 저해업종 △주류·담배 등 국민건강유해업종 △서울시 외 지역 △금융거래 부적격자(신용관리정보 등재, 개인회생, 신용회복지원, 파산, 면책, 재산 압류 및 가압류 등) △타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이용시 중 1개 사항이라도 해당되면 지원 불가하다.

지원 희망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서 지원신청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초본 원본 △신분증 사본 △대상자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거주지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조계종복지재단 측에 제출, 추후 절차를 거쳐 우리은행으로부터 최종 대출 승인을 받게 된다.

한편 본지는 지난 3월 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체결한 '경제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매월 1회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관련 기사 게재를 통해 본 사업을 홍보하고, 경제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넓힐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교 성평등 실현 목적 '성평등불교연대' 창립

전국비구니회 등 19개 단체

불교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평등불교연대가 창립됐다.

성평등불교연대(상임대표 노숙령, 불교여성개발원장)는 3월 16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강당서 발족식을 열고, 불교 내 성폭력 근절 및 성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이번 출범을 계기로 불교계 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길 바란다"며 "출재가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활발한 활동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연대는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구성됐다. 하지만 앞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 △긴급신고 전화 운영 △피해자 구제활동 △성평등 의식 고양 교육 △이웃종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성평등 캠페인 등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상담전화는 (070)7772-8050이다.

연대에는 전국비구니회, 광주불교NGO네트워크, 교단자정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지, 바른불교재가모임, 본마음심리상담센터, 종교와젠더연구소, 지혜로운 여성, 한국불교상담학회 등 모두 19개 단체가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도난 부여 무량사 금동불, 본래 자리로

문화재청·대전경찰청, 81점 회수… 불영사 불화 8점도
충남도 문화재 지정 후 도난, 조선 불교조각사 중요사료



부여 무량사 5층석탑 해체 보수 중 발견됐다가 도난된 금동불이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과 공조수사해 회수한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등 총 81점을 원소장처로 돌려보낸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81점의 문화재 중에는 불교 성보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사진〉이다.

부여 무량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1971년 무량사 오층석탑 해체보수 작업 중에 1층 탑신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중 본존이다. 이 석탑에서 출토된 아미타삼존불과 관음보살(총 4구)은 충남 유형문화재 100호로 지정됐으나 1989년 7월 13일에 모두 도난당했다.

이후 3구는 문화재청이 2001년 2월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회수됐고, 나머지 불상 1구는 인천 송암미술관의 신고로 되찾게 됐다.

이번에 회수된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33.5㎝로, 고려 후기의 불상양식을 계승하여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또한 1989년 10월 23일 도난당한 경북 울진 불영사 시왕도 7점과 사자도 1점도 환수됐다. 두 폭이 한 쌍인 시왕도를 도난 후에 별개로 나누어 액자로 만들었다. 이 불화는 19세기 후반 경북·경기서 활동한 대표적 불화승인 서봉 응순, 만파 정탁이 조성한 것으로 현재 이들이 제작한 지장보살도와 관음도가 남아 있다.

이밖에도 한필원 지석 등 19점, 전북 익산 김안균 가옥(전북 민속문화재 제23호) 현판 등 7점, 이민성의 문집인 〈경정속집(敬亭續集)〉 도 원소장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조수사와 문화재 관련 도난단속을 강화, 문화재 보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자비명상'으로 대중과 소통해요

현대인들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명상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님들이 명상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3월 13일 동국대서 열린 자비명상 신입생 환영회 및 제3대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에는 50여 스님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한 스님들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사진 뒷열 오른쪽 네 번째)의 '스님들이 깨어야 한다'는 선창 아래 유쾌하게 엄지를 들어 올리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차, 신사옥 건립 영향평가 공청회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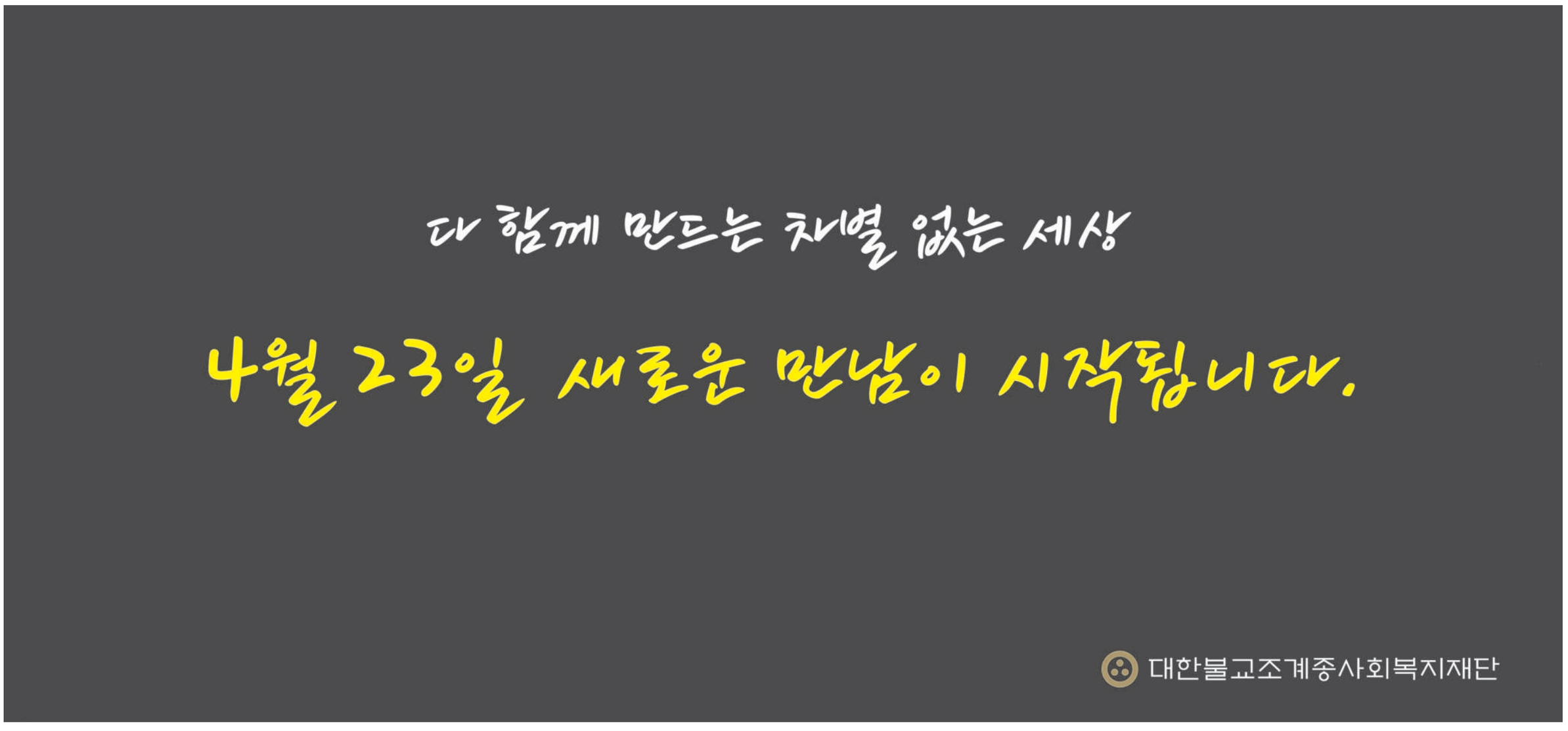
3월 30일, 서울 대치2문화센터

한전부지를 매입해 신사옥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가 조계종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지현·원명)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3월 14일 조계종에 신사옥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를 오는 30일 열겠다고 전했다. 장소는 서울 대치2문화센터로 정해졌다. 이곳은 대규모 인원이 수용 가능해 현대차 측과 조계종 측에서 주요관계자를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대차 측에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종단소속 환경전문가들에게 참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종단차원 공청회를 통해 목소리를 한데 모으고 싶지만 일정이 빠듯해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일 주 문



군종교구 JSA법당 낙성

정우 조계종 군종교구장은 3월 3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신축 법당 무량수전 낙성식을 개최한다. (02)749-8646



고은 시인 초청 특강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4월 11~12일 해남 대흥사에서 고은 시인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061)534-5502



성남 분당서 경승실장 위촉

성행 의왕 청계사 주지 스님은 3월 10일 성남 분당경찰서 4층 회의실에서 김해경 경찰서장으로부터 경승실장으로 위촉받았다.



불교인재원 조사어록 대강좌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전법회관에서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를 실시한다.



문화재돌봄협회 초대회장 선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3월 8일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열린 문화재돌봄협회 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불교 혁신, 포교사들이 앞장설 것"



전국 5000여 포교사들이 한데 모여 불교 혁신을 위한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3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4회 포교사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포교사단은 포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정비 및 사회공헌 사업을 보다 활발히 펼칠 것임을 밝혔다. 윤기중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10년 만에 불교 인구가 300만 명이 줄어든 결과에 대해 종단의 포교사로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신행혁신운동과 결부해 1인 1수행법 갖기와 신도등록 활성화 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촉 이승은 총무원 사회부 주임

이승은 총무원 사회부 주임은 3월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 6층 나인하우스홀에서 신랑 윤강현 씨와 화촉을 밝힌다. (010)2113-3287

"군법당은 설법의 전당 관심 절실"

Interview

임관 1000일 맞은 최초 여성군종장교 명법 스님



장병 군생활 및 인생 상담 주력
승가대학 특강 및 경계부대 위문
"청년불자 양성에 보람 느껴요"

2014년 6월 27일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창군 이후 최초의 여성 군종장교로 비구니 스님이 임관했다. 여성 군종장교 1호인 명법 스님이다. 스님이 군종장교로 임관하여 활동한지 1,000일인 3월 15일 그동안의 군포교 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투복을 입고, 군화를 신었지만 스님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놓지 않고 있다는 명법 스님은 그동안의 소회를 "뿌듯하다"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신교대 훈련병들을 비롯해 젊은 청년들을 볼 때면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불자들인데 신심을 다해 잘해줘야겠다'는 마음만 있어요. 한해 두해 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군생활을 통하여 불심을 키우고 무사히 부모님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이 커졌습니다."

명법 스님은 특히 병사들을 세심하게 챙겼다. 법당에서 불교를 처음 접한 병사들에게 먼저 따뜻한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고 군생활과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을 했다.

"생각보다 많은 병사들이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더군요. 가만히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스님의 마음씀씀이를 느껴서일까. 스님은 제대한 장병들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했다. 비구니로서 어려움도 있지만 스님은 "부대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법당은 같다"며 "승가 대중생활 덕분에 군생활에 쉽게 적응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종장교를 꿈꾸는 스님들을 위해 승가대학 특강도 진행하고, 경계부대 위문을 비롯해 신병 면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성 군종장교로서 군 내에 갖춰지지 못한 부분은 저를 비롯해 다른 선임 여성 군종장교들이 활동하다보면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에서도 양성평등 문화가 잘 자리잡고 있어 어려운 점은 없어요."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에 있는 명법 스님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고, 2년 연장 근무를 지원했다. 스님은 "보다 많은 청년불자들을 만나 포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군법당 만큼 설법과 기도의 체계가 잘 잡혀 젊은 세대에게 포교를 하는 곳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님은 "교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일선 법당은 불자간부들의 도움이 없이는 법회 준비부터 법당 운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힐 군불교에 관심을 갖고 일선 군법당을 후원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담 전문성 향상에 주력"

불교상담개발원 신임원장 가섭 스님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사를 배출하는 불교계 대표기관, 불교상담개발원의 신임원장으로 가섭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3월 17일 열린 불교상담개발원 이사회에서 신임원장으로 선출된 가섭 스님(조계종 포교부장)은 "불교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장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며 "불자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상담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안암학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학사관리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동안 상담개발원 출신의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소통을 통해 발전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님은 "가장 먼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개발원에 입학해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사상에 기반한 상담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상담사를 배출하고 현장에서도 현장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포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에 힘 쓰겠다. 특히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병행 개발하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상담을 주제로 한 다른 불교계 단체들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사업을 진행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접하고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노덕현 기자**

"정신문화 발달에 기여"

이병호 24대 울산불교신도회장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신문화가 앞서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교사상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해 울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지역 불자들의 모임인 울산불교신도회의 수장으로 이병호 한일전설 대표이사〈사진〉가 취임했다.

울산불교신도회가 3월 14일 울산MBC컨벤션홀 2층에서 개최한 제24대 회장 취임식에서 이병호 신임회장은 "불법 홍포 사명을 바탕으로 울산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회장은 정토사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정토사 신도회장으로 신도 조직화에 앞장서 왔다. 조계종 선혜 품계를 수지한 이 신임회장은 현재 울산 바둑협회 부회장, 충숙공 이예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등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이 신임회장은 "울산은 경주에 버금갈 정도로 사찰 수가 많고 고승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며 "찬란한 불교문화가 사장돼 있다. 울산 불교문화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내빈소개 △감사패 전달 △재직기념패 전달 △이임사 △추대패 및 회기 전달 △취임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법륜사 회주 눌암 스님, 망해사 혜학 스님을 비롯해 김기현 울산시장과 윤시철 울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청호불교문화원 장학금 수여식



청호불교문화원(이사장 이종욱)은 3월 14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청호불교문화원 본원에서 제1회 청불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호불교문화원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국대 등 국내 주요대학 학생 21명에게 1년 등록금 전액인 총 6,48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장학생 네트워크인 청불회를 조직하고, 향후 장학생들의 사회활동도 힘써 돕기로 약속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연합행사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함결)은 3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조계종 자원봉사단 연합행사를 개최했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행사 중 1부에서는 2017년 신임봉사팀장 15명의 임명식을 비롯해 우수봉사자 208명에 대한 인증배지 수여식, 신규단원 환영식 등이 진행됐다. 또 복지백년발전위원회 위원인 호산 스님이 특별법문을 통해 불자 자원봉사자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운문사, 2017년 법계장학금 전달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회주 명성 스님이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법계장학회 제15회 법계장학금 수여식을 3월 11일 거행했다. 이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전공 감로 스님과 동덕여자대 관현학과 이다은 학생 등 8명에게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전달됐다.

이날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장학생들에게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공헌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3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국제포교사회와 서울 네팔법당이 공동주최한 로사르 축제에 참가한 대중들의 모습이다. 한바탕 어우러진 춤사위 뒤 한데 모인 한국과 네팔 불자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첫만남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친밀감이 감돈다.

한국서 맞은 고국의 새해, 佛心에 희망 담다

국제포교사회 · 네팔서울법당, 제1회 로사르 축제 현장

"이렇게 네팔사람들과 한국사람들이 한데 모여 즐겁게 논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고향 네팔에서도 민족이 달라 함께 어울리기 힘든데 로사르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했던 3월 12일, 서울 일원1동 주민센터에는 점심 경부터 인파가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한복과 법복을 입은 이들부터 네팔 전통의상을 입은 이들까지 복장도, 언어도, 피부색도 조금씩 달랐지만 들뜬 표정으로 센터에 들어서는 이들의 모습만큼은 모두 같았다.



네팔불자들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제포교사들과 어깨동무를하고 춤을 추고 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회장 박홍우)와 네팔서울법당(주지 쿤상)이 공동 주최한 네팔 설명절 '제1회 로사르 축제'에는 네팔 이주민과 박홍우 국제포교사회 회장을 비롯해 이경호 부회장, 하기완 국제부부장 등 10여 명의 국제포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국적을 넘어선 우정을 쌓았다.

이날 네팔 이주민들의 복장은 한국불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앞치마를 앞에 두른 셰르파족을 비롯해 치마를 뒤로 두른 열 모족 등 다양했다.

쿤상 스님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네팔에서는 각자의 전통문화가 있다. 오히려 네팔에서도 명절에 서로 모이기가 쉽지 않다. 한국불자들의 후원으로 한국의 네팔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 뜻깊다"고 감사를 표했다.

축제는 1부 네팔전통 법회 의식을 시작으로 2부 어울림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센터 2층 강당 입구에는 포교사들이 준비한 떡과 다과를 비롯해 새해 수확물을 의미하는 네팔 오곡이 마련됐다.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은 강당 입장에 앞서 요거트와 미숫가루 등 네팔 오곡을 맛보며 새해 건강을 빌었다. 1부 법회에서는 축복을 기원하는 '카타'(목도리)를 한국불자들에게 전하는 의식이 진행됐으며 박홍우 국제포교사회 회장이 네팔서울법당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2부 어울림 한마당. 남녀가 섞인 네팔 측 전통 춤사위가 끝나자 네팔사람들이 한데 모여 춤을 추기 시작했다. '쉭, 쉭'이란 박자에 맞춰 발을 구르는 동작 하나하나가 신명을 더해갔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네팔 이주민들은 국제포교사들을 무대로 이끌었다. 처음엔 어색했던 모습도 이내 함께 춤을 추며 사라졌다. 모두가 함께 발을 구르며 같은 소리를 내며 동질감을 높였다.

이날 한복을 입고 네팔사람들과 어울린 보현행 류혜란 보살은 "현대불교신문에서 서울에 네팔법당이 건립됐다는 기사를 보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평소 부처님 나라인 네팔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네팔 사람들을 만나 문화를 배우게 돼 참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날 축제에는 자비의집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보살펴 온 정수 스님도 참석했다. 스님은 "지금까지는 서울 내 네팔 법당이 없어 행사를 못했는데 이제는 보금자리가 생겼다"며 "보다 많은 한국불자들이 불자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네팔불자모임 회장 라메스 씨는 "이런 기회를 통해 모르는 친구들도 한국에 와서 만나고 모이니 큰 힘이 된다. 한국에 온지 17년이 됐는데, 정말로 따뜻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쿤상 스님이 로사르 네팔 전통을 설명하고 있다.



1부 네팔식 불교법회를 진행하는 모습.

"이주민 노동자부터 불자로 포교를"

박홍우 국제포교사회 회장



박홍우 국제포교사회 회장〈사진〉은 "현재 국제포교사회는 수도권 법당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22개 이주민 법당 8개 공동체에 국제포교사 담당자를 지정한 상태"라며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서 신행활동을 하기에 시간과 경제적인 제약이 있다. 5월 중 서울 봉은사서 사찰음식 강좌를 비롯한 한국불교 문화 체험의 기회도 열겠다. 이와 함께 미얀마와 태국 송카 축제 등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끝으로 "국제포교사회 자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제포교사들의 역할이 크다. 종단과 연계해 이들이 보다 활발한 불자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전통음악, 국악관현악으로 재탄생 '2017 리컴포즈'

국립극장 국립국악관현악단,
3월 24~25일 2017 리컴포즈



2017 리컴포즈 공식 포스터.

전통음악에 국악관현악기를 입히니 노래 속 애절함과 세월의 견고함, 느린 음의 미학이 더욱 진해진다. 세월 범패의 짓소리, 제주 민요 '진도굿', 전통 성악곡 '이수대엽', 정읍사의 반주곡서 궁중음악으로 발전된 수제천까지 각기 다른 4가지 전통음악이 국악관현악기를 통해 재탄생된다.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임재원)은 '2017 리컴포즈'를 3월 24일과 25일 달오름극장서 선보인다. 2014년 시작된 리컴포즈 시리즈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시각에서 접근, 동시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음악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리컴포즈 시리즈는 일반적인 연주회와 달리 매번 위촉 초연 작품으로만 무대를 구성해 더욱 주목받았다. 2017 리컴포즈도 마찬가지로 전곡 위촉 초연이다.

국립극장은 "초연무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란 소재의 견고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탄탄한 연주력으로 공연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며 "국악기에 대한 막연한 지식만으로 도전을 망설이던 작곡가들도 전통음악의 무궁무진한 다양성을 인정, 단원들과 작곡가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리컴포즈는 서양음악에 뿌리를 둔 4명의 작곡가들이 우리 전통음악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 국악기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뽐낸다. 강순미 · 강은구 · 김대성 · 김혜자 작곡가는 모두 서양음악을 통해 작곡 세계에 입문했지만, 다년간 우리 음악에 대해 연구 및 시도하며 각자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김혜자 작곡가의 '영산지심'은 불교 범패의 짓소리 '영산지심'을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승려들이 그룹을 이뤄 합창으로 서로 경쟁하듯 부르는 형식의 짓소리를 다양한 국악기를 활용해 악기의 음색, 성부의 수, 강약의 표현 등을 통한 합주와 합주의 대비를 만들어냈다.

김대성 작곡가의 '진토굿'은 다양한 형태의 전통음악 장단들이 총망라된 작품이다. 서두는 범패의 짓소리로 시작해 제주도의 토속민요와 고악보 소리 등 여러 장단들이 이어진다. 국립극장 측은 이 곡을 두고 '다양한 전통음악의 리듬이 강렬히 어우러진 한 판 굿'이라 예고하며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작품 중 가장 민속적이면서도 어둡고 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곡이라 평가했다.

전통음악 현대적 접근위해 2014년 시작

올해는 짓소리 등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

강순미 · 김혜자 작곡가 등 최강 라인업

풍부한 감정, 다양한 악기 기교 느낄 것

또한 강순미 작곡가의 '달아,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 다오'는 민간음악서 궁중음악으로 발전된 '수제천'을 본연의 애절함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국악관현악곡이다. 강순미 작곡가는 '수제천' 속 내재된 일상의 감각, 박자의 개념을 초월한 느린 세계에 주목했다. 다양한 악기의 기교를 만끽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리듬의 변주들을 담아낸 작품이다.

강 작곡가는 "강렬하고 웅장한 수제천의 주선율 위로 이어지는 잔물결과 같이 영롱하고 현란한 장식음들을 활용했다"며 "현대적인 사운드를 뿜어내는 외연을 벗겨내면 그 안에 애절함이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완연한 봄, 서정미에 흠뻑 취하고 싶다면 강은구 작곡가의 곡 '버들은 실이되고…'에 주목하자. 이 작품은 전통 시조시이자 노래하는 가곡 형식의 '이수대엽'을 웅장한 국악관현악곡으로 변화시킨 곡이다. 기존 노래에서 창자의 긴 호흡을 여러 악기들의 호흡으로 나누고, 절제된 감정은 다양한 악기들을 통해 표현했다. 다양한 감성들이 국악기를 통해 발현되는 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국립극장은 이번 리컴포즈 공연서 음향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연장을 달오름극장으로 선정했다. 국립극장 측은 "그간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대규모 편성에 따라 대극장인 해오름극장서 연주회를 열었다"며 "하지만 해오름극장의 지나치게 넓은 객석 공간과 무대 및 객석 간 먼 거리로 인한 음향적 한계도 발견했다. 이에 2017 리컴포즈는 국악기 고유의 매력적인 음색과 하모니를 보다 내밀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달오름극장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2017 리컴포즈'는 24일 오후 8시, 25일 오후 3시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4만원, S석 3만원이다. 예매는 국립극장 홈페이지(www.ntok.go.kt) 또는 인터파크, 티켓링크서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16C 조선 감로탱화, 불교지화로 장엄

정명 스님,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전시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가 부처님을 찬탄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내는 장엄물, 불교지화로 재탄생한다.

불교지화 명인 정명 스님(조계종 연화세계주지 · 사진)은 3월 23~26일 열리는 '2017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불교전통지화 특별전을 선보인다. 이번 특별전서 정명 스님은 16세기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 전통불교의식의 재현을 불교지화로써 재현한다.

감로탱화는 우리나라서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로, 교토 류간사에서 봉안되고 있던 것을 지난 2010년 주지 에지마 고도 스님이 자발적 의사로 기증해 400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돌아와 화제된 바 있다.

정명 스님은 "문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고, 시대에 따라 발전돼야 비로소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불교지화가 가지는 가치와 역사성, 재현을 통한 기법복원 등을 통해 그림 속 장엄물들이 우리들 삶으로 화들짝 뛰어들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전통지화 특별전'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후 오후 1시 별도의 개막행사를 갖는다. 아울러 24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불교와 무속 지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다.

박아름 기자

"〈古記〉, 탈중화 의식 바탕 불교역사서"

김승호 교수, 불교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
古記 담긴 불교설화 분석
수직 · 수평적 전이 이뤄져

고대부터 고려 초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고기(古記)〉는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보다 200여 년 전 앞서 찬술된 사서(史書)이다. 역사서 〈고기〉가 탈중화 의식을 바탕으로 기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호 동국대 교수는 3월 11일 열린 불교학연구회 · 동악어문학회 공동 춘계 학술대회에서 〈고기〉 소재 설화를 분석하고 이들의 맥락과 의미를 되짚었다.

김 교수는 〈고기〉에 내재된 한반도가 불국토임을 입증하는 설화들이 주로 수직과 수평적 전이로 분류됨을 주목했다. 수직적 전이의 경우 천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티브를 그대로 불교 천신 '제석환인(帝釋桓因)'을 통해 답습하고 있으며, '제석환인'은 천신으로서 지상 불국토화를 이뤄나간다.

김 교수는 "〈고기〉에서 제석환인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은 신라 · 고려시기 제석 신앙이 크게 주목받았으며, 어떤 천신보다 대중강화적 면모가 강했음을 보여준다"면서 "또한 환인이 지상으로 하강하는 것은 기존 신화적 내용 전개에 해당되나 최종 목표가 지상의 불국토화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건국 신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평적 전이는 금강산 유점사의 연기설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유점사 설화는 사찰 터를 찾기까지 천축, 해양, 신라로 이어지는 횡적 자취가 이어진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는 불성(佛性)이 충만한 곳에서 결핍된 곳으로의 동진현상을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가 중국이 아닌 해양을 통해 전래되고 있는 것은 찬술자의 탈중화 의식이 드러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고기〉를 살펴보면 불교는 북방의 중국이 아닌 해양을 통해 남방으로 유입된다. 이는 찬술자의 탈중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여기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중국보다 앞서 불교문화를 수입할 수 있었다는 상황적 조건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불교적 연원이 가장 깊다는 자긍심도 읽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6C 백제 금동보살상 일부 발견

부여 나성 시굴조사서… 불두 · 광배 등 소실

6세기 중엽의 전형적인 백제 금동보살상이 발견됐다.

부여군은 "고도보존사업의 일환으로 (재)백제고도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국가사적 제58호 부여 나성(북나성) 시굴조사 중 백제시대 6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금동보살상이 발견됐다"고 3월 13일 밝혔다.

이번 금동보살상은 부소산성에서 청산성으로 연결되는 북나성 성벽선 중 청산성 서쪽에 위치한 낮은 구릉부인 쌍북리 산지구간의 성벽선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시굴조사에서 발견됐다.

출토된 금동보살상은 전면만 조각한 입상(立像)으로 몸체와 손부분만 남아있고 불두 · 광배 등은 유실된 채 확인됐다.

보살상의 잔존 크기는 길이 6.3㎝, 너비 2.4㎝로 봉보주형(奉寶珠形) 보살상이다. 보살상의 뒷면에는 광배에 보살상을 고정시키기 위한 촉이 남아있어 일광삼존불의 협시보살상일 가능성도 있다.

출토된 금동보살상에 대해 부여군 관계자는 "발견된 보살상은 부여 군수리사지 출토 금동보살상(보물 제330호), 부소산 출토 금동삼존불편 등과 유사한 형태"라면서 "6세기 중엽 중국 남조의 양식을 받아 백제만의 특유한 표현력이 가미돼 제작된 것으로 화려했던 백제 사비기의 불교문화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부여 나성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보살상. 불두와 광배 등은 소실됐지만, 부소산 불상편들과 유사해 의미가 크다.

이어 "부여 나성 인근에서 출토된 금동보살상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현장 자문회의 등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근지역에 대한 추후 정밀 발굴조사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미륵신앙, 학술적 의미 조명

대광사, 26일 미륵대불 봉안 기념 세미나

천태종 대광사(주지 월도)는 3월 26일 오전 10시 미륵대불 봉안을 기념해 천태종의 미륵신앙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천태문화연구원(원장 이봉춘)의 주관해 '천태종의 미륵신앙과 불사의 의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봉춘 천태불교문화연구원장이 '한국 미륵신앙의 역사와 정신',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가 '대광사 3층 미륵보전의 건축 특징과 가치', 이기선 한국불교조형연구소장이 '대광사 미륵대불 조성과 신앙', 오지연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의 '천태종에서 미륵신앙의 의의' 등을 주제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가로×세로 15㎝, 1점당 희망가는 10만원이며, 계좌 입금 후 전화주십시오!
국민은행 638701-01-453575 (예금주 : 청담아트월드) ☎ 031-912-7112



우리가족의 보금자리에는 매일 성취 등을
밝히며 지장보살 · 관음보살을 뵙습니다!
本人이 원하는 바에 따라 약사여래불 ·
포대화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세련된 디자인과 심플한 모델의 친환경 목재로 완전 수작업으로 제작되며 실용시안특허를 받아 깎고 다듬고 못 하나 치지 않고 끼움 틀작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혼을 불어 넣은 장인의 작품입니다!
평상시에는 本人이 원하는 등불을 켜두시고 기도시에는 별도카드에 부착된 관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여래불, 포대화상으로 교체한 후 염원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의 가피와 원력과 에너지를 듬뿍받아 소원성취하시고 부자되시고 건강하십시오. (전기료는 月50원정도 LED부착)
부디 평생 꺼지지 않는 나만의 등불을 밝혀 강건하시고 소원성취를 이루십시오!
■ 친척, 친지, 윗분들, 자손들, 도반, 고마운분들, 생일, 생신, 축하선물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 사업장, 영업장, 사무실, 집무실, 공부방, 침실, 안방, 거실, 병실에 필, 성취 등입니다!
■ 성취 등 뒷면에는 **띠별호신부(저작권소유)**를 부착해드립니다!

※ 제작과정을 직접보고 확인하시고 싶은 분은 동영상을 신청하십시오!
(청담아트월드 총괄기획실장 서재명 010-5669-9572)



현재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는 기존의 인등을 철수하고
저희 회사의 소형목재 인등으로 교체 불사를 많이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는 스님께서는 동영상을 보신 후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사찰담당 상무 : 김수철 010-8881-0474



지혜의 보고 佛書



오이 암꽃을 자세히



마을 가까이 도라지밭



상추꽃 자세히

밥상 통해 인간 먹여살리는 밥꽃… 사람의 '목숨꽃'



밥꽃마중

장영란 · 김광화 지음 | 들녘 펴냄 | 1만 7천원

부부가 농사지으며 만난 60여 곡식꽃
채소꽃을 글 · 사진으로 남긴 9년 기록
어려운 식물 용어 한글로 쉽게 정리해

밥꽃중 가장 대표적인 벼꽃, 꽃잎 無
식물은 꽃피기까지 큰 에너지 소모

식물 근본 아는 것 먹는꽃에 대한 예의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이 한끼 만들어

벼나 콩에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체 벼나 콩 어디서 꽃이 피었다 진단 말인가? 논밭서 평생을 보낸 농부들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치기 쉬운 곡식꽃, 채소꽃.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작고 볼품없다. 형형색색 화려한 꽃잎과 탐스러운 이파리에 둘러싸인 꽃들에 비해 이 책서 보여주는 꽃들은 '이게 꽃이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이 책은 장영란, 김광화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만난 60가지 곡식꽃, 채소꽃을 글과 사진으로 남긴 9년간의 기록이다.

저자는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올라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꽃들을 '밥꽃'이라 이름 붙이고, 사람의 '목숨꽃'이라 여겼다. 이들의 지극하고 유별난 밥꽃 사랑은 단순히 꽃을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밥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사랑을 하고 꽃을 피우는지, 내가 키우는 밥꽃(농작물)은 언제 어디서 들어왔는지, 이들의 가계(家系)는 어떻게 이어져왔는지 등 공부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또한 한자와 우리말이 뒤섞여 어려운 식물 용어를 되도록 한글말로 (한자가 더 알아듣기 쉬울 때는 한자로) 정리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저자 김광화는 꽃을 피우는 그 짧은 시간을 보기 위해 새벽마다 카메라를 챙겨 들고 어둠 속으로 나갔다. 쌀 한 톨, 마늘 한 쪽 그리고 옥수수 한 알에 담긴 밥꽃의 생명을 '마중'하러 나갔던 길. 그 여정을 통해 만난 것은 그저 밥꽃 하나가 아니라 사랑과 생명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귀중한 가치였다.

꽃잎, 꽃받침, 수술 그리고 암술을 갖춘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꽃'의 구조다. 하지만 밥꽃의 가장 대표인 벼꽃에는 그 흔한 꽃잎도 없다. 그냥 껍질이 벌어졌다 닫힌다. 그래서 벼꽃은 '피는' 게 아니라 '이삭이 패는' 것이다. 벼꽃이 초라한 데는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다. 식물은 꽃을 피우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래서 벼는 제대로 된 '꽃'을 피우지 않고 '씨앗'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벼꽃 한 송이가 피었다 져야 겨우 한 쌀 톨이 된다. 그것도 날씨가 나쁘거나 영양상태가 안 좋거나 벌레가 못살게 굴면 허탕이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쌀 한 톨에 벼꽃 한 송이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다.

요즘 꽃이나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우리를 먹여 살리는 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열매를 맺는 모든 작물은 꽃을 피운다. 식물의 생장기를 '한살이'라고 하는데, 자기 몸이 자라는 영양생장기를 거쳐 꽃 피고 씨 맺는 생식생장기로 마감한다. 그중에서도 벼나 콩은 씨앗을 먹기 위해 기르니 영양생장기만이 아니라 생식생장기까지 '한살이'를 마쳐야 사람이 거두어 먹는다. 하지만 배추, 무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작물은 수확한 이후 밭을 갈아버린다. 애초에 뿌린 씨앗도 종자회사서 육종한 씨앗이니 다시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어차피 씨를 다시 사다가 심어야 한다. 저자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먹는 것이 자연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잊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밥꽃에 대한 작업은 이러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

20여 년간 맛본 수확의 기쁨만큼이나 뭉클하고 알싸한 식물의 세계. 작물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한살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페이지와 같다.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긴 이들 부부가 논 한복판에서 만난 작은 밥꽃 한 송이에 감동하게 되는 것은 알싸한 우리네 인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저 유명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밥꽃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농사지었던 경험이나 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식물학 기초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한 부부. 이 책의 말미에 정리한 '이론공부'만도 30페이지가 훌쩍 넘는다. 식물학 전공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 법한데, 오히려 평생 해온 농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곡식이든 채소든, 하나를 제대로 알려면 빠지지 않는 게 있다. 분류계통에서 무슨 '과(Family)'인지, 그다음에는 원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물론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듯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근원을 더듬다 보면 뜻밖의 것들을 알게 된다. 이를테면 고추, 담배, 호박은 우리 민족과 떼기 어려울 만큼 어우러져 꽤 오래된 작물이라 여겼지만, 그리 오래지 않은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 수박은 저 멀고도 먼 남아프리카가 원산인데 이미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옥수수는 아메리카서, 수수는 아프리카서 들어왔다고 한다. 곡식의 고향을 알게 되면 그 곡식을 어떻게 가꾸면 좋을지 감이 잡힌다. 물이 부족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물을 주어야 하는지 등 작물에 새겨진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농사에서 가장 참고가 되는 분류체계 역시 '과'다. 사람과 짐승이 먹고 사는 식량이 되는 벼, 보리, 밀, 수수, 옥수수 등은 모두 벼과 집안 식구들인데, 벼과가 바로 외떡잎식물이다. 외떡잎식물을 떡잎 한 장인 식물로만 알고 있던 상식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없어서는 안 될 꽃이 바로 외떡잎식물군의 벼과 꽃들인 것. 여기서 나아가 외 · 쌍떡잎식물을 묶어 '속씨식물'이라고 한다. 은행나무, 잣나무 등의 '겉씨식물'을 제외하면 우리가 먹는 나머지 재배식물은 다 속씨식물에 속한다.

이렇듯 '이론공부'라 이름 붙여진 내용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의 근본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비유담으로 설해진 68가지 부처님 가르침



법구비유경

이동형역 | 운주사 펴냄 | 1만 8천원

〈법구경〉은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게송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각 게송이 설해진 배경과 인연 이야기들을 통해 게송들이 가지는 의미를 쉽고 명료하게 보여준다.

불교경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경전은 무엇일까? 단연코 〈법구경〉은 그 수위를 다툴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과 수행자의 자세, 마음가짐들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도리와 교훈 등이 쉽게, 짧은 게송(시)의 형태로 돼 있어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권 모두에서 사랑받을 뿐 아니라 비 불교인들에게도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구경〉은 게송의 형태서 오는 압축성 때문에 그 뜻이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다수 있다. 〈법구비유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법구비유경〉은 〈법구경〉을 대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경으로, 법구(法句)의 게송 하나하나가 어떠한 본말(本末)의 인연에 의해서 설해지게 되었는가를 밝혀주는 여러 비유담이 실려 있는 경전이다. 즉 각각의 게송들이 설해진 배경, 인연 이야기들을 수록해 그 게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료히 드러내준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은 보다 쉽게 게송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감동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며, 그 여운 또한 길게 남을 것이다. 〈법구비유경〉은 총 4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유담으로 설해진 이야기는 68가지이다. 비록 이 비유담들은 법구의 게송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만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이고, 비유문학의 백미로 꼽히며 문학적 가치 또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이야기의 끝에 역자가 임의로 짤막한 글을 첨부한 것이다. 주로 본문의 이해를 돕는 내용이나 본문과 관련지어 역자의 생각을 서술했는데, 후자의 경우 역자의 생각을 전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연담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인연담의 경우 한문 원문을 수록하지 않았으나, 게송은 한문 원문을 수록한 점이다. 게송은 그 특성상 압축되어 표현되므로 번역에 어려움이 따르고, 따라서 자칫 본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문을 함께 수록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주일 기자

피가 돌고 맥박이 뛰는 살아 있는 깨달음, "아리랑"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깨침 아리랑



* 대현 지음 / 264쪽 / 값 15,000원

"나"를 떠나서는 십리도 못 가 발병 나리니
여보게들, 제발 제발
이 "나"를 속살 깊이 연구하여 보세나.
길은 안으로 안으로 놓여져 있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우리 민족은 지구촌 어느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든지 아리랑 노래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고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리랑에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독특한 한(恨)이 서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민족의 한과 정서가 깃든 아리랑의 유래를 알아보는 일은, 한맺힌 아리랑 노래를 "깨침의 노래"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자 대현 스님

1968년 백양사로 출가, 강진 백련사에서 南山正日 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셨다. 1975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안거 후 제방선원에서 50안거를 성만하신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깎아지른 바위산을 단박에 오르는 것과도 같아서 상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는 생각을 품고 계시던 중 '위빠사나'를 만난 이후 이를 간화선에 접목, 수행의 바르고 빠른 길로서 "위빠간화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지리산 정각사 죽림선원에서 정진중이시다. 저서로는 『선승의 길』, 『선을 배우는 길』, 『위빠간화선』이 있다.



* 대현 지음 / 160쪽 / 값 12,000원

위빠간화선

위빠사나와 간화선을 하나로 통합한 "선수행의 길라잡이"

늘 깨어 있어 알아차리면서 "이 뭣고?" 하고 화두를 챙기는 것이, 위빠사나 수행과 간화선 수행의 장점을 잘 살린 "위빠간화선"이다. 한 공간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 처음 위빠간화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들떠 요동치는 업식을 잠재우는 시간이 길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다보면 위빠사나의 알아차림이 짧아지고 화두 드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다보면 화두 의단이 독로하여 앉고 서고 가고 오고 말할 때 한결같게 된다.



한영대역판

그림과 함께 읽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

* 기획 및 감수 ‖ 대현 스님
* 240쪽 / 컬러 / 값 12,000원

가장 행복한 나눔—
"부처님의 생애"를 선물하는 일입니다

천지를 운행하는 거대한 섭리를 향해 던진 큰 물음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해답을 얻고야 말겠다는 구도에의 열정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큰 깨달음으로 세상에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안에서 진정한 쉴 곳을 찾았고, 구원을 얻었으며, 삶과 자연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눈을 떴습니다. 부처님의 생애가 주는 감동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진정으로 먹어야 할 영적인 양식이 아닐까요! —대현 스님 ("선승의 길"의 저자)

불교의 근본 핵심이자 바탕이 되는 부처님의 생애를 널리 알리는 일은 곧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산청 정각사에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생애〉를 널리 알리고자 사찰 및 개인에게 책값의 50%에 해당하는 법보시를 지원합니다.

문의 010-9772-4588, 055) 972-1109

올리브나무 전화 070-8274-1226, 010-7755-2261 팩스 031-629-6983 이메일 yoyoyi91@naver.com

‘무불상시대’의 울림, 나를 흔들다



윤범모 교수의 ‘佛道紀行’
– 붓다가야에서 토함산 석굴암까지

⑤ 불탑신앙 원조 산치대탑

탑은 왜 세우는가. 공들여 어렵게 세운 탑. 그렇다면 탑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공든 탑 무너지랴.’ 하지만 이런 속담의 허약함을 지적하게 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실제 도처에서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탑은 굳이 나무, 흙, 돌, 철 등으로 쌓은 건조물만 의미하지 않는다. 거창하게는 세상 만사, 그 모든 것을 말한다. 성주괴공이라고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을까. 한번 세워진 것은 시차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주의 철칙이다. 무너지면서 일어서는 것, 그게 사람살이의 길이다. 일어서기 위해 무너진다? 나는 실크로드의 폐사지를 돌면서 폐허의 아름다움을 듬뿍 안기도 했다. 폐사지를 복원이라는 명분 아래 억지로 재건하기보다 텅 빈 채로 방기하는 것도 아름답다. 빈 절터에 바람만 출입하는 풍광의 상징성, 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폐허는 폐허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절터 기행의 묘미가 있다. 폐허로 향하는 길.

스투파는 무엇인가. 붓다가 열반에 들자 시신을 화장하니 사리가 나왔다. 사리를 봉안할 건축적 가구물(架構物)이 절실해졌다. 산스크리트의 스투파는 탑파(塔婆)로 음사(音寫)되다가, 오늘날처럼 간략하게 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탑은 붓다의 무덤이라고 거칠게 개념정리할 수 있다. 스님의 무덤은 한동안 부도(浮屠)라고 불리다가 붓다의 불탑(佛塔)과 비교하여 승탑(僧塔)이라고 부른다. 탑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축이다. 하지만 전세계의 탑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아마 수십만 기가 넘을 것이다.

여기서 사리신앙의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붓다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와 말씀의 법신사리. 세상의 많고도 많은 탑은 다라니 같은 법신사리를 봉안하기 때문에 숫자와 무관하게 건립할 수 있다.

신라 자장율사에 의해 건립된 진신사리탑 다섯 군데는 일반적으로 적멸보궁(寂滅寶宮)이라고 부른다. 통도사 등 오늘날 기도처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명당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탑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증거이리라. 하기야 우리의 경우, 가람의 중심에 탑을 두고 있지 않은가. 원래 별도의 공간에 ‘무덤’을 두었던 것, 하지만 신앙의 중심으로 격상되면서 탑은 사찰의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리는 붓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붓다께서는 열반에 들면서 사리를 남겨주었다. 사리는 육신의 결정체, 아니 법신의 상징, 더나가 불교의 상징으로 발전되었다. 인도의 초기 탑은 원래 8군데였다. 사리분쟁이라는 말도 나왔다. 아쇼카 왕은 8만4천 곳으로 확대하여 스투파를 건립했다. 인도에서 8만4천이란 숫자는 물론 많다는 의미의 상징어다.

아쇼카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스투파를 인도 전역에 세워야 했을까. 그는 불교를 숭상했지만 통치정책 일환으로 불교를, 그것도 불탑 건립을 활용했던 것 같다. 역설적으로 이는 불탑신앙의 본격적 출발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인도 전국에 불교의 교세가 안착되었다는 반증이다. 이제 탑은 불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되었다. 탑은 신앙의 주요 대상으로 부상되었다.

아쇼카 시대 대표작 산치대탑
거대함과 단순미 조화돼 ‘눈길’
사방문 부조엔 부처 조각 없어
비어 있음에도 비어 있지 않아

“스투파는 정교한 의식에 따라 방위가 설정되었고, 전체와 각 부분의 크기도 정확한 비례 체계에 따라 설계되었다. 이 때문에 스투파는 피라미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학적으로 완벽한 비례를 갖춘 건축적 형태와 매스(mass)를 갖추게 되었다. 스투파의 부동성은 불사리 봉안이라는 그 기능을 표현하는 것이자 고정된 우주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스투파와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구조물들은 사리 봉안으로 서아시아의 우주관에서 발원한 정교한 상징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처럼 스투파는 기본적으로 우주의 건축적 형상화라고 할만하다.”

벤자민 로울랜드의 〈인도미술사〉 中

스투파는 우주의 건축적 형상화라, 대단한 의미 부여이다. 이 이상 무슨 수식이 필요할까. 나는 이런 말을 가슴에 담고 산치로 갔다. 거기 인도 탑의 상징과 같은 산치대탑이 있다.

산치대탑은 아쇼카 시대의 대표적 산물이다. 기원전 1세기 작품이다. 압도적 규모의 거대함과 더불어 단순미의 극치를 자랑한다. 어디 가서 이렇듯 훌륭한 건축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쩌면 현존 인도 미술품 가운데 최절정의 수준에서 평가해야할 명품이 아닌가 여겨진다.

산치대탑의 구조는 단순하다. 원형 복발형태의 탑신과 정상부에 사각 형태와 수직의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다. 발우를 엎어놓은 형태여서 복발(覆鉢)이라 불리는 것. 그렇다면 이는 ‘밥그릇’이 아닌가. 밥그릇은 생명 유지의 대표적 물건이다.

대탑을 멀리서 보면 꼭 아가씨의 젖가슴처럼 보이기도 한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속인의 눈에는 그렇게도 보인다. 그것도 꼭지까지 있는 유방. 그건 그렇고 원래 인도에서는 이를 ‘알’ 또는 ‘자궁’이라고 불렀다. 유방과 같은 돔을 알 혹은 자궁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밥그릇’과 ‘자궁’, 이 모든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닌가. 고대사회의 상징 코드를 읽게 한다. 상륜부는 사각형 안에 기다란 찰주와 더불어 원형의 산개(傘蓋)로 이루어졌다. 상륜부는 바로 ‘세계의 중심 축’, 바로 수미산을 의미한다. 탑의 꼭대기를 장식한 일산(日傘)들, 이는 존엄의 표시이다. 아무튼 산치대탑은 구조적 안정감과 단순한 형태미 그리고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절묘하게 압축한 걸작이다.



산치 대탑의 전경. 거대함과 단순미에 매료된다. 또한 앞에 있는 문과 안에 새겨진 부조는 매우 세밀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

산치대탑의 조형적 하이라이트는 동서남북 사방의 문에 새긴 부조이다. 다양한 소재와 사실적 묘사, 그것은 스토리텔링의 원조와 같다. 복발형의 단순한 탑신과 비교하여 석조 대문의 부조 작품은 보석과 같다. 본생담과 붓다의 일생 등 다양한 이야기의 형상화는 마치 야외 미술관과 같다.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조각공원이라는 사실인가.

세계 도처에서 몰려 온 나그네의 발길을 오래 묶어두는 곳은 특히 동문이다. 문 난간쯤에 아름다운 여체가 나무줄기를 잡고 매달려 있다. 속된 표현으로 풍만한 모습은 관능적일만큼 교태스럽다. 세상에 이런 여체상은 처음 보는 것 같다.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늘씬한 몸에 까치발의 동세 표현, 게다가 성기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고대 인도인은 어떻게 여체를 이렇듯 사실적으로, 그것도 육감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이 아가씨(?)의 이름은 약시, 힌두의 여신이다. 풍요의 여신. 바로 풍요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약시를 조각한 작가의 조형의지를 이해할만하다. 약시는 나무의 신부로 알려졌고, 곧 생명의 나무가 아닌가. 생명은 창조의 신과 연결된다. 나는 산치대탑에서, 한국과 같은 사찰이 아닌, 단순 스투파에서, 많은 상념에 빠져야 했다. 파격의 깨달음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2000년 전 인도인이 건네주는.

부조 가운데는 붓다의 모습을 새긴 곳이 있다. 아니다. 새기지 않았지만 새겼다. 바로 동양미술사에서 말하는 ‘무불상 시대’의 징표이다. 기원전후 1세기쯤에 이르러서야 불상 즉 깨달은 이의 존상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앞서 500년간은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지고지존(至高至尊)을 어떻게 형상화할까. 그것은 불경스런 일이었다. 그래서 산치대탑의 붓다 일생 이야기에 붓다의 실제 모습은 새기지 않았다. 빈 공간이거나 법륜, 보리수 같은 상징물로 대체했다.

보리수 아래의 비어 있는 불단, 그 아래에 경배를 올리고 있는 불제자들, 하지만 불단은 비어 있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 상(相)의 있음과 없음의 같음, 이런 교훈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무불상시대의 여백은 울림을 크게 만들어 준다. 나는 산치대탑을 돌면서, 이 걸작 중의 걸작을 음미하면서, 지나온 발걸음을 생각했다.

초기의 불교교단은 무엇 때문에 붓다를 형상화하지 않았을까. 멀리 갈 것도 없다. 이 대목에서 나는 조선왕조시대의 왕실용 의궤도가 생각났다. 국가적 커다란 행사가 있으면 도화서 화원은 행사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간직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속 사진사 역할이다.

의궤도 속 행사장면의 중심에 임금 자리가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주인공인 임금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다. 그냥 용상 정도만 표현되어 있지 막상 그 의자에 앉은 임금은 그려지지 않았다.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다. 지극존엄의 존재는 감히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조선왕조 기록화 속의 군왕 그리지 않기, 이 광경과 무불상시대의 인도 부조가 겹쳐졌다. 하기야 길을 길이라고 부르면 길이 아니라고 했다. 붓다도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일렀다. 붓다의 모습이 새겨져 있건 아니건, 이 또한 무슨 대수인가.

〈미술평론가, 동국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
사진=황헌만 사진작가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천하대도 생사해탈 운명과 생명의 원천 생노 병사 저승시체 면허장 반납하고 이생에 명부를 천부에 올려 영과 혼이 하나로 견성성불하는 영생 불로장생 대용맹정진법회

사람의 생명은 무량광자로 몸받아 이생에 올때 가지고 온 시체 면허장 받아온 반납하는 천하대도법 명부 생명의 원천이 영과 혼이 하나로 성불도통하여 불생 불멸의 영원한 장생 불국정토 견성성불 하는 것이다. 이 생애 올 때 가지고온 죽음을 면하는 법은 오직 무량광자의 빛에서 와 빛으로 가는 천하대도법 지부추명 천방부호 이 생에 명부를 귀부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죽음에 벽을 넘어 영원한 영생법은 오직 잠자고 있는 정신의 루이체 두뇌를 마인드컨트롤 옴마로 움직여 생노병사를 초월 도인, 신선, 선녀, 천재, 수재 제왕이 되어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는 도인으로 허주신, 빙의신, 무속신을 자신만 부리고 자손으로 안가는 도법으로 말법과 병겁에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천하대도법으로 만법을 다스리는 직업에 구애 받지 않고 영원한 지도자 인류스승 도통할 수 있는 그대를 초대하오니 의통력 받는 법회에 동참하소서. 용맹정진이란 자성인 마음을 말과 글과 염불 목탁 참선 그 어떠한 종교로도 찾지못하는 자성인 마음이 들어다니는 현관을 보는 견성성불이 되어 부처인 것을 부처를 믿으면서 부처님 불명도 모르고 믿으니 내 부처에게 점안하여 부처되는 것을 대용맹정진인 것이다. 한포기풀과 새들과 땅을파는 미물도 혜안을 여는 빛을보아 자신을 구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성직자 수행자가 부처만 팔아 먹었지 자신을 구하는 자성의 마음이 다니는 문을 찾아 점안하는 부천용천사 태양의 꽃이 핀 우담발화 도량 용맹정진에 동참 성불 도통 하소서.



빛의화신 태양의 꽃이 핀 우담발화가 인천 부평 용천사에 나투신 장면



■ 입 제 일 : 2017년 4월 2일 일요일 오후 9시(해시)
■ 회 향 일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9시(해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10만원 교제대 및 제반 행사.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6619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34(부평5동 204-4 3층 용천사)
■ 부산동시법회 부산경문사 보성스님 010-8633-1601

천지공사 불·선·도 총본산묘법 천궁 도통회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용천사 환성태일대사 합장

3천배 속 우러나는 환희심, 아! 성철 스님



박원자 작가의
인생을 바꾼 108배

⑥ 남을 위해 절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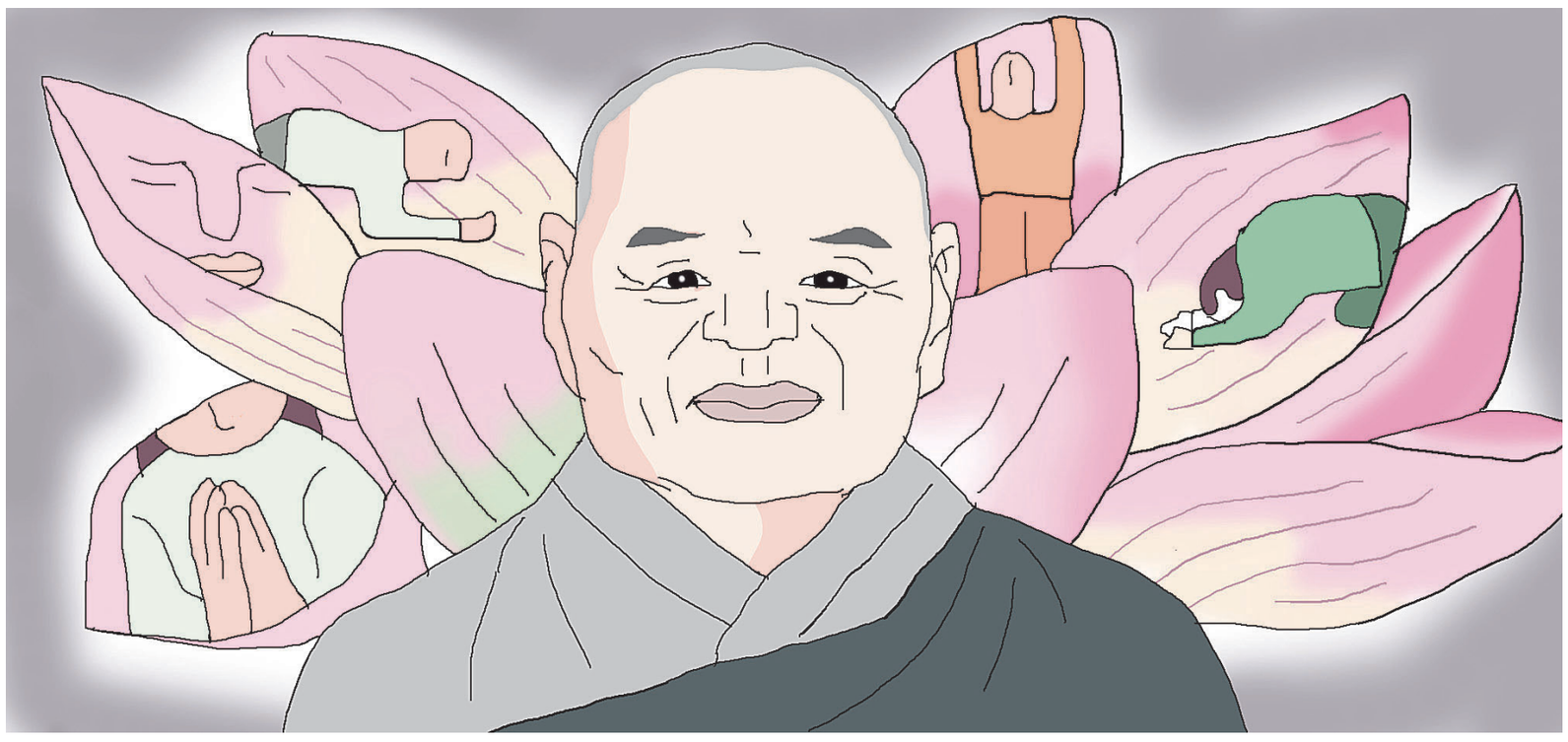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를 대표하는 선승이다. 스님은 열반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참선 잘 하거라' 였을 만큼 참선수행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던 분이다. 그런 스님이 왜 승속과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을 시키셨을까?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방장으로 있으며 산문 밖을 나서지 않은 채 도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였다. 날마다 사람들이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전국방방곡곡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었다. 스님이 주석하던 백련암 법당에 들어가 3000배를 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백련암은 항상 절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중에는 절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절을 증축했을 정도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백련암은 전국에서 절을 잘하는 고수들이 모이는 집결지처럼 되었고,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성철 스님은 가셨어도 절을 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어느 해 여름, 성철 스님의 명으로 대학생들 몇백 명이 해인사 법당에서 절을 했다. 한여름인지라 입은 옷은 땀으로 달라붙어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해인사에 있던 법정 스님이 한 말씀 했다. 예배란 간절함이 우러나와 공손하고 진중해야 하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법정 스님은 나아가 진정한 참회와 예배가 지닌 뜻을 되새기는 글을 '굴신운동' 이라는 제목으로 불교신문에 실었다. 성철 스님은 이 글을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말씀이 없었는데, 혈기 넘치는 해인사 젊은 스님들이 반발, 법정 스님이 바깥나들이를 간 사이에 스님 방에 있던 물건들을 치워 버렸다. 이로 인해 법정 스님은 두말없이 해인사를 떠났다고 한다. 1968년도의 일이다.

이뿐만 아니다.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3000배를 해야 만나 준다는 말인가?' 하는 세간의 오해도 많이 받았다. 일련의 이런 일들을 볼 때 절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겐 3000배가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행위로 비칠 수도 있겠다 싶다. 어쨌든 세간의 이런 시선을 의식했는지 성철 스님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흔히 3000배를 하라고 하면 나를 보기 위해 하라는 줄로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승려라면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어느 점으로 보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행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남을 이익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합니다.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오지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부처님께 절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3000배 기도를 시키는 것인데 그냥 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절해라, 나를 위해서 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000배 절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가 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자연히 스스로 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남을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잘 안되어도 나중에는 남을 위해 절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회장 한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성철 스님을 찾아왔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누구든 3000배를 해야 만나주는 규칙을 깨고 스님을 친견하고 이런저런 덕담을 듣고 일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신발을 신고 댓돌을 내려서 설 때 스님이 일갈했다.

"집에 그냥들 가지 마시고 해인사 법당에 가서 3000배들을 하고 가시오!"

그리고 마침 백련암에 다니러 와 있던 사미니 스님에게 명했다.

"밖에서 저 사람들이 절을 잘 하는가 지켜 보거라. 소변을 못 참겠다고 하거든 깡통을 넣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이 끝날 때까지는 법당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날 스님의 명을 받아 밤새 법당 밖에서 그들을 지키면서 해인사 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았던 어린 사미니는 지금 은해사 백흥암 선원장으로 계신 영운 스님이다. 영운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날 생전 해보지도 않은 절을, 그것도 3000배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마치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법당을 나왔던 그 사람들은 가족 모두를 한마음이 되게 했던 그 3000배를 계기로 성철 스님을 오래 찾아뵈면서 계속 절을 했다고 한다.

절을 해본 사람이면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중에 변화가 온다' 는 말을 금세 이해할 것이다. 참, 묘하게도 절을 오래 하다보면 가슴 한 복판에 넓은 호수 하나가 만들어진다.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원망과 회한, 기대와 미움, 나중엔 기쁨까지도 다 그 호수에 담겨 사라진다. 무심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무심이 되었을 때 업장이 사라지고 욕심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 싶다. 그리고 절을 하다보면 '감사합니다' 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야말로 지나가는 바람에게도 감사한 절을 하게 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로 다가오는데, 이렇듯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이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감사한 마음이 부처의 자리라는 말이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감사로 가득 채워질 때 마음이 열리고 넓어지면서 비로소 남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친견 앞서 3천배 시킨 스님
"나 찾지 말고 부처 찾으시오"
참회 후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

일체 중생을 위해 매일 참회의 절을 하라

성철 스님이 절을 시킨 또 하나의 이유는 '참회' 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업장을 참회하여 복과 지혜를 더해가는 것으로 절을 하게 한 것이다. 성철 스님이 신도들에게 3000배를 시키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안정사 천제굴에 계실 때였다. 수많은 불자들이 소문난 도인을 찾아 천제굴로 왔을 때 불자들에게 가르침을 처음 베푼 곳이다. 전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이 찾아와 불공을 드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 물었을 때 스님은 불공의 참의미를 이렇게 가르쳤다.

"복을 달라는 것으로 불공을 하지 말라.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불공을 하라.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고 모든 대상을 부처님으로 부모로 스승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불공이다."

스님은 참회를 하기 위한 수행으로 절만한 수행이 없다고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08배 하기를 권했다. 성철 스님 자신도 입적하기 전까지 매일 새벽에 108배를 했다. 성철 스님은 발심해서 막, 출가한 스님들에게도 이렇게 일렀다.

"일체 중생의 죄과는 곧 자기 죄과이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매일 108배 참회를 여섯 번 하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행한다. 그리고 건강과 기타 수도에 지장이 생길 때는 모두 자기 업이니 일일 3000배를 일주일 이상씩 특별 기도를 한다. 또한 자기의 과오만 반성하여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절을 해보면 기도는 참회로부터 시작해서 감사로 이어져 발원으로 끝난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 몸과 마음을 아래로 하다 보면 저절로 참회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 그토록 원망하고 불만이던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참회로 이어지고 참회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닿는 모든 대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무명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다시 그 자리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의 수행이 필요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 출가한지 얼마 안 되는 사미니가 성철 스님에게 물었다.

"큰스님, 왜 참회기도를 해야 합니까?"

"사람은 살면서 항시 업을 짓기 때문에 참회의 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고 나면 다시 업을 짓는데 절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을이면 날마다 낙엽으로 마당이 가득하지 않느냐? 내일 낙엽이 떨어질 터이지만 매일 쓸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깨끗해지는 날이 오지 않겠느냐? 마당을 매일 쓰는 것과 쓸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다. 그처럼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를 해서 업을 정화시켜야 한다. 죄업이 멸하면 그 자리에서 복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참회하는 것으로 복을 구하고 무량겁토록 참회해야 한다."

우리가 어찌 이번 한 생만을 살아온 생명이겠는가. 그야말로 무량겁토록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본래 깨끗한 마음 바탕을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오염시켰을 것인가. 그래서 성철 스님의 남을 위해 절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 매일 참회의 절을 하란 말씀은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명법문이 아닐까 싶다.

성철 스님이 머물면서 3000배를 하게 독려했던 백련암을 떠올리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 오래 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새 3000배를 하고 나오던 나이 지긋한 한 여성분에게 방송 기자가 물었다.

"3000배를 하면 뭐가 좋지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한 얼굴로 그분이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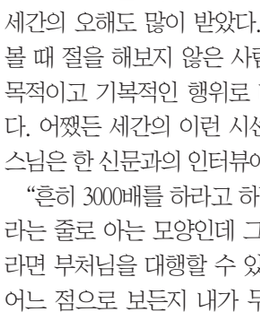
"말로 할 수 있나요? 해보면 알아요!"

나는 아직 저 물음에 이보다 더 명쾌한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

-108배에 대한 글을 연재하는 동안 독자들에게서 108배를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다음 회엔 이 질문에 대해 글을 쓸까 한다.

전국 어디든 지극하고 여법하게 깊은 신심으로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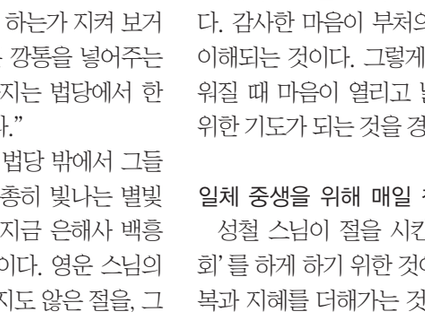
바라밀 예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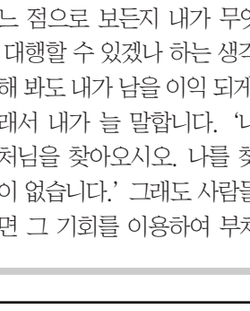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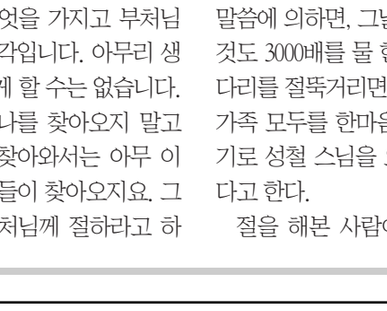
바라밀예술단은 큰스님들의 행사를 더욱 장엄하고 여법하게 봉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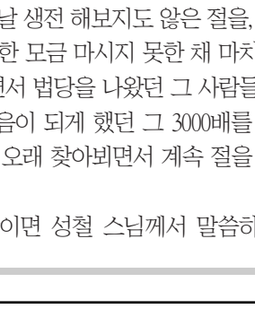
- 바라밀예술단 단장 지우 스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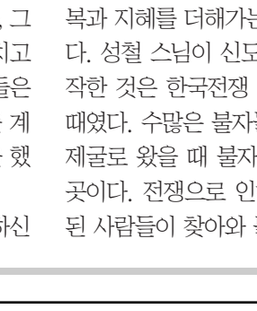
회심곡, 영산대재, 산사음악회, 예수재, 천도재, 위령재 및 봉안위패, 점안식 등 각종 불교행사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천상무춤, 북춤, 살풀이춤, 극락무춤, 지전무 등 모든 의식











행사문의 010-3597-1515 유튜브에서 '지우스님' 을 검색하세요.

농협 010-3597-1515-09 (예금주 : 반야정사)

사찰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전선플러그 승하강장치 특허기술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입지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어느 날의 短想

사자암에는 전설에서나 나올법한 우렁각시가 살고 있다. 우렁각시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도움의 일을 해주는 어떤 존재를 이르는 말'로 되어있다.

그런데 사자암의 우렁각시는 밤사이 마당도 쓸어주고 끼니때마다 밥도 지어주는 부지런한 우렁각시다. 마당을 쓸어주는 우렁각시 이름은 세찬 바람이고 밥을 지어 주는 우렁각시는 쿠쿠 압력밥솥이다.

사자암에는 대중이 많이 모여 사는데 도반이자 스승이요, 착한 이웃들이다. 그들의 이름은 진돗개이자 고양이들이다.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서 햇살을 품에 담으며 꾸벅꾸벅 졸 때에도 곁에서 함께 조는 도반이며 사료를 잔뜩 그릇에 담아주어도 먹이 조절을 보여주는 스승이기 때문이다.

사자암의 숲이며 바위며 고목나무에 이르기까지 숲 사이로 날아다니는 산새며 들꽃에 이르기까지 가끔씩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 남는가를 내게 되물으며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려주고 있다.

참앎·봄 이뤄야 진정한 선지식
오늘의 삶은 또 하나의 기적

인도에 머물 때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을 한 후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는 울림이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 있어도 여럿과 함께 있음이요, 여럿과 함께 하면서도 혼자만의 여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비우고 버리고 덜게 없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홀가분하게 비어 있음의 충만을 즐기고 있다.

꾸미고 덧칠하며 드러냄 없이, 속이고 감추며 모아둠 없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집착 없이 사는 삶이 평화로웠다. 고맙고 감사하며 미안해 얼굴 붉힐 줄 알지만 아닌 것은 끝가지 아닌 것으로 마무리 한다.

따르는 자가 줄어들고 사찰 경제가 땅바닥을 기고 있어도 방편을 앞세운 타협이나 구걸행위 비슷한 목탁 울림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대접받는 불교, 예우 받는 스님에서 서너 걸음 내려와 상대가 누구이던 맞절 문화로 평등성을 키워오지만 기관장들에겐 이유있는 매서운 회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섬이던 오지이던 강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마다하지 않으며, 한 차례이든 열 차례이든 강의비를 받지 않고 개운하게 법보시를 실천한다.

가끔씩 찾아와 법거량하는 구도자들이 부처님처럼 반갑고 끝장 토론장에서 진리의 세계에 대해 대화 나눌 때가 금싸라기처럼 소중하다. 가끔씩 지리산에 흩어져 사는 도반 스님들이 찾아오거나 찾아가 담소 나누는 일이 즐겁고 나들이 떠나는 설렘에 행복하다.

작년에도 지리산의 산신령인 도반 스님 한 분이 떠나갔지만, 떠날 준비로 비에 젖은 흙 담장처럼 스멀스멀 무너져 내리는 도반 스님들의 건강이 짠한 아픔으로 다가 온다. 머지않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훅, 불어 꺼져버리는 호롱불처럼 그저 그렇게 사라지면 좋으련만 향봉의 건강에도 이곳저곳에서 이상음이 들려오고 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생명의 마감일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극히 당연한 징조들이 가슴을 싸하게 짓누르며 두어 방울의 눈물로 남는다.

글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빈 손, 추억의 줄기뿐이지만 오늘의 삶이 그대로 또 하나의 기적이자 전설처럼 느껴진다. 인도와 네팔, 티베트에서 노숙자처럼 생활하며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 차례 부활하는 일도 겪게 되지만 인도에서의 아름다운 체험, 깨달음의 기쁨은 향봉의 삶에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빛의 충만을 의미한다.

참 앎(知)과 참 봄(見)을 이루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지식이며 누가 무엇을 물어도 막힘과 걸림이 없는,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는 것이다. 속이지도 속지도 않는 참사람이 되는 것이다.

참사람은 모으고 챙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 무엇을 물어도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이름 석자 알리는 일에 집착하고 신도와 재산을 모으려하며 명예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는 조작된 선지식이요, 업덩이 중생일 따름이다.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속물근성에서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자, 창밖으로 싸락눈이 내리고 있다. 머잖아 꽃피고 새가 노래하는 따스한 봄이 찾아오겠지만 앞으로 몇 차례나 싸락눈을 지켜볼지, 봄 마중의 꽃 나들이를 떠나게 될지 해질녘의 향봉에게 되묻고 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길고 짧은 것만 다를 뿐인데.

천하만물이 불법 설하니, 곧 무정설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동산 양개(洞山良价:807~869) 선사는 중국 선종 5종 가운데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종조(宗祖)다. 육조의 제자 청원 행사(靑原行思)의 5대손이다.

선사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형과 살다 남방으로 떠나 글방에 들어가 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어느 날 불교 교리에 심취해 유학을 버리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선사는 이 때 어머니에게 올리는 사친서(辭親書)라는 편지를 남기고 출가한 스님으로 유명하며 그 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선사는 오설산(五洩山) 영묵(靈默) 선사의 문하로 가서 스님이 되었다. 21세에 숭산(嵩山)에서 비구계를 받고 제방을 편력하다가 남전 보원(南泉普願)선사를 참방하여 종지를 깊이 깨달은 뒤 위산 영우(潙山靈祐) 선사를 찾아갔다.

그때 위산 선사가 동산 선사에게 남양 혜충(南陽慧忠) 스님이 제기한 '무정설법(無情說法)'이라는 공안을 간택해 주어 참구하게 하였다. '무정설법'이란 정식이 없는 산천초목과 같은 무정이 법을 설한다는 말로 의식과 분별이 없는 존재들도 각기의 본분에 머무르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뜻을 가진 말이다. 지혜를 갖춘 사람은 그것을 보거나 들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다.

〈조당집(祖堂集)〉 '혜충장' 에는 이런 대화가 있다. 남방에서 온 선객이 혜충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담장과 기와조각 같은 무정물이 모두 옛 부처의 마음이다."

"경전의 말과 크게 어긋납니다. 〈열반경〉에는 '담장이나 기와조각 같은 무정물을 여의었기 때문에 불성이라 했습니다."

"그대가 만약 무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식(識)일 뿐이다' 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화엄경〉에 '삼계에 존재하는 법은 모두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무정이 삼계 안에 있는가? 삼계 밖에 있는가? 그것이 마음인가? 마음이 아닌가? 무정이 마음이 아니라면 경전에서 삼계가 오직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무정이 마음이라면 무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겠는가? 그대가 경전의 뜻을 어긴 것이지 내가 어긴 것이 아니다."

"무정에게 마음이 있다면 법을 설할 줄 압니까?"

"그들은 치열하게 설하니 늘 설하고 변함없이 설하고 쉬지 않고 설한다."

처음 '무정설법'을 참구하던 동산 선사는 별 소득이 없자 위산 선사의 지시에 따라 운암담성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무정의 설법을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무정이 듣는다."

"스님께서도 듣습니까?"

"내가 만약 듣는다면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저는 어째서 듣지 못합니까?"

운암 스님이 불자를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들었는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설법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거늘 어찌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무정의 설법은 어느 경전에 설해져 있습니까?"

"〈아미타경〉에 '흐르는 물과 새들과 수목이 모두 염불하고 법을 외운다 하지 않았던가?"

이 말에 동산 선사가 깨달은 것이 있어 게송을 지어 말했다.

"대단히 기이하고 대단히 기이하도다. 무정의 설법은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만약 귀로 들으려 하면 끝내 알아차리기 어렵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으리라."(也大奇 也大奇 無情說法不思議 若將耳聽終難會 眼處聞時方可知)

이렇게 읊고는 운암 스님을 떠나 돌아오다 강을 건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다시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선사는 뒤에 운암 스님의 법을 잇고 오위군신설(五位君臣說)을 제창하여 종풍을 크게 떨쳤다. 입적을 할 때 제자에게 삭발을 해 달라 하고 가사를 입히게 한 다음 종을 치게 하여 대중에 작별을 고했다. 선사는 7일을 연기하여 죽을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을 위로하는 우치재(愚癡齋)를 지내고 8일째 되던 날 목욕을 하고 단정히 앉아 입적하였다고 한다.

세상 낱낱의 존재는 마음작용 산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⑫ 심성의 작용

생들이 머물고 있는 삼계는 각자 근기에 따른 업보의 세계이고, 분별망념의 세계이므로 허깨비 같은 세계입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은 허깨비를 위한 법문이기 때문에 팔만사천 방편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진리의 법을 말한 바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말한다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름이 설법이기 때문이다"고 하셨습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이고, '이름이 설법이다'는 없는 것도 아닌 묘유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금강(金剛)은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금속물질 중에 가장 강한 면과 희소성에 그 가치가 있겠지만, 다이아몬드 본체에는 아무런 색깔을 띄고 있지 않아서, 파란색의 대상을 만나면 파랗게 되고 노란색의 대상을 만나면 노랗게 되어, 자신의 고정된 색을 띄고 있는 다른 보석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 만으로는 마음일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대상과 관계 지워질 때에만 마음일 수 있으며, 대상 또한 그 자체 만으로는 대상일 수 없으며 대상과 관계 지워질 때에만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에서도 '대상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금강을 마니주(摩尼珠)라고 하며, 선문(禪門)에서는 심성(心性)의 비유어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요 중에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의 노래가 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여름엔 파랄 거여요
산도 들도 나무도 파란 잎으로
파랗게 파랗게 덮인 속에서
파아란 하늘보고 자라니까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얄 거여요
산도 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우리들의 눈과 그 눈에 가득히 비친 파란빛과 하얀빛, 산과 들, 나무와 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르지 않아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있는 것이 아닌 진공이 마음입니다. 파란빛과 하얀빛, 산과 들, 나무와 집이 밝고 뚜렷하여 없는 것도 아닌 묘한 작용이 마음입니다.

반야(般若)는, 공(空) 또는 지혜를 이르며 지식과 구별됩니다. 지혜는 우주와 인생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고, 지식은 반복된 습관으로 있음과 없음과 같은 모든 분별을 구하는 망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세하게 아는 어리석음과 극히 미세하게 아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끊으신 것입니다.

마음이 본체이고 지혜는 작용이며, 우주는 본체이고 우주의 일체 존재는 작용이며, 낱낱의 존재가 우주이고 우주가 낱낱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체가 작용이고 작용이 본체로, 체와 용이 둘이 아니고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을 구하는 지식은 체와 용을 둘로 나누고, 낱낱의 존재와 우주가 서로 다르다고 하며, 우주와 티끌을 둘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진실과 작용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다만 부작용을 일으킨 우리들이 그 부작용의 과보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2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부산열린불교아카데미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및 신심명 · 증도가 개강 안내

선지식 초청, 특별법회

4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 **종범스님** (전, 중앙승가대 총장)

4월 10, 17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일스님** (전, 송광사 율원장)

4월 24일 월요일 저녁 7시 : **도암스님** (전, 송광사 강주 / 현, 통도사 율원 교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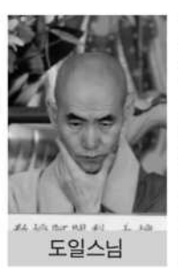
열린불교아카데미 제 4기 〈신심명 · 증도가〉 강설

5월 8일 월요일 저녁 7시 개강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수업)

상임지도법사 : **원순스님** (전. 조계종 교재 편찬위원, 현.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

장소 : **묘광선원** (부산불교실업인회 법당) 문의 : **051-244-0263 / 010-3564-3725**


종범스님


도일스님


도암스님


원순스님

※주차는 묘광선원 건너편 (구, 부산진구청 뒤) 성원주차빌딩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차비는 개인부담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기림사 "學林으로 聖林 이룰 것"

〈학림〉 〈성림〉

성림금강 한문불전 승가대학원 개원법회 봉행

전통교수법 한문불전연구
사자상승 계승·법고창신 기대
발전 기원금 총 7100만원 전달
"교화중생 위한 인재 양성 목적"


기림사는 3월 12일 대적광전에서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경주 기림사(주지 덕민)가 성림금강 한문불전 승가대학원(이하 성림 승가대학원)의 첫 시작을 알렸다. 앞으로 기림사는 성림 승가대학원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 강맥을 전수하고 대강백 덕민 스님의 지도 속에 깊이 있는 한문불전 연구에 앞장선다는 다짐이다.

기림사는 3월 12일 대적광전에서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타종으로 시작된 개원법회는 경과보고,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의 헌향,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의 헌화, 헌다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서 기림사는 성림 승가대학원 개원 목적이 교화중생 불사에 일익을 담당할 인재 양성임을 천명했다. 또한 성림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은 성림 승가대학원의 방향을 설명하고 법고창신(法古創新)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큰 동량으로 성장할 것을 독려했다.

덕민 스님은 "학인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선의 세계도 이해하고 학인들의 세상도 이해가 된다. 우리 문도들도 영원한 학인으로 살아가며 비로자나불의 대광명을 온 우주에 비추고 화엄보살의 실현으로 지구촌에 연꽃 향기 드날려 맑고 향기로운 세상으로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림 승가대학원의 출발을 축하하는 축사와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의 덕담 및 법어, 그리고 발전을 기원하는 기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성타 스님은 "덕민 스님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학문과 덕망을 두루 갖추셨다. 스님께서 부임한 이래 기림사는 매우 활발하고 중흥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오늘 학림 개원이라 생각한다"며 "대승 불교 사상 핵심은 원력과 원력에 따른 실천이다. 오늘 여기 입학하신 스님들께서는 중생을 위한 대원력을 세우고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하 발전 기금은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2,000만원,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1,500만원,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3,000만원,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500만원, 백수활 (주)현대기전 대표가 100만원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배움의 장을 열어 준 제11교구 본사 스님들과 교수 스님들께 학인 스님들은 사은의 예를 담아 꽃을 올렸으며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은 격려의 뜻으로 고려대장경 판본 금강경을 수여했다.

성림 승가대학원은 성림당 월산 조실 스님의 유지를 잇겠다는 원력과 인재육성을 위해 문을 열었다. 2015년 6월 기림사에서 교육도량선포식을 열고 약 20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대학원 정식인가를 취득했다. 2017년 제1기로 7명의 비구스님이 입학했으며 앞으로 스님들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을 이수한다.

전문과정은 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전통 교수법에 따라 금강경 · 야보송 · 종경록 등 한문불전 강의와 교수사 스님의 사서강의, 사산비명강의 등 내 외전 강의, 그리고 국내 석학의 초빙 특강을 통해 한문원전의 내 외전을 다룰 예정이다. 3년의 연구과정에서는 화엄경, 선문염송 등을 연찬한다.

한편 개원법회에는 원장 덕민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진각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학감 운암 스님, 쌍계사 강주 대각 스님, 통도사 총무 도문 스님, 해인사 율원장 서봉 스님, 안국사 주지 석산 스님 등 사부대중 4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범어사, 국민 대통합 특별 기도법회 회향

3월 11~13일까지 3일간 기도정진 마쳐



국가 안정을 위한 기도로 화합을 발원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가 3월 11~13일 대웅전에서 '국가안녕, 국민통합, 국론통일을 위한 3일 특별기도'를 회향했다.〈사진〉 특별기도는 박근혜 前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받은 후 정치 이념과 분쟁을 넘어 화평을 기원하고 나라의 안정을 발원하는 시간으로 열렸다.

기도에는 주지 경선 스님과 총무국장 원타 스님을 비롯해 국장 스님들과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회향을 맞아 주지 경선 스님은 "판시는 됐지만 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마음이다. 극한으로 치우쳐 서로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고 기도하는 한편, 고려대장경 등을 방편 삼아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모았다. 이번 기도도 함께 마음을 담아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찾는 계기가 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혜원정사, 어린이 유발상좌 인연맺기

수계식가족신행 어린이 불자 양성 주춧돌



열반절을 맞아 어린이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시간이 열렸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3월 12일 대웅전에서 '어린이 유발상좌 인연맺기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혜원정사는 매년 열반재일을 맞아 영유아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허 스님은 마정수기 의식으로 참여한 아이들을 격려했다. 마정수기는 계를 수지하는 법석으로 '부처님께서 미래에 부처가 될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졌다'는 〈본생담〉의 경전내용에 근거한 의식이다.

올해에는 5명의 어린이가 수계를 받았으며 가족 등 30여명이 동참했다.

원허 스님은 "수계 법회는 어린이들에게 인생의 멘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작했다. 아이들이 불제자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니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대원불교조계종, 금강계단·보살계 수계법회



(사)대원불교조계종(종정 청봉)은 3월 11일 총본산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동)에서 증명법사 종정 정산당 청봉 스님을 비롯한 갈마아사리 월오 스님, 교수아사리 원명 스님 등이 증명한 가운데 제5차 금강계단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타종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수계의궤에 따라 거향찬, 청성, 청사, 개도참회, 장궤, 연비의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서 대종사 8명, 종사 4명, 대덕 4명, 보살계 35명이 수지했다.

이날 종정 청봉 스님은 "오늘날 금강계단을 수여한 스님께서는 더욱더 중생제도로서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우리의 이상인 정토구현의 대승보살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포교를 펼쳐 종단 발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면서,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에게는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경전구를 강조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절언니 절오빠, 동생들 포교 책임진다!

진홍사, 3월 11일 반야청소년법회 창립


부산 진흥사 반야청소년법회 및 바라밀어린이법회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다.

부산 진흥사(주지 정법)의 절 언니 절오빠들이 청소년 포교를 위해 직접 나선다.

진흥사는 3월 11일 대광명전에서 '반야청소년법회 창립식'과 '바라밀어린이법회 입학법회'를 봉행했다.

창립법회 및 입학식은 어린이들이 직접 육법공양에 동참해 부처님께 향, 꽃, 미 등을 올렸으며 회장 임명장 수여 및 신입회원 환영, 축하 케익 절단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문을 맡은 진흥사 장주 스님은 장주 스님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연이라 생각한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을 하고 완전한 전환점을 얻기도 한다"며 "또한 사찰에서 만나는 도반과의 우정은 정말 소중하다. 앞으로 더욱 자주 사찰을 찾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야청소년법회 창립에는 진흥사 청년모임 '청춘 그대 마음의 붓다'(이하 청년회)의 노력이 컸다. 올해 어린이 법회를 졸업한 학생이 복지관 수업을 듣기 위해 더 이상 사찰에 나오지 않겠다는 말에 급히 청소년법회를 창립해야겠다며 의지를 모은 것이 시작점이 됐다.

배아영 청년회장은 "올해 졸업생이 1명이었는데 그 학생이 복지관 수업을 수강 신청했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사찰에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1명도 부처님과의 인연에서 멀어지면 안 된단 걱정이 앞섰다"며 "내년에는 15명의 어린이들이 졸업을 한다.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부처님과 인연을 이어가도록 돕고, 청년회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란다. 그러면 젊은 불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청년회 회원들은 매주 조를 나눠 청소년 및 어린이 법회에 동참하고 멘토 역할을 담당 할 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조력한다는 의지다.

배아영 회장은 "저희 청년들이 대부분 30대 직장인들이다. 매주 나와 청소년과 어린이 법회를 돕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는데 흔쾌히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해 즐거움과 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51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출 강 반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 신 반 : 지방 거주자를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함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계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3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전북 영산작법보존회 선대조사 다례

대규모 영산재 · 군경묘지 합동위령재 계획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 동고사 주지)가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는 3월 13일 전주시 중노송동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전수관 보문사 법당에서 선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신중작법, 상주권공, 다례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의 집전 아래 전통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례재는 회장 혜정 스님, 부회장 영산 스님, 교육원장 지산 스님, 총무 정수 스님을 비롯한 영산작법보존회 회원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해 범패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진감국사 혜소 스님을 비롯한 역대조사 38위의 가르침과 의미를 되새겼다.

혜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래전 봉서사 부도전에서 다례재를 모신 이후 한동안 중단됐던 선대조사 다례재를 다시 모실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은 여법한 공간이 없었으나 이제 전수관이 건립된 만큼 정기적인 다례재를 봉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영산작법본존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정기적인 교육과 봉사활동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올해 안에 대규모 영산재와 군경묘지 합동위령재를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초군장교 긍정적인 삶 만들어가길"

장성 상무대 무각사, 초군장교 환영법회 봉행



장성 상무대 무각사(주지법사 해징)는 3월 12일 대웅전에서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조계종 군종교구 총무부장 지선 스님, 만경사 주지 증현 스님을 비롯해 기계화 학교장 고광세 소장과 초임장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 초군장교 환영대법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환영법회에서는 5개 병과인 보병, 포병, 기갑, 화학, 공병에 임관한 소위 장교 중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하고, 위문품이 전달됐다.

연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세상에는 크게 3가지의 종교가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그 운명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 결정지어지는 것이며, 마지막은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며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임 장교들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외국인학생 템플스테이 열어

호남대 신입 유학생 대상으로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토진)는 3월 12~13일 호남대 외국인 유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백양사에서 1박2일 동안 입학오리엔테이션을 겸한 템플스테이를 체험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유학생들이 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학생활을 보다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학생들은 사찰예절 교육과 저녁공양, 타종체험, 탑돌이, 아침예불, 명상, 다도, 단주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사찰문화를 체험하고, 담양 죽녹원 등 인근 문화유적 등을 답사했다.

인항 유학생학생회 회장은 "유학생활 중에 경험해 본 여러 한국 전통문화 체험 중 이번 백양사 템플스테이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초기불교 정진, 시대 밝힐 등불되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졸업 · 입학식



선운사 원로 · 강사 스님들과 학인스님들이 졸업 · 입학식을 마친 뒤 법당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초기불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선운사 초기불교불학승가대학원(학장 환성)이 3월 14일 제5회 졸업식과 제7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3명의 스님이 2년간의 전문과정을 마쳤으며, 5명의 스님이 새로 입학했다. 졸업생 중 2명의 스님은 3년 과정의 연구과정에 입학해 계속 학업을 이어간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에는 학장 환성 스님, 강주 재연 스님, 성륜 스님 등 대학원 교수사 스님들과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현 스님, 범여 스님, 고창사회복지관장 대원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 등 50여 명의 스님을 비롯해 선운사합창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 학인 스님들의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졸업식에서는 대일 스님이 교육원장상을, 보적 스님이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승가대학장 환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며 "2년간의 전문과정과 3년간의 연구과정을 마친 학인스님들은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큰 재목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로 재곤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학업에 정진해준 학인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끊임없는 정진과 화합으로 큰 성취를 이루기 바란다"고 각각 졸업과 입학을 축하했다.

졸업생 · 입학생 총 8명

대일 · 보적 스님 성적우수

"불교발전 초석 거듭나길"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총무 심학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초기불교사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충실하게 담겨 있다"며 "학인스님들은 초기불교의 교학과 체계적인 수행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행과 정진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로 입학한 신입학인스님들은 부처님전에 고불문 올리며 "수학 중 장애를 만날 때마다 대중을 생각하며 청규를 지킬 것"이라며 "우리들의 첫 걸음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다짐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익산국악원 김달 교수의 가야금 연주에 이어 빨리어 삼귀오계 봉독으로 시작됐다. 이날 졸업식과 입학식은 졸업학인스님의 연구성과물 헌정, 사은3배, 학위증 수여, 격려사, 축사, 축하공연, 고불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은 2년의 전문과정과 3년의 연구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불교사상과 역사, 초기 경전 성립과 구성, 빨리어 경율론, 위빠사나 수행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축율동 우리절에서 배워요"

광주불교聯 율동강습회 각 사찰 방문해 제공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에서 진행된 율동강습회 참가자들이 신명나는 음악에 취해 율동을 즐기고 있다.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기 위한 율동강습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며 불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단장 일명, 신광사 주지)은 지난달부터 광주지역 각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봉축행사 율동강습회'를 진행하고 있다.

율동강습회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서 진행되는 어울림마당에서 전체와 그룹율동을 일반 불교신도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지역 등에는 이미 보편화된 봉축프로그램이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로 2년째 사찰 연희단과 함께 어울림마당에서 펼칠 율동을 직접 방문해 가르치고 있다.

강성록 광주불교연합회 기획팀장은 "봉축율동을 2년 전부터 처음으로 시도했다. 참여하는 스님과 신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봉축행사를 진행하는 기쁨을 느낀다"면서 "광주에서는 각 사찰의 참여 신도들이 연로해 직접 사찰을 방문해 율동강습을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즐겁게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로 참여하는 윤보현 선생을 비롯한 강사진 또한 지역에서 율동과 생활체육을 다년간 지도하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로 구성됐다.

법회 이후 율동강습회에 참여한 관음사 이미선 신도는 "지난해 처음 율동을 배울 때는 낯설고 생소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율동과 함께 봉축행사에 참여하니 예전과 달리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오는 4월까지 총 50여개 사찰을 찾아 율동강습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 수원 스님 부안 해경 경승 위촉

부안해경서(서장 조성철)는 3월 8일 서장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주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소사 수원 스님 신규 경승 위촉식을 가졌다.

내소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 중인 수원 스님은 "부안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안해경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올바른 정서와 인격 수양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하고 전 직원 및 의경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수원 스님의 임기는 3년으로 해경직원과 경찰대원의 안전한 복무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내소사는 앞으로 장기간 바다 위 선박에서 생활해야하는 부안해경대원들의 심신안정과 종교활동을 돕기 위해 정기법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내소사는 부안의 공군 호국 의상암 법당과 육군 부안 1대대 법당에서도 포교활동과 정기적인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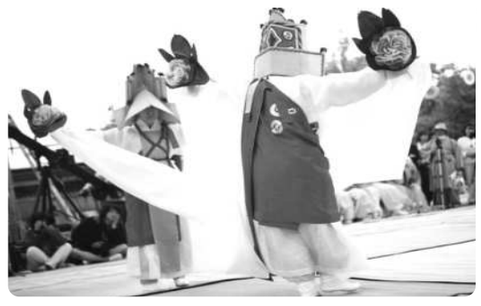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제 11 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7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 ■ 예 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일시 : 2017년 3월 中
■ 수업시간 : 초급과정-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 TEL 054) 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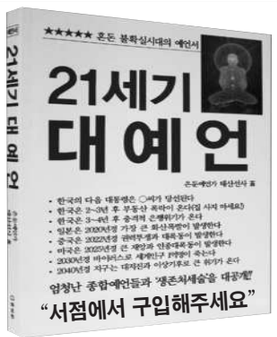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정신질환 상담
우울증, 정신분열, 정신이상, 빙의, 환청, 환시, 간질발작, 정신병원약을 복용하신 분
(상담 및 개인지도)
사주학, 성명학, 빙의퇴마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 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구병시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척추교정
비법전수
누구든지 가능
하루교육완성
출장가능
사찰경제에 큰 도움
010-3055-900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비법+명리+조상풀이법
포교당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 / 철학관 개업하실 분 / 무속제자, 신선생 / 무한 책임지도 / 사주풀이 전화 상담 중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타로&백초귀장술
– 진로 적성 성격 질병 궁합 합격 승진 등 사주보다정확한심리상담가능
– 단기간 배워 상담가능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원 개원하실 분
010-8246-3253
책임개인지도

양평 암요양원 건강힐링캠프
공기 맑은 산, 황토집에서 건강을 / 체질음식, 천연조미료, 유기농, 죽염식단으로 원장님 수시무료 건강상담, 체질감별.
네이버에서 양평 암요양원을 검색
010-9237-8599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빙의.퇴마.전생체험 수강생 모집 (개인지도)
3개월 과정
교재는 무상 지급함
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1시~5시까지
세종시 소정면 운당 (대승암)
010-5269-4168

운전하며 사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1종 대형면허, 65세,
사찰경력 3년
010-6476-602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한분,
비구니스님 한분)
(경북 성주)
054-931-370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시 복정동)
010-5382-8261

스님이 안 계신 절 구합니다
무보시로 정성껏 도와드리고 불사를 이루겠습니다.
(60대 비구승)
010-4882-3838

신심있는 50~60대 처사님 모십니다
(평택 약천사)
010-7100-80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동림사)
055-337-000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10-3797-006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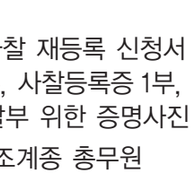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사찰내외 유무선 마이크 설치전문
일반적으로 중형교회의 경우 5000만원 내외 정도의 음향설비를 합니다. 그러나 대전 한성음향은 노래방기기설치 21년차로 특허도 있고 간략하고도 기성복이 아닌 맞춤옷같은 방법으로 대응전 음향설비를 평균 200만원대 소형은 100만원대로 교회음향에 준하는 설비를 해 냅니다. 예불과 설법과 천도가 쉽게 할수 있게 설치해 드립니다. 설치된 곳은 강원 인제읍 무애암, 충북 보은읍 만선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대국사, 경북경산 압량면 수안사, 경남창원 진해구 청룡사 등입니다. 문의 바랍니다.
특허등록업소 한성음향 (대전,전국 출장가능)
010-4440-8687

기 문 강 의 안 내
기문으로 보는 사주는 1세–90세까지 사주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사주학으로써, 사업자와 공직자 구분이 확실하며 학업생(학업진로 선택), 병리(병방론), 부부애로 등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풀이를 할 수 있는 기문학입니다.
(스님 직접강의 합니다)
강의날짜 : 4월 첫째주 화요일 / 강의시간 : 오후 2시부터 매주 화요일 강의
010-3544-9777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대한불교삼계조계종
승려 분한신고 및 사찰 재등록 신청 공고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종단 종도 각 사암 대덕큰스님 건강과 불사원만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대한불교삼계조계종 종단 교세 확장을 위한 총무원 이전으로 인한 종단 행정의 재정비와 본 종단의 종도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종단스님 사찰 재등록 누락되어 연말 정산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5일 ~ 2017년 4월 25일까지
◆ 구비서류 :
본 종단 승려분한 신고 및 사찰 재등록 신청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3개월이내) 1부, 사찰등록증 1부,
주지 이력서 1부, 승려증 재발부 위한 증명사진 3매
◆ 접 수 처 : (사)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32번길 28 (팔용동)
◆ 문 의 : 055)263–0774 총무원 총무
010–8875–7782 / 팩스 055)263–0775
(사)대한불교삼계조계종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무속 단계 무료, 심천 유료)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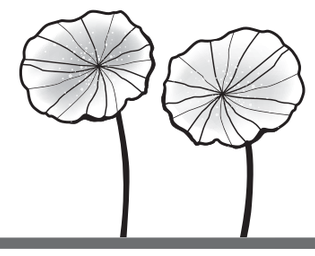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물거품 같은 이 몸은 다할 날이
있지만 진실한 행동은 헛되지 않다.

- 선가귀감 -



서울 & 경기 사찰 / 포교원 중개 전문

- 서울지역 무료 출장상담 및 무료 전국신문광고 서비스 제공
-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전문적 / 중점적 중개
- 심층상담을 통한 고객 만족 매칭서비스 제공
- 공인중개사로서의 정확한 책임 신뢰 중개
- 서울&경기 지역 매물 접수처(H.P 010-3426-9393, 카카오톡: hyeonjong01)

서울.경기 사찰 & 포교원 양도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 44 101호 / www.010-3426-9393.com
010-3426-9393 / 02-449-0284

원주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법당. 목조 요사채. 공양간 ● 산신각. 토지 700㎡
- 뒷편 이산 사찰. 교통편리. 위치 좋음. 주차장 있음
- 양도가액 : 6억원 (융자 2억 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 (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 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북한산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60평 ◎ 면적 : 55평
◎ 요사 : 30평 ◎ 법당 : 25평
◎ 무허가,사용료 있음 ◎ 요사 : 30평
◎ 양도가 : 5천 ◎ 양도가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내 돗대산 기도사찰
- 토지 : 270여평, 종각, 요사채 30평
- 법당 23평,주지실, 산신각, 용왕당
  ※ 국제의료관광특구지정
- 사찰주변 1,500세대 아파트
- 최근 2,000세대 아파트 추가분양
- 양도 : 10억 8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사찰(급)안내

- 충주 부근 목조 사찰 양도
- 토지2,500㎡,목조법당,황토요사,목조산신각등
- 면소재지. 50년된 안정된 사찰
- 위치 좋음. 조용한 사찰
- 가액 : 4억 4천만원(융자 2억포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사오분거리
- 부득이한 사정으로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 법당20평,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10개, 공양간, 창고, 외부 화장실 등등 대형주사장 등
- 대출 7,500안고 2억 3천 5백원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1221-1번지
- 종교부지 680평 법당 35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삼존불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십만원

010-4876-1042

성진스님 직

서울시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시 잠실 인근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3층 134㎡ (약 40평)
- 방1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5000만, 월 150만 시설비 1500만원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75
- 대 266평, 법당 21평, 요사채 22평(방 3, 화 2)
- 종교법인등록, 집기 및 시설 양도
- 주차장 완비, 남향(탁 트인 전망)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918-7937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 1,500만, 월 80만 시설비 절충
- 스님 급한 관계로 급 양도
- 지장기도도량

010-3112-048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대지 : 45평 건평 : 92평
- 4층 건물
- 가액 : 5억 5천만원

010-5931-107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법당 25평(목재)
- 공양간 10평, 요사채 방 2칸
- 대지 157평
- 가액: 2억 9천

010-3508-7710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1억 6천만원

010-7345-16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 총부지 임야 2,000평
- 건물 법당 16평, 요사30평 조립판넬구조
- 가액 : 1억 8,500백 대출 7,500백 안고 1억 1천

010-7188-7723

암자터 및 전원주택 부지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305번지
- 자연경관 수려하고 삼면 소나무 숲
- 지방국도 접해 있음
- 거창 진목리 면사무소에서 3분거리
- 전기 자연 우물 유. 1300평
- 가액 : 9,500만원
- 대출 삼천만 되어 있음

거창 010-4661-7734
부산 010-3868-7435

여항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943 외 5필지 부동산 현황
- 가) 토지 : 654평(종교용지,답,임) 나) 건물 : (대웅전 23평, 신영각 3.4평, 요사 27평 등)
- 가액 : 15억

010-6667-4753
010-3852-25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물 2채
- 대웅전, 산신각, 별도 황토방 2개
- 주방, 욕실, 조경,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버스터미널 도보 5분거리
- 가액 : 3억 8천만원 (융자있음)

010-4561-2149

사찰안내(토굴)

- 대지75평, 요사채, 법당 40평
- 방3,주방,욕실,화장실2,창고1, 총평수 248㎡(75), 대문2
- 현재 8년 운영중 스님이 대불사를 하였음
- 스님, 보살, 법사가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600만원

010-2499-300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 명리 상담 하던곳
- 평수 : 약 50평(화장실 포함)
- 깨끗한 건물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 가능

010-6829-4040

사찰(급)안내

- 위치:경북 영천시 하북면 소재
- 임야 : 종교부지 합 15,000평 (종교부지내에 개인부지 포함) 건물 1동 (약 70평)
- 터는 명당자리(좌백호, 우청룡) 토목공사 진행중
- 가액 : 3억5천만원(몽땅)
- 시세이하 반값

010-8014-7707
010-3832-71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24-17 삼안공원 앞
- 건물 3층 건물중 1층 33평, 도시가스
- 가액 : 보 1,500만원, 월 40만원 시설 집기 일체 800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8352-4111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산 방향 도심속 조용한 사찰
- 대지 : 54평 / 2층 양옥, 전통대문신축, 1층 전체 소나무 원목 리모델링 완료(총 1억 3천투자) 1층 : 법당,공양간, 종무실,창고 등(40평) 2층 : 산식각, 요사채(방3, 거실1, 화장실1, 베란다) 3층 : 옥상(창고 등 증축 가능)
- 참고사항 : 주변 아파트 3개소 5000세대 건축중 / 지하철 공사예정으로 시세상승 예정
- 양도금액 : 3억 5천. 전세가능(1억 7천)
- 관세음보살 등동 불상 4분 후불탱화, 설법단, 칠성단, 신중단 등 냉장고 4대 등 각종 주방비품, 에어컨 4대 등 각종 비품 상호협의하 인계 건강상 사유로 급 양도

010-6731-2365 / 010-6741-25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 평수 : 40평(3층 건물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범종, 108소불,
- 큰방1,넓은공양실, 실내화장실, 냉난방시설,주차장 완비, 최고시설
- 가액: 보증금 500 월38만원 시설비 1,800만원
- 큰절 소임 관계로 급히 싸게 양도함

010-3152-273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1번지
- 법당목재30평 요사채30평
- 종교부지324평 개인땅200평
- 법당목재건물
- 가액 : 3억(전세 9천)

033-434-1365
010-7128-136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 50평, 3층건물 중 2층
- 삼존불 모셔져있고 방 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보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2069-394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시장로 15번길 17 (거제 시장 통닭 골목)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주방, 욕실, 창고 등 (보신후 결정)
- 가액 : 보 5백만원 월 50만원 (실평수 60평) 시설비는 보신후 결정

010-8385-244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대지 : 1,000평
- 전 1,300평, 임야 1,000평
- 법당 35평, 종각, 산신각, 각 3평씩 (육송목재로 지은 법당)
- 주지실 14평, 요사채 60평, 주택 25평
- 화장실, 샤워실, 차고 25평
- 가액 : 13억

011-9324-4461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읍 청도시장부근
- 임법당, 마당있는 시골집(독채)
- 아미타불, 관음, 지장 시설원만, 집기류 주차장 좋음 (대형 버스진입 가능)
- 가액 :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5366-14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칠곡면
- 평수 : 2,730평
- 내용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선방 각 1동
- 요양원, 치유원 등 적합
- 가액 : 6억5천 (절충가능)

010-3855-7136

산밑에 예쁘게 단청이된 사찰안내

- 위치 : 경상남도 창녕
- 토지 : 약 530평
- 건물 : 법당1동, 칠성각1동, 산신각 1동, 요사채, 약 40평 1동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조정가능)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평수 : 약 50평 3층
- 삼존불, 소불
- 방 2, 부엌
- 몸만 오시면 됨 (본사 업무 관계로)
- 가액 : 보 1,000만, 월 70만원 시설비 약간

010-4541-1140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계룡산 제일 전망 좋은 암자
- 평수 : 약 500평
- 요사채, 법당
- ※시,서화,염불,시조, 판소리 교육해 드립니다
- 가액 : 전세 5천만원, 양도가 3억 5천만원

010-4233-3459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 (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 경의선 지하철연결 서울역,용산역
- 시설 : 특급, 법당 2층 30평, 1층 건평 65평, 방 6개, 상담실, 큰거실 2, 화장실 3개,주차시설 완비
- 사주 보고 포교 하실 분 적합, 밀집 아파트 대단지 있음
- 가액 : 전세1억6천만원(월세 가능)
- 난방 심야

010-4012-5500

토굴농막(터)안내

- 위치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율리 442번지
- 평수: 약 445평(남향), 전망좋고 공기 좋음
- 용도 : 농막이나 토굴용 포장도로접 약 200m 아래 민가한집 거주
- 전기시설용이, 해발 450고지
- 가액 : 평당 12만원

010-5454-4850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이산면(영주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 288㎡(신축,조립식주택 49㎡)
- 초지 : 1,038㎡(각종 약초나무 심어있음)
- 조립식 요사채,조립식큰창고,목욕탕,수세식화장실2개
- 넓은주차장 완비(하천부지 일부사용) 주변 수로 완전 정비
- 앞에는 육백년 느티나무 시보호수 뒤로는 백봉산이 있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필요로 하시는 분
- 가액 : 답사 후 절충.꼭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4591-4796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동해 앞바다 (전망좋음)
- 해수관음 도량(7자)
- 대지 23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 몽땅 4억 3천(가격절충)
- 몸만오시면 됩니다 부동산사절

010-7441-2345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 법당: 철재 경량골 23평
- 삼성각: 목조 기와 7평(단청, 30년됨)
- 요사채: 철재스레트 30평,방5개, 주방1개, 화장실(실내1, 실외1)
- 1억 4천만원(융자 4천만원)

010-3875-6305
041-759-0592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읍 청도시장부근
- 임법당, 마당있는 시골집(독채)
- 아미타불, 관음, 지장 시설원만, 집기류 주차장 좋음 (대형 버스진입 가능)
- 가액 :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0-5366-149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역전 앞 광장 3층 건물 중 3층. 역세권
- 실평수 28평, 방1개, 거실1개, 법당, 권리금 없음
- 포교원 철학관 하실분
- 가액: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조정할 수 있음

010-3840-5534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산동
- 대지 120평(종교부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스님친견실, 주지실, 주차장 상수도 및 약수(사시사철)
- 가액 : 4억 5천만원
- 완전 몸만 오시면 됨

010-7273-15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성(요지)
- 신축사찰, 부지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 공양주방, 화장실2, 실외화장실 창고1,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3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가북면 부근
- 토굴마당과 바로 접한 청정 계곡과 돌담
- 해발 800m
- 토굴 3채에 작은방 5개
- 총 800평
- 가액:2억

010-3805-2707

철학 경전 배우면서 사찰을 같이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35세 ~ 41세 차후 사찰을 인도해 드립니다

010-6536-0120

가슴으로 낳은 30여 딸의 어머니

37년간 30여 고아 거둔 中 비구니 창미아오 스님

37년간 30여명 고아의 엄마 노릇을 해온 중국의 한 비구니 스님의 감동적인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월 10일 영국언론 'Daily mail'은 장시(江西) 성 간저우(贛州)시 닝두(B都)현에 위치한 한 사찰의 주지 창미아오(52) 비구니 스님을 소개했다. 'Daily mail'은 "혹자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종교라고 말한다. 이 비구니 스님이 바로 그 증거"라며 37년간 여아 30여명을 손수 길러온 창미아오 스님의 사연을 보도했다.

창미아오 스님이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창미아오 스님은 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다. 스님은 아이를 거둘 사람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사정했지만, 안타까워할 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에 스님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버려진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개미가 몸 전체를 기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걸 어쩌나' 막연했죠. 아기를 보기 위해 구경꾼이 모여들었지만, 그 누구도 선뜻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직접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미아오(52) 비구니 스님


9살 얀룬(사진 왼쪽)과 얀린. 창미아오 스님의 30여 딸들은 서로 놀이 친구 및 공부 선생님이 되 주고 있다. 사진출처=Daily mail

1980년 절 문 밖 고아 발견 후
안타까움에 거두기로 마음먹어
현재 생후 3개월~37세 딸 양육
"더 큰 고아원 짓는 것이 꿈"

스님의 딸은 생후 3개월부터 37세까지 다양하다. 보자기에 폭 감겼던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자라 성인이 된 딸만 벌써 20명 이상이다. 엄마인 창미아오 스님을 따라 불교에 귀의하기로 한 딸도 있으며, 북경대를 포함한 일류대학에 진학한 딸도 있다.

딸들은 절에서 직접 법당을 청소하며 창미아오 스님을 돕고 있다. 또한 큰딸들이 작은딸들의 공부 지도를 도맡아할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놀이 친구가 돼주고 있다. 법당 전면에 놓인 칠판은 창미아오 스님이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끼리 삶을 자비롭게 살아가는 법을 전할 때 주로 애용한다. 하지만 학교에 보내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아이들을 반드시 학교에 보냅니다. 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창미아오 스님의 꿈은 더 큰 고아원을 세워 버려진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스님은 "전 세계 모든 부모가 성별, 혹은 장애가 있단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창미아오 스님은 15세에 출가, 1993년부터 하일리안(Hailian)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의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중국서 일평균 300여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10만 명 아이가 고아로 버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장애 또는 질병 때문이다.

중국 형법은 자녀 유기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알려진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아이 안전 섬(baby safety islands)'란 고아 돌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中 불자들 채식,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

美 아리조나大 연구논문서 밝혀

채식하는 불자들 덕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미국 불교 잡지 '라이언스 로어(Lion's Roar)'는 "중국의 불자들 사이에서 채식주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아리조나 주립대 암페르 교수의 연구 논문 '채식을 하는 중국 불자들에 의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의 정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암페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불자들이 채식을 함으로써 매년 약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혀졌다. 이 수치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2%에 해당한다.

암페르 교수는 논문에서 "현대 사회에서 중국 불교의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함으로써 생기는 환경과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면 더 많은 불자들이 채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리조나 주립대 암페르 교수는 연구논문을 통해 중국 불자들의 도움이 매년 약 4,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라이언스로어

이와 관련 라이언스 로어는 "채식으로 환경보호 효과를 볼 수 있어 이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불자들이 채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채식을 하지만 일부 불교국가에서는 채식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일반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채식을 독려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

특히 고지대에 위치해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는 티베트의 불교 지도자들도 신도들에게 육식을 삼가고 채식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티베트 불교의 한 종파인 카규파의 수장인 카르마파는 채식주의를 장려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마티유 리카르스님도 최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식을 신봉한다고 언급했다.

라이언스 로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기 소비량과 섭취량은 줄인다는 것은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식행위는 불자들이 그들과 지구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새 티베트 불교센터 건립… "화재 예방"

라렁갈 개발로 절반 이상 내쫓긴 스님들 관련 묵묵부답

라렁갈 철거 작업에 돌입하며 티베트 스님들을 내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중국 정부서부에 티베트 불교학교 센터를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언론 '타임즈유니언'은 3월 1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안전성과 공중보건시설을 확보해 티베트 스님들이 안전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불교학교센터를 서부에 짓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해 티베트 설타르 불교 연구소가 있는 라렁갈 계곡을 개발해 50퍼센트 이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5천명 이상의 스님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최대 불교학원인 '라렁갈 불교 아카데미'는 최대 3만7,000여 수행자가 머물렀던 곳이었으나, 중국의 티베트 불교 탄압 정책이 펼쳐지면서 수행자 1만여 명에서 6개월 만에 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사건으로 소속 비구니 스님 릭진돌마가 "순수한 티베트 승려들을 억압하는 중국의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철거작업에 돌입한 라렁갈 계곡 모습. 사진출처=타임즈유니언

해외 감시단은 중국이 라렁갈에 머무는 스님들을 내쫓기 위한 행동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쯔밍 중국 정부 대변인은 "라렁갈의 건물들은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밀집한 건물들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며 "시설 개설의 목적은 거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화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국계 불교 소수 민족 엘렘 빈 수하디(57)와 엘렘 빈 아킴(60)이 아체 주(州) 잔토 시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다.

印尼서 불교도 2명, 투계로 채찍질 당해

지방정부법 개정에 따른 감형 조치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2명의 불교도가 투계(鬪鷄)를 벌여 채찍질을 당했다. 국법에 따르면 징역형이지만, 두 사람은 각각 7번과 9번 채찍질을 당한 후 풀려나는 것으로 감형 받았다.

말레이시아 언론 'The star Online'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불교 소수 민족 엘렘 빈 수하디(57)와 엘렘 빈 아킴(60)이 아체 주(州) 잔토 시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1월 투계(鬪鷄)를 벌인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투계로 내기한 돈 400만 루피(한화 약 7,000만원)와 닭 2마리를 압수당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음주와 도박, 동성애가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슬람교도들만 채찍질로 감형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아체 주는 제도를 전면 개편, 비(非) 이슬람교도들도 국법 또는 시리아법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빈 수하디와 빈 아킴 씨는 징역형 대신 채찍질을 당한 것이다.

두 사람은 채찍질 형 직후 AFP통신과 인터뷰서 "우리는 아체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규제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석가세존 제삼심삼 존자 조사
– 12지신 전생의 인연법 –



석가세존 인연법에 따라 자기띠 월에 맞는 존자님께 기도하면 소원성취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에 행운달마사에서는 제 33조사 존영과 제칠불보살님을 함께 모시어 기도 발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성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제일 마하가섭존자부터 제33대감혜능(육조혜능)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사에 알려지지 않은 서른세분의 존상들은 참으로 상상키 어려운 지혜로움과 신통자재하고 무한 자비로운 상호를 갖추고 계십니다. 이에 33존자님들을 황토액자위에 표현하여 직접뵙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행운달마사 주지 혜용 합장

존자 액자 특징
- 액자는 각 존자님들의 존영을 황토 바탕에 그린것입니다.
- 황토 액자속의 열선이 있어 120℃까지 온도가 올라가 복사열이 발생됩니다.
- 인연법에 따른 자기띠에 맞는 존자님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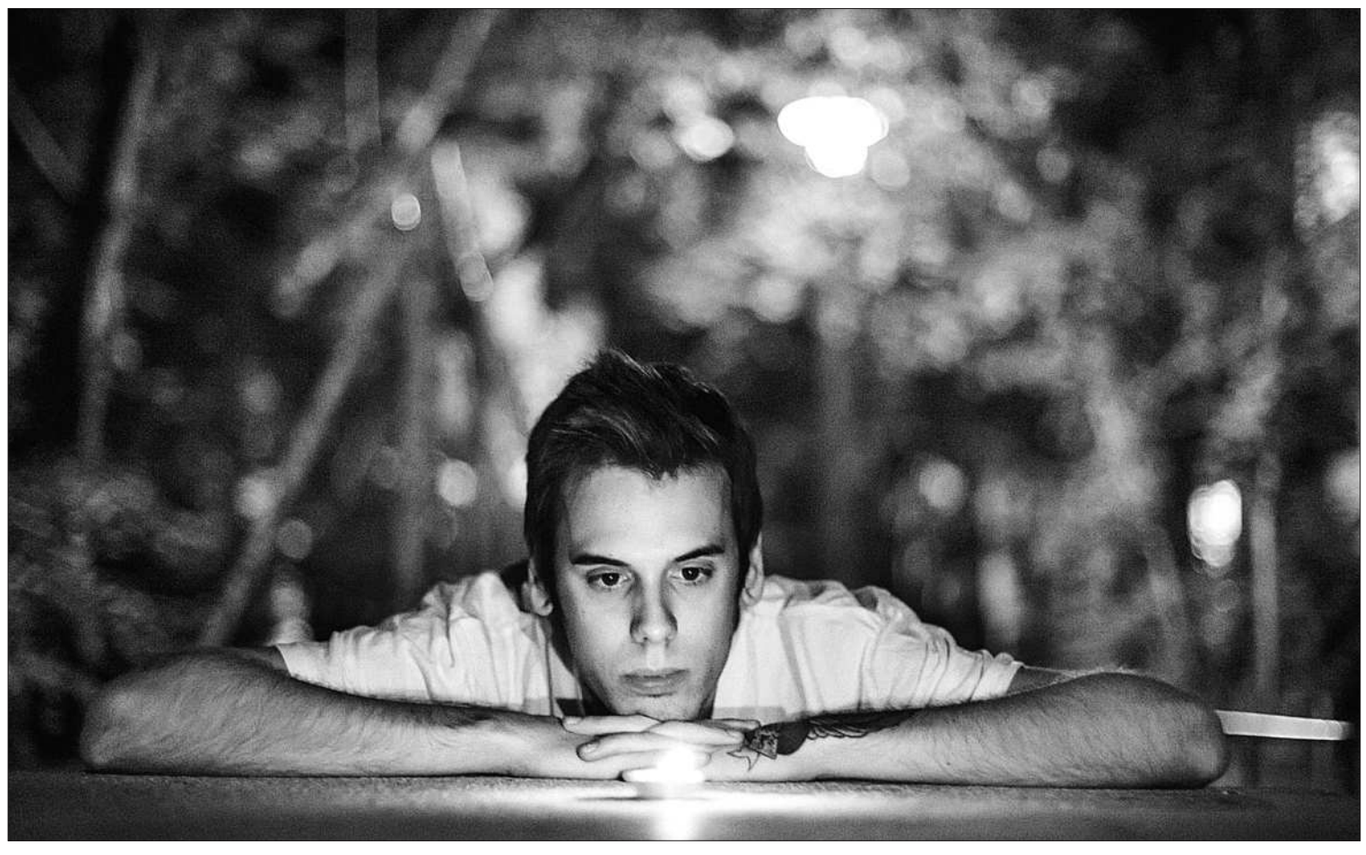
울산 행운달마사 052)242-0108, 010-2003-0658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샐리 켐튼(명상 강사 · 저널리스트)

〈9〉 생각 놓아주기

감정 집착 대신 그 자체를 바라보라



마음, 그냥 그대로 둘 것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기, 수련 대상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생각과 영상이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기 등은 마음공부의 기본이 되는 방법들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주체와 객체를 미묘하게 갈라놓는 이중성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다루는 수련을 하다보면 생각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명상은 침묵을 얻으려는 마음과 저항하는 마음이 다투는 싸움으로 변질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천방지축 날뛰도록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두는 것' 은 마음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을 때나 가능한 전략이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 나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생각에 끝없이 끌려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지어내는 끝없는 생각의 숲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를 받았다. 처음에는 생각, 특히 부정적인 생각, 짜증난 생각, 엉뚱한 생각, 부정한 생각들을 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긍정적인 생각은 물론 부정적인 생각들까지 같은 '질료' (미묘하고 보이지 않고 역동적인 질료)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바라보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난생 처음으로 생각의 내용에 빨려들지 않을 수 있었다.

우리 동네에 사는 다섯 살짜리 꼬마아이는 아침식사로 시리얼을 먹는데, 빨간색 시리얼만 먹지 푸른색은 손도 대지 않는다. 그 아이는 빨간 것이든 푸른 것이든 모두 설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이 지어낸 이야기에 속아서 생각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짜를 보려 들지 않는다.

잠시 간단한 수련을 통해 느껴보자. 두 눈을 감고 마음에서 지나가는 생각을 관찰한다.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해변을 떠올린다. 잠시 동안 그 생각을 지속한다. 이제는 그 생각의 본질에 의식을 모은다. 생각이 마음속에서 만드는 기운의 공간을 살펴본다. 마음챙김 명상에서 '생각하기'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에 '기운' 이나 '생각의 질료' 라는 이름표를 붙여볼 수도 있다. 자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을 하나의 기운으로 인식할 때 그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모든 감정은 다룰 수 있다

카슈미르 성인들이 생각을 춤추는 샥티, 여신의 의식으로 받들었던 것처럼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을 기운(에너지)으로 바라보는 수련은 더욱 흥미진진해진다. 인도신비학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영혼에는 아무런 형상도 인성도 없으면서도 동시에 인격적인 형상을 취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점이다. 옛 성인들이 이 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원론을 거세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헌신적인 마음으로 신성을 이야기했다. 만물을 창조하는 기운인 샥티를 추상적인 힘으로 생각하면 외경심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나 이치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한 기운을 여신으로 생각해보라.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이 갑자기 인간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변한다. 여신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배할 수도 있으며, 사랑할 수도 있다. 마음의 기운을 신성한 '인물'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인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실 그 관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잠시 동안 당신의 마음을 비범하고 강력하며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생각해보자.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는다. 호흡에 의식을 모은다. "호흡은 창조의 여신인 샥티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속으로 말한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을 여신의 의식으로 받든다. 신성한 의식의 기운으로 받는다"라고 속으로 말한다. 이 수련을 적어도 10분 동안 계속한 다음, 마음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 수련은 평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하면 한결 쉽다. 마음속으로 강하게 바라던 생각이나 부정적이거나 밀어내고 싶은 생각일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롭다.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은 엄정하게 심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암암리에 정신적인 부분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지적이고 성숙하고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 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생각도 있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기대치에 비해 성숙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도 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이거나 나쁘다고 여기는 생각은 쫓아내려고 한다.

효과적인 마음챙김 방법은
날뛰는 마음 방관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때 가능
"만물은 인간 참자아 안에"

그러나 불이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도 샥티의 발현이다. 질투, 분노, 미움 등 보기 싫은 감정도 여신이 창조한 것이다. 불안, 두려움, 아픈 기억들도 의식에서 떠오른 파도며 여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생각이든 형상이든 모두 의식의 바다에서 떠오르는 파도요 거품임을 깨달으면 당혹스럽거나 두렵거나 적대적이거나 무서운 생각이 올라와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 의식은 창조력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 으로 수축했다가도 순식간에 사랑으로 확장된다.

생각과 감정을 그 기운 속으로 녹여버리는 법을 알면 일반적인 생각뿐 아니라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심각한 감정도 다룰 줄 알게 된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기만 하면 심각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자신을 덮치기 때문에 명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심각해서 받아들이거나 소화할 수 없는 감정들을 여태껏 안고 산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식이나 참자아나 각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명상 중에 올라오는 심각한 감정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강렬한 감정이 올라오면 이를 알아차려서 광대한 각성으로 품고 의식으로 녹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명상 중에 두렵거나 비탄에 잠길 때, 분노와 질투와 불안 등으로 시달릴 때는 각성이 심각한 감정을 소화하는 기관이자 그 감정을 녹이는 용광로라고 생각하라. 명상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렬한 감정을 각성으로 바라보며 각성으로 녹이는 법' 을 터득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터득하면 명상 중에 일어나는 심각한 감정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다루지 못할 감정은 없다. 극도로 충격적인 감정까지도 말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관건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의 스토리, 즉 감정의 내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먼저 감정 자체와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명상 속에서 이런 과정을 익혀나가면 이를 실생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때가 온다. 분노와 질투와 슬픔 등의 감정이 올라오면, 각성으로 해당 감정을 붙들어서 감정의 기운이 각성의 기운 속으로 녹아들게 할 수 있다.

만물은 의식 안에 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강렬한 감정 너머를 바라보고 생각과 감정의 본질인 에너지(기운)를 살펴보는 수련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명상 중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순수 샥티요, 순수 의식임을 깨달았다. 형상과 생각, 감정 하나하나는 모두 에너지로 되어 있다. 극도로 추하거나 무서운 생각도 의식 자체다.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도 의식이다. 훌륭한 체험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것은 용해되어 궁극적으로 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티베트 탄트라에서 수련한 수행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신에 대해 명상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먼저 신을 시각화한 다음, 자신의 의식 안에 신의 형상을 그린다. 시각화가 끝나면, 마음 밖으로 나와서 신을 보는, 이를테면 신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움직이고 말하는 경지에 이른다.

힘겹고 복잡한 시각화 수련을 성취한 수행자는 실제로 신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의식의 창조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단히 강력한 의지로 대상에 집중하면 그것은 마음 안에서 실체로 나타난다. 마음의 본질이 집중하는 대상에 형상을 불어넣고 그 실체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집중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생각과 느낌, 심상, 감각 등이 종합적으로 경험의 전체를 구성한다. 집중하는 대상이 부정적인 것(누군가가 무심코 당신에게 내뱉은 말이나 지구 온난화에 관한 뉴스 등)이면 당신은 분노나 슬픔, 공포의 느낌을 경험한다. 눈물을 억지로 참아서 눈가가 시려오거나 억누른 분노로 호흡이 가빠진다. 펴진 손이 오그라들어 주먹이 되듯, 올라온 감정 때문에 의식이 오그라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세상은 모조리 슬프거나 화난 모습으로 변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신체에 고유의 감정과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트라나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불꽃이나 신의 형상에 의식을 모으면 사랑, 존경심, 행복, 편안함, 충만함과 같은 생각이나 감정이 나타난다. 우리는 대부분 긍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은 좋아하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관련된 감정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상이나 모습에도 결국에는 용해되어 의식으로 회귀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티베트에서 신의 형상을 시각화하는 수련의 요체다. 수행자는 신의 형상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날 만큼 생생해지면 이를 녹여서 다시 자신의 각성 속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의 형상을 비롯한 만물이 우리 자신의 의식이 현현한 것이며, 그래서 만물은 의식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단타의 성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만물은 인간의 참자아 안에 있다."

이 글은 〈명상 나에게 이르는 길〉 (한문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쌩뚱! 맞은 소리!

소리공학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국 법당들의 소리는
심오한 염불정서와 전혀 다른 쌩뚱맞은 소리로! 이런 소리에 내 염불을
실림으로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게 들림에서 목이 가고 수 만번
반복 속에 만성피로에 젖어듬에도 원인조차 모른체
참으로 힘들게 염불의 세월을 보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

법당소리 비교시 놀랍도록 선명한 소리의 차이에 고민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말없이 쌔엥! 가버리는 이유는 부담드리기 싫어서 이지만 어마! 어마! 한
소리의 차이를 잊지않고 고민이 정리되면 반드시 불러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앰프 다루기 1초! 고장도 없지만 지금은 A/S가 부실하면 문을 닫는 시대!
토탈시스템 완벽시설후 귀 법당 기존 시설의 평균 절반가격 할부가능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이곳은 각종 제품이 다 있으니 소리구경 하세요!

☎ 055) 343-1191, 010-9471-2026
(주) 염불소리 대표 공 희 (소리공학 저서)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대행 스님

우리 이 생활이 그대로 종교며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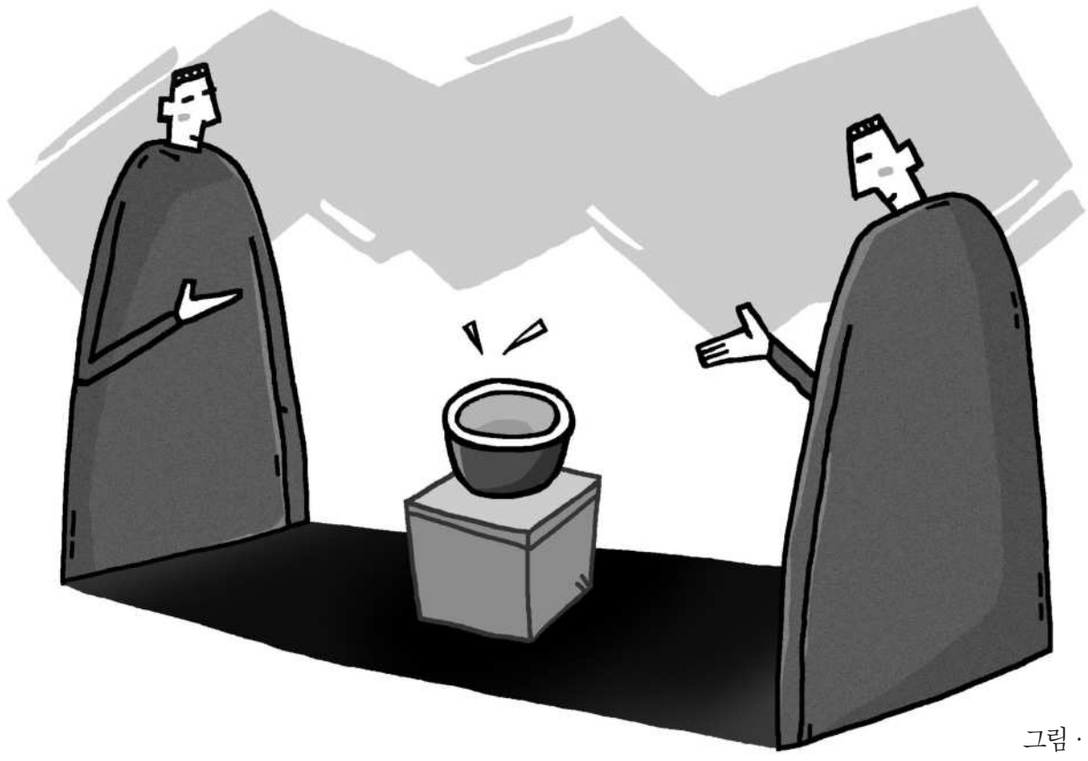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한 항아리 속에서, 이 항아리가 버스라면 그 버스가 어디를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종파를 나누고, 또 모든 한 생명, 그 마음 법, 움죽거리는 그 모든 것이 공생, 공용, 공체, 공식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너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불평 불만 이런 것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의 환경에 따라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를 가지고 한마음으로써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란 값싼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이지 요새 사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난만해지고 있고 그것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랑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생활 속에서 사람부터 되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화목지 못하고, 대화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바쁜 시대도 시대거니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는 50%의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50% 안 보이는 무의 세상도 있습니다.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100% 계합이 돼서 같이 합일한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인간으로서 아마 자유인이 돼서 자유스럽게 활보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을 하자면 의학적으로도 우리 두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해 있는 의식 쪽을 한 번도 음미해 보지 않고 생각해 볼 여유도 두지 않고, 현재의식 쪽으로만 살다가 거기에서 급급하게 오고 가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타파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 소견으로 그대로 그냥 결정을 지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견으로써 살지 말고 지견으로 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견 말입니다.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내 아픔과 같고 내 자리와 같고 내 몸과 같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된다면 나도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주여!' 할 때, '하느님!' 할 때, '부처님!' 할 때 이런 때도, 때에 따라서 내 한 가정의 자식들과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기도드리는 사람 마음이 괴롭고 볼 수가 없으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과 같이, 진짜 사대 성인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모마리아든 또는 알라신교든 가톨릭교든 기독교든 막론해 놓고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그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불(佛)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했고 말씀을 교(敎)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한 포기도 종교 아닌 게 없고, 풀 한 포기도 생명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불교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는 불교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내 님'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내 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남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태초요, 이 세상에 움죽거리는 것이 화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상대성 원리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고 우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모두 내 가정에서부터, 나부터 알아야 되고 주처가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이 색신도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무효입니다. 생각이 없다면 목석이니 무효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근본만 있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구성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모두가 이것은 공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공을 믿어야 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나왔습니다. 왠가? 미생물에서부터 쫓기고 쫓으면서 경험하면서 진화돼서 인간까지 이렇게 출현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끌고 오고 지금도 끌고 가는 자기 운전수를 믿지 못하고, 그 운전수로 인해서 기름을 넣고 또는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 차도 되고 오븐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시자도 되고, 예수교에서는 종도 됩니다. 심부름꾼이죠.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라는 거죠. 자기 없는 자기가 진짜 자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렇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불교라고 그런 게 따로 있고 기독교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없고는 모든 종교도 없고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이죠. 모두가 한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을 심성과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떠한 물질이라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컵도 지수화풍이 아니고는 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과 물을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워서 여기 이렇게 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컵이라고 출현을 했는데 컵이라고 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물이 담긴 거죠. 또는 커피도 담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담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견으로 쓴다면 바다도 될 것이요, 또는 접시도 될 것이요, 사발도 될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모든 마음을 그렇게 넓게 낼 수가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은 나누고 쪼개고 네가 그르니 내가 옳으니, 이게 정법이니 사법이니, 이게 귀신이니 이게 선신이니 하고 싸우진 않을 겁니다. 이 마음으로 마음이 싸울 때 남하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인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세상 살아나가는 이 생활이 그대로 종교며 그대로 진리며 그대로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이탈할 수 없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짤막하게 한마디 해 드리죠.

우리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소크라테스도 너부터 알라고 했습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 아리스토텔레스도 말입니다, 어떠한 병이라도, 옮기는 병이라도 들어가서 다 고쳐서 살렸습니다. 그건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 않는 그런 병 증세도 한생각이면 그렇게 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몸뚱이 하나 끌고 가지 못한대서야 어찌 이 세상에 났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이 괴로우면 그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의 마음 속에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툰다. 성모마리아를 구하면 성모마리아로 응해 주시고, '주여!' 한다면 예수로 응해 주시고, 부처님 찾는 사람에겐 부처님으로 응해 주시고, 산신을 찾는 사람에겐 산신으로 응해 주고, 약사를 원한다면 약사로 응해 주고 천차만별로 달라는 대로 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털구멍을 통해서 우리네 마음속에, 이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의식 자체는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같이 선업 악업이 뭉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의 혹성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쓰면, 이 지배인이 넓게 쓰면 직원들도 넓게 쓸 거고 지배인이 좁게 쓰면 직원들도 좁게 쓸 겁니다. 그러니 내 한마음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실험

☞ A18면으로 계속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심우선원 選佛場



「선불장이란」 부처를 뽑는 장소란 뜻으로 禪門의 宗主인 마조선사로부터 비롯된 말로 본 도량은 20여년간 "돈오견성" 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자를 독려, 견성해탈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벼락치듯 돈오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정일여, 몽중일여, 숙면일여, 오매일여"**인 깊은 선정삼매를 통해 의정이 독로될 때 비로소 확철대오의 기연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법의 근원은 텅빈(空)의 자리에 있고 현대인의 모든 고통과 혼란은 공도리의 무지에서 오는 것으로...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침이란 "여실지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으로** (단지 중생의 눈으로 實相을 경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뿐) 그것은 어떤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계종의 존경받는 큰 스님으로 고우스님이나 암도스님 같은 분들은 법문중에 자신의 경계를 꼭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그분들의 진정성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전에 성철스님은 지해종사(해오자)는 간판을 내려라 하고 경책하였습니다. 깨침이란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으로 올바로 깨치면 그 즉시 열반을 증득, 자기인가(證悟)를 체득하는 것이므로 최상승법을 다루는 일은 절대적 양심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여기 선지로 함께 동행하는 깨달음(돈오견성, 해탈열반)체험으로의 여행에 수행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4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첫번째 공부모임을 갖게되었으니 동참 가능한 분은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證悟" 왜 올바로 깨치면 自己認可 '究竟覺'를 성취하는 것인가 공부하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 깨달아 가는 전 과정을... 특히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또한 깨달은 후에 성성함 "깊은선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경계를 참구자에게 자세히 설해 드립니다.

문의 傳法講主 釋眞性 010-3045-008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2번지 심우선원

☎ 031-255-0066

오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 1실 평생 거주할 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2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2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7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 녀 평생 모십니다.

- 1인 1실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입주시 1천만원
- 부부실 :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4천만원 입주시 3천만원

【 1층 - 부부 4쌍 8분 / • 2층 - 거사님 4분 】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뜨잠기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 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문의 : 회향선원 010-3771-7575

모든 거를 자기 주처에 말겨 놓을 때는 자동적입니다

☞ A17면에서 계속

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실험을 해 보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두지 않는다면 항상 노예로서 맹종하면서 목탁이나 치고 밥이나 내려 먹고 남이 가져오는 땀방울을 가지고 이리저리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뼈다귀까지 우려먹으면서,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여!' 하면서도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내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나도 그런 생활을 해 봤거든요. 왜? 내가 잘못한 거는 내 양심이 더 잘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의식 하나하나가 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아. 왜? 우주의 근본이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직결돼 있거든. 모두가 생활하는 것은 전부 가설이 돼 있는 거거든. 이러니 여러분이 한 치라도 속일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거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이 도리를 만약에 아시려고 든다면 이런 이론 하나가 아니라 진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진실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물질이 전부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이 전력도 끌어 쓰고 모두 쓰죠. 여기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나 공기를 우리가 가지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처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법신도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부처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는 가만히 있는 게 부처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공했다 이거야. 어떤 것을 나라고 할 수 없으니 공했다. "모두가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하신 말씀과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 내는 것도 생명이 있어야 내죠, 네? 영원한 주처는 자기한테 있습니다. 주처가 있으니까 생각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움죽거리는 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독교니 불교니 다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게 소견으로써 가르고 가르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우리 이 지구가 지금 (컵을 짚으시며) 이거 하나라면 여기에 다 타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야 하며 지구를 벗어나야 하며,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거를 굴릴 수가 없고 내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구태의연한 얘기지만 맷돌을 굴리는 데 심봉이 아래 위 꿰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맷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기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작업을 하시려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시고 마음을 넓게 지견으로 쓰시면서 생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용광로에다가, 내 가슴속의 용광로에다가 놓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최초에 용광로에다가 작업을 하는데 모든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주처에서 나온 거니까 '주처에서 다 알아서, 거기서 밖엔 해결할 수 없다' 하고 거기다가 일임하고 놨을 때, 그 작업만 한다면 그 쇠는 저절로 생산이 돼서 나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출현하죠. 그런데 내가 그것 걱정까지 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저 용광로에 놓는 것만 놨으면 좋겠는데 저기 생산돼 나가는 것까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시는지, 나는 기가 막히죠. 또 그거는 제쳐 놔 두고요, 그렇다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말로 할까요? 미국이니 말입니다.

> **우리는 무한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 **무한의 능력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불가에서는 오신통이 있다고 합니다. 오신통은 뭘 가지고 말하느냐. 지금 여기 시쳇말로 합시다, 그럼.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자력이나 통신력, 광력이 모두가 여기에 대두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대두돼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큰 모든 세상에, 우주 전체에 입력이 될 수 있는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돼 있다 이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자동적으로 돼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팩스가 붙어 있는 것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지금 말로 한다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천이통이라는 건 무얼 가지고 말하느냐. 이것은 바로 천체무전통신기를 말하죠. 그리고 또 천안통이라는 것은 천체 망원경을 말하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 보는 망원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안으로 보는 망원경이죠. 천체 보고 탐험을 할 수 있는, 빛보다도 더 빠른 그러한 탐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러한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 나와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 겁니다. 종교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의 도리와 인간의 그 무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몰라야 합니까. 모르라고 써 붙이기라도 했나요? 그러나 사람은 벌써 물질적으로 욕심이 많고 먹고살아야 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가리지 않는 겁니다. 가리지 않고 한번 여유 있게 50%의 무의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한 번도 갖질 않아요. 진짜로 사랑하려면 그런 거를 알아야 진짜로 사랑할 수 있고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데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위로는 길러 주시고 낳아 주시고 가르쳐 주신 조상들의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영원토록 끄달림이 없이 돌아가면서 그 새 자루의 새 뿌리를 도와서 촉촉하게 해서 가지와 이파리가 싱싱하도록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텐데 잠시 잠깐 쉬었다 가는 길에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살아 볼 수는 없는지요.

우리 인간은 한 철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낙엽을 딛고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인간의 몸뚱이도 가을이 되면 이렇게 낙엽과 같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것은 아닌데 말이야.' 하면서 '그 가지는 발발 떨면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도 인내 있게 견디며 봄이 오기를 기다리건만 인간은 여유가 없이 방방 뛰고, 춥다고 방방 뛰다가 그냥 병이 들고 더 쉽사리 가게 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나도 한 점의 눈물이 가슴속에서 흐르곤 하죠.

제가 이 승복을 입은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 자체 속에서 그대로 인간은 여여한 것이니라. 그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이니라. 목마르면 냉장고 문 열고 그냥 마시는 것이지 이유가 거기 붙지 않느니라." 한 겁니다, 이게. 이 표상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니라. 이것은 악도 아니요 선도 아닌 그 가운데에서 너는 자유스럽게, 자유스럽게 네 마음 내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은 '생활이 그대로 과학이니라'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실험도 안 해 보고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못해. 나는 하느님이 될 수 없어. 나는 부처가 될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도 아홉 살부터 부모를 두고도 그렇게 혼자 고독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면서도 왜 내가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내가 고독하기 때문에 아빠를 내 가슴속에서 붙들고 나갔고 아빠라고 가슴속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믿을 게 없으니까요.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아빠를 부르짖고 찾았을 뿐이지, 엎드러져도 '아빠!' 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쓰러져도 '아빠!' '죽는 것 사는 것도 당신밖엔 없어.' 하고 아빠라는 그 이름 하나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이다 뭐다 하고 바깥으로만 끄달렸지 남의 아픔을 몰라. 또 도와준다 도와준다 하고 물질로만 도와주는 것은 큰 게 아니야.

옛날에 어떤 중이 바리때를 들고 공양을 얻어먹으러 나가니까 어느 집에서 뜨물 한 그릇을 폭폭 끓여서 식구가 다 먹고 한 그릇을 남겨 놨더랍니다. 스님이 오시면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거 한 그릇을 얻어먹고 어떻게나 불쌍했던지 지게를 지고 가서 나무 한 짐을 잔뜩 해 가지고는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거기 있으면서 "그건 뭘 하려고 그렇게 나무 한 짐을 꼬박꼬박 지고 내려가느냐?" 하고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바리때를 들고 공양을 얻으러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나무라도 한 짐 해다 주려고 이렇게 해 옵니다." 하니까 그 지겟작대기를 뺏어 가지곤 그냥 다리를 몹시 때리면서 "이놈아! 사랑이라는 거, 자비라는 건 그런 게 사랑, 자비가 아니니라. 그리고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하느냐. 그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서 작대기로 한층 치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뭇짐째 사람째 그냥 디글디글 굴러서 딱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무릎을 만지면서 한번 생각했답니다. '옳지! 이 나뭇짐은 한 짐 져다 주면 때 버리면 그뿐인 것을 내가 참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고선 그때서야 그렇게 아픈데도 "스님!" 하고 소릴 지르면서 주먹을 벌컥 내밀면서 "스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울더랍니다. 그 우는 소리가 우주 법계에 두루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해부터 마름을 얻게 됐고 좋은 귀인이 모두 나서서 그 집이 그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람은 부자가 됐어도 가난한 사람을, 지금으로 치면 그 동네 일판뿐만 아니라 어디고 가는 대로 그걸 가지고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오신통이라는 것은 모든 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내가 한번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자기 주처에 맡겨 놓을 때는 자동적입니다. 왜냐? 이 숙명통이라는 것은 컴퓨터와 같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거기에 입력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어서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 팔자가 이래? 운명이 이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돼?" 이런 한탄 하실 일 없어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 남을 원망하기 이전에 자기 탓으로 돌려라.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맡겨 놓고, '거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에 입력이 들어가니까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생활이 과학적이면서도 그렇게 광대무변한 법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모든 게…. 한생각이 빛보다 더 빨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다른 데 좀 가 보십시오. 집 좀 가 보십시오. 갔다 오실 수 있겠죠?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게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요. 체가 없는 마음은 어디라도 이 지구 바깥의 꼭대기, 우주까지도 탐험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집에 지금 가서 어디 뭐가 놓이고 뭐가 놓였다 하는 거를 한번 보고 와 보세요. 그와 같은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아주 보배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0년 4월 24일 샌프란시스코 미야코호텔 초청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하루 한시간!

선무도 禪武道

고요히 나와 마주하는 선호흡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선요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선무술!



선무도 기초 과정 모집 중!

서 초 02-599-5554 서대문 02-735-5349
송 파 02-3431-4889 종 로 02-763-2980

www.sunmudo.kr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 (사)세계선무도총연맹

염불(범음·범패) 무료교육

염불(범음 · 범패)을 배우고 싶으신 회원을 초대합니다.

염불 뜻을 알아야 소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 수 강 료 : 무료
■ 자 격 : 삭발 염의한 스님
■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내용 : 천도의식 뜻 해설 및 소리 (영남소리), 사물, 바라작법, 공양작법
■ 강 주 : 자운 스님
바라, 공양작법 – 해인 스님
■ 문 의 : 여여불음원
☎ 055)744-5300
❖ 회 비 : 십만원
단, 회비는 부처님 성지순례(1~2년 마다) 여행비로 비축

• 본인 염불소리 전문 녹음 및 CD제작 가능 •

여 여 불 음 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어옥로 232-72 여여암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사유의 숲을 거닐며 |

木蓮, 나무서 피어난 고결한 연꽃



송마나
작가



그림 · 강병호

꽃이 피었다. 나무에 연꽃이 피었다. 오므렸던 목련 꽃잎이 벌어질 때 봄은 만개한다. 하늘을 향하여 꽃을 피우는 목련은 매화와 벚꽃으로부터 봄이 태어난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심연에는 한파를 견디며 피어나는 매화의 고결함과 경쾌하게 군무(群舞)를 추는 벚꽃의 화려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봄에 피어나는 꽃들 중에서 목련만큼 자의식이 강한 꽃이 어디 있으랴.

나는 어디 있는가? 목련 꽃봉오리 속에 있다. 나는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때 세상에 태어난다. 꽃잎을 열고 봄빛 속으로 나아간다. 봄빛도 무거운 겨울을 밀어내고 빛나고 있다. 봄빛이 찬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 생명은 모두 죽음과 같은 겨울을 통과하고 태어난다. 부드러운 봄빛 속에서 목련 꽃 향기가 은은하다.

모든 꽃들은 태양을 따라 남쪽을 바라보고 꽃을 피우지만 목련은 태양마저 빛을 잃은 북쪽을 향하여 꽃을 피운다. 일본 총독부를 거부하여 북향집을 지은 만해(萬海) 스님의 심우장(尋牛莊)을 떠올린다.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목련만큼 자존감이 깊은 꽃이 어디 있으랴.

목련꽃이 피었다. 등불을 켜듯 목련꽃이 피었다. 겨울 내내 토요일마다 도심에서는 언 손을 호호 불며 봄이 오기를 갈망하며 촛불을 밝혔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촛불들이 등불처럼 빛났다. 등불은 목련이 어두운 겨울을 뚫고 나오도록 길을 비추었다. 이윽고 봄바람에 목련꽃이 피었다. 그 바람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훈풍(薰風)이며 내일을 향한 희망의 신풍(新風)이었다.

우리는 어디 있는가? 어두침침한 동굴 속에 있다. 동굴은 실존이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을 제어하고 구심력으로 족쇄를 채운다. 누구나 동굴 벽에 비추는 그림자를 실체로 여긴다.

우리는 봄날의 부풀은 대지에서 삶의 교향악을 아름답고 자유롭게 연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휘봉을 잡은 손은 오케스트라를 바르게 지휘하지 않는다. 목련이 나목(裸木)에서 꽃을 피우듯, 지휘자는 연꽃의 마음으로 교향곡을 정교하게 작곡하고 지휘해야 한다.

우리는 오선지 위의 길고 짧은 음표들이다. 음표들은 악보 안에 갇혀 있다. 음표의 본질은 소리이거늘. 소리는 음표의 울림이며 숨결이다. 봄노래를 부르고 싶다. 우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고 싶다.

잎을 피우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목련처럼, 봄빛을 그리워하며 겨울밤에 불빛을 밝힌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출구를 찾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동굴의 내벽은 인간 마음의 안쪽을 닮았다.

인간에게 낡은 동굴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침묵이다. 침묵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영속하는 본유(本有)의 불성(佛性)이다. 침묵 속에 봄의 씨앗을 뿌려 키워나가면 꽃은 피어날 것이다. 모진 추위에도 몸을 굽히지 않는 올곧은 마음과 믿음으로써 인고를 견디며 침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 "오, 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묘문(妙門)이 열리고 있다.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노래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문지방을 넘어선 느낌이다. 현기증으로 비틀거린다. 봄빛이 눈부시다. 슬픔과 분노, 회한과 고독, 암울했던 혼란의 시대가 허물처럼 떨어져 나간다. 신생(新生)이다.

목련잎 벌어질 때 봄은 만개
그 심연엔 고결 · 화려함 담겨
이만큼 자존감 깊은 꽃 있나

수많은 촛불, 등불처럼 빛났다
어두운 겨울 지나 봄바람 불고
이윽고 목련은 꽃을 피워냈다

목련 개화, 탄생 모습과 흡사해
자신 몸 · 영혼 모두 바치는 헌신

목련이 꽃봉오리를 터뜨릴 때마다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우윳빛을 머금은 하얀 꽃잎이 아름답다. 흰색은 시작 이전의 무(無)의 색이다. 무의 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찬 침묵의 색이다. 흰색은 깨끗한 순결과 충만한 기쁨으로 넘친다. 연꽃의 무염시태(無染始胎)이다.

우뚝 서 있는 목련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고고함이 느껴진다. 목련은 연꽃이 피어나는 여름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답답한 겨울을 뚫고 스프링(Spring, 봄)처럼 솟아올랐다. 연꽃은 여여한 마음으로 따뜻한 물 위에서 꽃을 피우지만 성급한 목련은 봄날에 불꽃처럼 일어서야 했다. 연꽃이 수평적인 물의 꽃이라면 목련은 수직적인 불의 꽃이다. 연꽃은 만물의 더러움을 물로써 정화하지만 목련은 불로써 소각한다. 만물의 온갖 죄악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청정무구(淸淨無垢)한 꽃, 이래서 부처님은 연화대(蓮花臺) 위에 앉아계시나 보다.

나목(裸木)이 터진 자리마다 목련꽃이 피어난다. 아무 기척도 없는 텅 빈 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겨울바람이 얼마나 혹독하게 몰아쳤으면 몸뚱이만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을까. 그래도 드러눕지 않고 비상하는 수직 축을 따라 꼿꼿하게 서 있는 기개. 이것은 아픔과 외로움을 삼키며 내일로 솟아오르려는 존재의 근원적인 모성일까.

어머니가 새 생명을 몸속에서 키워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송두리째 바치는 헌신이다. 이때 어머니와 새 생명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연꽃도 화과동시(花果同時)로 꽃과 열매를 분별하지 않고 함께 자란다. 맨몸을 찢고 터뜨려서 꽃을 피우는 목련을 차마 바라볼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만유(萬有)의 순리인 것을. 목련꽃이 피어나는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과 흡사하다. 목련이 꽃을 피우는 것은 우주의 도태(道胎), 즉 법신(法身)이 열리는 것이다.

불법(佛法)의 세계는 촛불도 태극기도 하나이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목련꽃 향기 그윽한 저 봄빛 속으로 나아가자.

社 說

스님 '건강검진' 복지 환영한다

조계종과 동국대 의료원이 스님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승려복지회와 전국비구니회 · 동국대 의료원은 3월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스님들의 안정적 수행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특별한 통보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이들 기관들은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 분담한다.

협약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대상 범위를 조계종 소속 모든 출가수행자로 포괄 · 적용한 점이다. 그간 승려복지회의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 이후 돕는 사후적 정책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미리 질환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스님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돕기 위해 동국대 일산병원이 현재의 일반인 대기실과 병실에 일정 정도 구분을 둘 예정이다.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의료원은 출장 검진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없어 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강원 등 인원 규모가 큰 곳을 방문해 검진을 돕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은 '의료'에 대한 노후 복지 욕구가 3.52점(5점 척도)으로 가장 컸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종과 전국비구니회, 동국대 의료원의 이번 협약은 스님들의 노후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번 검진서비스로 스님들이 검진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잘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

미래세대 포교, 태아 때부터 시작을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주로 듣는 태교음악을 떠올려 보자. 브람스의 자장가, 모차르트의 교향곡 25번 등 클래식 곡이 생각날 것이다. 찬불가를 태교음악으로 듣는 임산부를 본적이 있는가?

최근 조계종이 태교와 영유아 포교를 위해 태교음악을 비롯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동안 성인문화포교 수단이었던 찬불가를 임산부가 듣기 좋은 음악으로 개발했다. 이 뿐만 아니다. 임산부 자애명상, 출산 후 부모은중경 사경 등 다양한 태교 · 조리법을 내놨다. 여기에 영유아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마음챙김법도 개발해 보급을 시작했다.

일선 사찰도 종단의 이런 움직임에 맞춰 영유아 포교를 위한 수유실을 만들고 마정수기 법회를 매달 여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경우 영유아수계법회를 매월 진행으로 변경하고 아기인등을 무료로 실시해 20명 넘는 유아들이 수계를 받았다.

그동안 불교는 알게 모르게 미래세대에 대한 포교를 놓쳐왔다. 어린이 법회가 날로 줄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교육시설도 기독교계에 비해 열세였다. 그 이면에는 태아 때부터 1살 때까지인 태아 · 영유아기 포교가 사실상 방치였다는 점이 작용했다. 성경 태교동화 등을 2000년대 초반 개발해 보급한 기독교계는 아동교육까지 자연스럽게 선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불교계는 산모 명상과 요가, 영유아와 부모의 불교식 애착형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사찰로 오고, 불교를 접하게 해야 한다. 불교의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지금, 미래세대를 위한 포교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펼쳐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당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前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원정, 석덕오, 석원명,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설산

감찰원
감찰원장 석월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법주

포교원
포교원장 석도일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광

교육원
교육원장 석유심

교구종무원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충북종무원장 석초오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총 무 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지혜
총무부장 석화성
교무부장 석지담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윤오
의전부장 석명오

문 도 회
문도회회장 석법현
문도회부회장 석법진
문도회총무 석해안
문도회감사 석지혜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원장 석도현
전국비구니회장 석지현(경주)
전국비구니총무 석우정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전국청년회장 한관영

대원불교조계종 불 교 대 강
,
수 간 명 , 성 명 을 우 도 직
통 이 지 분은 실 하 지도함
010-3711-5072
교 원 장 : 석유심 합장
총본산 주 : . . 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LOTUS (연꽃香) 조연향



조

조

조

장 10,000원
단 15,000원

을 이 니 다.
대 ( )에서추 한 수 성 니 다.
: 5 18 시 간 : 60 70시간



SHC 삼환종합양초) . .
(금자) 자 무 광 시 길

현대불교 Mandala 休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제 1140 호 B1



봄, 花寺하다

〈화사〉

내 눈까지 붉게 물드네 봄의 첫 전령 납월홍매

순천 금둔사

언제부턴가 햇살이 가까워지고 훈풍이 코내음을 자극하더니, 마침내 여기저기서 꽃소식이 들려온다. 봄이다. 봄이 또 온다. 따뜻한 이름으로 지은 이름, 봄. 우리가 추운 눈을 감는 사이 따뜻한 바람으로 길을 내고, 그 달라진 길에 꽃을 피우며 한 발 한 발 다가온 봄. 그래서 우리는 그 계절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온다"고 했고, 그 '온다'는 그렇게 길을 가진 '온다'였다.

봄 길은 꽃길이다. 겨울을 지나온 동백을 비롯해 매화, 산수유, 목련, 개나리, 진달래와 이름 없이 피는 꽃들까지. 꽃길이 시작됐다. 봄이다. 십 획도 안 되는 '봄'이라는 글자 한 자에 모두는 설레고, 바람 한 점에도 흔들리는 꽃 한 송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집집마다 창문이 넓어지고 창밖의 하루는 길어졌다. 그 긴 하루가 멀었던 세상을 가까이 부르고, 거리가 벌어졌던 너와 내가 또 한 번 깊어간다.

그렇게 바뀐 세상은 축제를 시작한다. 양산 원동매화축제를 비롯해 구례 산수유 꽃축제, 여수의 진달래축제, 서천 동백꽃축제, 해남 땅끝매화축제 등 전국은 꽃을 즐기며 잔치를 연다.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지역적 특수상황으로 인해 취소된 행사도 있다니 미리 살필 일이다.

남쪽 땅 순천의 조그만 도량에도 꽃이 한창이다. 홍매화, 청매화, 설매화 등 매화나무 많은 금둔사다. 가지마다 촌음을 아껴가며 저마다 꽃잎을 뿜어낸다. 산새들도 발맞춰 축제를 시작했다. 달라진 나뭇가지를 찾아 산새들이 분주하다. 꽃잎 사이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래 소리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꾼다. 세상은 그렇게 꽃과 새들이 바꾸고 있었다.

봄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기나 긴 겨울 끝에 오는 것을 보면, 먼 길을 돌아 오는 듯하다. 그 먼 곳서 길을 헤매지 않고 어김없이 찾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땅 어딘가에 봄길을 밝히는 등대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이곳 남도 땅이리라. 남해를 지척에 둔 순천. 그 끝 자락 금전산 기슭의 도량이 첫 봄 전령 납월홍매가 피는 금둔사다.

금둔사=글 · 사진 박재완 여행작가

B2면에 계속

금둔사 홍매를 '납월매(납월홍매)'라 부른다. 납월은 음력 섣달을 달리 부르는 말로 금둔사 매화가 엄동설한을 견디고 세상에 나툼을 뜻한다. 1월 말 경부터 꽃망울을 터트리는 금둔사 납월홍매는 봄의 전령이다. 금둔사 석등 위로 불빛 대신 납월홍매가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다.

INSIDE

B3 **봄꽃축제** 전국 꽃축제 행사 일정

B4·5 **꽃이 있는 산사** 봄꽃별 유명 사찰 소개

B6 **간사이 아줌마 추천 '花の寺' 6選** 꽃길 꽃절 명소 총망라

B7 **봄맞이 템플스테이**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80여 사찰



봄소식 제일 먼저 알리는 남도 땅 금둔사에 매화가 한창이다. 도량을 장엄한 매화 꽃잎 너머 새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금둔사에는 대웅전 옆과 계곡, 산신각 뒤편 등에 납월매 여섯 그루를 비롯해 청매, 백매 등 한국 토종매화 100여 그루가 있다.

꽃길의 길목 봄길의 등대… 청매, 백매 등 3월 절정

전남 순천 금둔사

B1면에서 계속



금둔사지 3층 석탑(보물 제945호).



1983년도에 지허 스님이 새롭게 중창불사한 금둔사 대웅전 전경.

백제 담혜 스님 창건한 천년고찰… 1983년 지허 스님 새롭게 복원 중창

도량에 매화나무 100여 그루 가득, 경내 전통차 역사 품은 차밭 '눈길'

금둔사 세월의 무게 일러준 3층 석탑과 석불입상 현재도 면면히 보존

꽃소식 가장 먼저 알리는 납월홍매

일주문을 지나자 하얀 매화 한 그루가 먼저 객을 반긴다. 홍매, 청매, 백매 등 도량은 매화천지다. 도량 뒤 숲도 꽃들로 채워지고 숲에선 산새들이 야단법석이다. 붉은 꽃잎 너머선 붉은 노래가, 흰 꽃잎 너머선 흰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봄을 새들도 아는 듯하다. 봄은 숨 쉬는 모든 것들을 설레게 한다. 봄 햇살 속에 서있는 석등 위로 홍매화가 가득하고, 법당 지붕 위로는 백매화가 구름 같다.

봄을 알리는 꽃소식의 선봉은 매화일 것이다. 잎도 내기 전에 꽃부터 밀어내는 매화는 봄을 상징하는 대표적 꽃 중 하나다. '화괴(花魁 · 꽃 중의 으뜸)'로도 불리는 매화는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달리 명명한다. 일찍 핀다고 해서 '조매(早梅)', 추울 때 열려서 '동매(冬梅)', 눈 속에 핀다고 해서 '설중매(雪中梅)'로 부른다. 그리고 빛깔에 따라 홍매, 백매, 청매 등으로 나뉜다.

"찬 서리 고운 자태 / 사방을 비추어 / 뜰 가 앞선 봄을 / 섣달에 차지했네"

신라 시인 최광유가 금둔사 홍매화에 붙인 '납월매'라는 시 구절이다. 이렇듯 금둔사 홍매를 '납월매(납월홍매)'라 부르는데, 납월은 음력 섣달을 달리 부르는 말로 금둔사 매화가 엄동설한을 견디고 세상에 나툼을 뜻한다. 매화 중에서도 홍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데, 금둔사 납월매가 그 이름처럼 홍매 중에선 세상 속으로 가장 빨리 나온다. 금전산이 북쪽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고, 도량 앞은 탁 트여 햇볕이 잘 들기 때문이다. 금둔사 납월매는 이르면 양력 1월 말 경부터 꽃망울을 터트려 3월까지 핀다. 그렇게 홍매가 먼저 봄을 시작해 3월 초 절정에 이르면 청매와 백매 등이 뒤따르며 금둔사 봄은 절정을 이룬다. 잡화엄식(雜華嚴飾), 그야말로 화엄법계가 따로 없다.

금둔사 납월매는 본래 낙안읍성서 자라던 매화나무가 고령으로 고사하자 그 자목 혹은 가지를 옮겨 심었다. 금둔사에는 대웅전 옆과 계곡, 산신각 뒤편 등에 납월매 여섯 그루를 비롯해 청매, 백매 등 한국 토종매화 100여 그루가 있다.

다시 천 년을 잇는 불사

선종가람 금둔사는 도로변서 가깝다. 포장도로를 버리고 산기슭에 발 디디면 얼마 안 가서 일주문이 눈에 들어온다. 현대에 지었지만 소박한 적석의 석벽과 석벽 사이에 놓인 일주문이 고풍스럽다. 일주문을 지나 작은 개울을 돌다리로 건너면 도량이다.

금둔사는 백제 위덕왕 때인 55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10여 명의 승려를 길러낸 담혜 스님이 귀국해 583년에 창건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인 682년에 의상 스님이 중창하면서 산내에 금강암을 짓고 주석했다. 당나라 남전보원선사의 법을 받고 825년에 돌아와 신라 구산선문 중 사자산문을 개창한 철감국사가 그의 제자인 징효 스님과 함께 중창했고, 삼층석탑(보물 제945호)과 석불입상(보물 제946호)을 조성했다. 또한 동림선원을 열어 육조의 선풍을 심었다.

고려 말 때인 1385년에 고봉 스님이 중창한 뒤 산내에 수정암을 짓고 주석했다. 스님은 후에 송광사 16번 째 국사가 된다. 그 후 금둔사는 세상서 사라진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도량은 전소되고 18세기 후반에 폐찰됐다. 절터는 논밭으로 변했고 선풍의 법향은 옛일이 되었다. 1983년 선암사 칠전선원의 지허 스님이 도량이었던 논밭을 매입하여 대웅전을 비롯해 태고선원 등 10여 동의 당우를 올리는 복원 불사를 하면서 금둔사는 다시 천 년의 법을 잇게 됐다.

"우리 절은 반농반선(半農半禪)합니다. 절에 일이 있어 오신 분은 손전화 ~로 연락 바랍니다. 이 절의 작업장은 절 가까운 뒷산이나 좀 떨어진 차밭입니다."

태고선원 문 앞에 걸린 알림판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조주 스님의 〈선문염송〉 일구가 이어진다. "우주 생기기 전에 이 성품이 있었고 이 우주 멸망한 뒤에도 이 성품은 멸망하지 않느니라."

지허 스님은 금둔사 중창 전 선암사서도 선과 차를 한 자리에서 닦았다. 그래서 '지허'라는 이름 뒤엔 '차(茶)'가 따라붙는다. 스님은 묵어버린 차밭을 손수 가꾸고 법제(法製)를 재현해 사중과 사세를 이롭게 했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만연한 일본 녹차문화를 안타깝게 여겨 우리 고유의 차 문화 복원과 보급에 힘써왔다.

"차 맛을 잘 표현하는 말에는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와 참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입니다. 선(禪)은 곧 사려수(思慮修)라 해 사고와 명상은 물론 수행을 함께 닦아야한다는 말입니다. 〈중략〉 지혜로운 삶과 선다일여의 지고한 수행으로 대오에 이르러 대자대비로 만덕을 베품에 자유자재해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조금도 걸림이 없이 일체중생이 한 생명도 빠짐없이 모두 부처를 이루어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고 지허 스님은 금둔사 홈페이지에 적고 있다. 지허 스님은 금둔사에서도 차밭을 일군다. 금둔사에는 옛날 야생차밭이 조금 남아있고, 1996년부터 지허 스님이 일주문서 선암사쪽 300m 지점의 길 아래 조성한 차밭이 있다. 금둔사차는 제3창건주인 철감국사와 징효 스님에 의해 심어지고 가꾸어진 역사적인 차밭에서 시작됐다. 철감국사는 '끽다거' 화두로 유명한 조주 스님과 함께 남전 스님에게 차와 선을 전수받았다.

봄바람이 매화향기를 실어 나르고 금전산 기슭엔 옛일이라 불리던 법향이 다시 피어 흐른다. 선원의 방이 어두운 것을 보니 지허 스님은 아마도 반농의 자리에 계신 듯하다.

금둔사의 흔적…석탑과 석불

대부분의 폐사들이 그렇듯 금둔사 역시 사찰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금전산에 금둔사가 있다."는 기록과 송광사 사적에 "송광사 제 16국사인 고봉 스님이 남녘 명산을 두루 다니다가 태조 4년(1395) 금둔사에서 하룻밤 머물고 이튿날 송광사로 떠났다."는 기록이 있을 뿐 창건과 폐사에 관련해 정확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창건과 중창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올 뿐이다. 문자로 읽을 수 있는 금둔사의 흔적이 많지 않지만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흔적이 도량 한 쪽에 남아있다.

금둔사지 삼층석탑(보물 제945호)과 금둔사지 석불비상(보물 제946호)이 그것이다. 일주문에서 개울을 건너기 전 산기슭으로 오르면 돌계단 끝에 석탑과 불상이 있다. 석탑과 석불은 같은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금전산에 금둔사가 있다."는 기록의 근거가 여기서 출발한다.

삼층석탑은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양식을 따르고 있는데, 도굴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있던 것을 1979년 복원해 다시 세웠다.

석탑 뒤편의 석불비상은 연화대좌 위에 놓인 장방형의 길쭉한 비석 앞면에 부조 형식으로 부처의 모습을 드러낸 독특한 모습이다. 석불의 머리 위쪽에는 큼직한 빗돌지붕을 얹고 있어 외형으로만 보면 비석의 형태를 더 많이 닮았다.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처님을 모신 것처럼 보인다. '비상'이라는 이름의 이유가 있었다.

때론 문자대신 남아있는 흔적들이 더 확실한 기록이 되어줄 때가 있다. 문자처럼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는 못하지만 오랜 세월을 견디는 든든함으로 옛날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원히 잊힐 수도 있었던 절터 하나가 그렇게 다시 세월을 잇고 있으니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석탑과 석불을 뒤로 하고 서면 매화꽃으로 장엄한 금둔사 도량이 눈을 호사스럽게 한다. 어디선가 봄바람은 불어오고, 꽃잎은 하염없이 흔들린다. 봄이다. 꽃잎 터져 나오는 봄이다. 봄바람 불어오는 봄이다.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서든 서있는 곳은 모두 화엄이고 절정이다. 봄이 오는 꽃길로 나아가 봄의 한 가운데 서볼 일이다. 셔터를 무심하게 눌러대도 그 자체가 그림이다. 인간이 흉내 낼 수 없는 예술이다. 이번 주 매화꽃 흐드러진 금둔사 마당으로 당장 달려가자. 1년을 인내할 근기가 없다면 말이다. 춘삼월 이만한 상춘을 만나기 녹록치 않다.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 아름다운 것은 짧다. 순간이고 찰나다. 혹여 다시 가람 사라지면 법자리 걸을 수 없고, 꽃잎이 지면 봄은 또 속절없이 간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으랴.

금둔사=글 · 사진 박재완 여행작가



교통 · 먹거리 · 숙박

△가는 길

자가운전=순천완주고속도로 황전IC, 호남고속도로 승주 IC 이용, 금산 삼거리서 좌회전 7㎞ 진행하면 절 이정표가 나온다.

대중교통=순천버스터미널 하차, 순천→낙안(63번) 시내버스 / 순천→벌교읍→낙안 군내버스

△볼거리

선암사=061-754-9117 / 승주읍 선암사길 450

낙안읍성=061-749-8831 / 낙안면 충민길 30

조계산 도립공원=061-749-8802 / 승주읍 승주괴목1길 11

△먹거리

수정산장=061-755-4916 / 닭복음탕, 백숙

녹수식당=061-754-6504 / 백반정식, 꼬막한정식

오금산장=061-755-5583 / 백숙. 삼계탕

고향보리밥=061-754-3914 / 보리밥쌈밥, 정식

△숙박

낙안민속자연휴양림=061-754-4400

풀밸리펜션=061-6611-2080

비송펜션=010-7581-5522

참살이민박=010-7174-4389

긴 기다림 짧은 만남 2017 봄꽃축제

봄은
성숙해가는 소녀의
눈빛 속으로 온다

흘날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봄은
피곤에 지친 춘향이
낮잠을 든 사이에 온다

눈 뜬 저 우수의 이마와
그 아래 부서지는 푸른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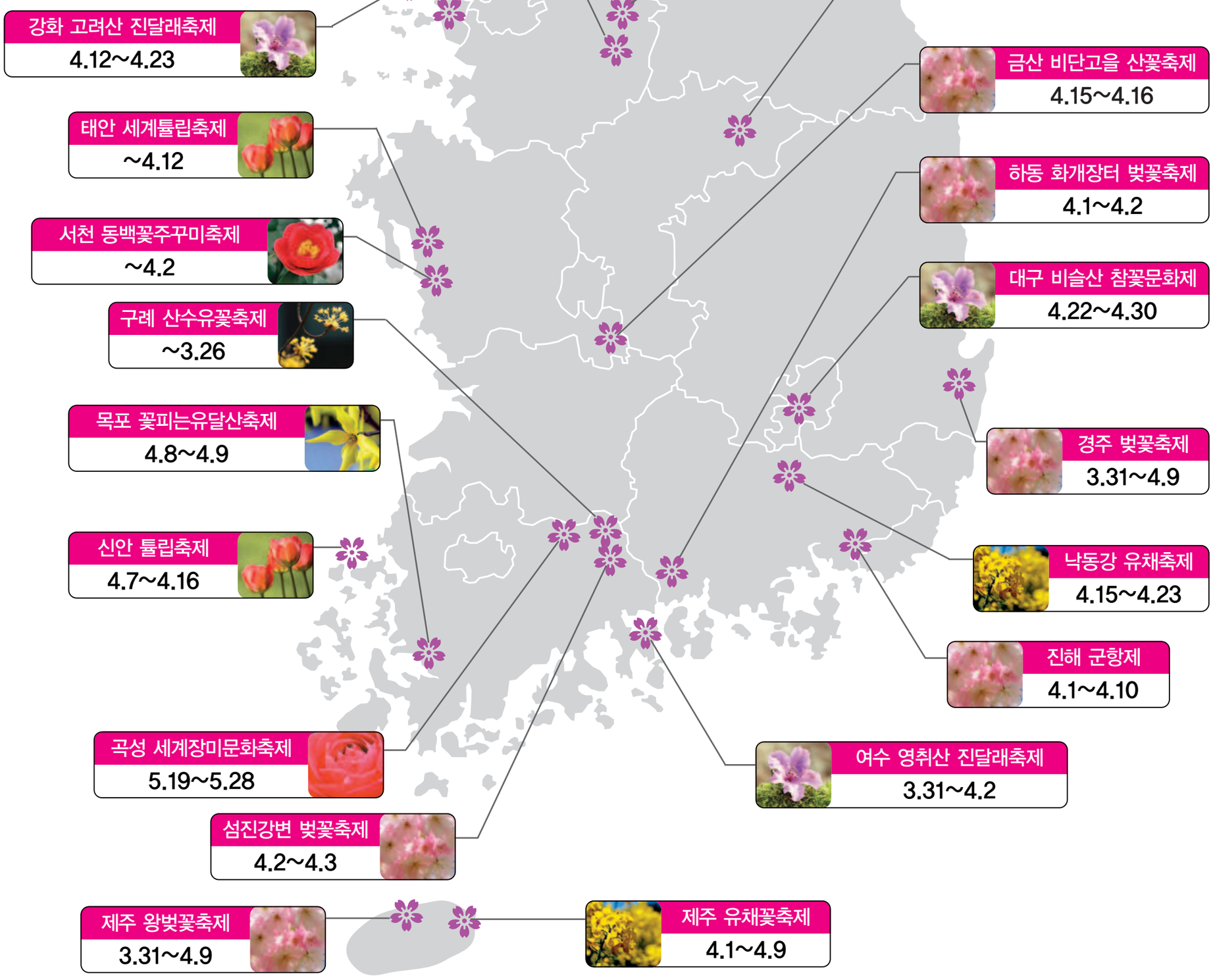
봄은
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의
가장 낮은 목소리로 온다

그 황홀한 붕괴, 설레는 침몰
황혼의 깊은 뜨락에 지는 낙화

-오세영, 봄-

겨우내 동장군 앞에 꽁꽁 싸맸던 겨울붕대를 푼다. 간지러운 햇살에 꽃망울 기지개 펴는 찬란한 계절 봄이다. 봄바람 살갗에 스치면 사람들은 봄 내음에 취한 듯 꽃을 찾아 떠나기 시작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곳곳에서 산수유 · 개나리 · 진달래 · 벚꽃 · 유채 · 튤립 등 형형색색의 봄꽃 향연이 펼쳐진다. 하지만 올해는 또 어디로 가야하나. 걱정 마시라. 고민스러운 당신을 위해 전국 봄꽃축제 일정을 정리했다. 짧은 만남과 긴 기다림이 우리네 마음을 애타게만 하는 봄꽃, 계획을 세워 즐겨보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보련기획
전국 방방곡곡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연등자동승강장치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연등 자동승강장치란? 법당의 구조와 규모등의 특성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를 바탕으로 장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레임(틀)을 설치하여 자동으로 프레임을 상하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키므로 연등, 축원표등의 설치, 교체 등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승강장치 설치 효과
- 높은 사다리에서의 낙상으로 인한 부상위험과 공포에서 해방
- 법당의 규모와 모양에 적합한 주문형 설계로 두어난 장엄효과
- 프레임(틀)을 보다높게 하고 연등을 정방형으로 정렬하여 넓은 시야확보
- 최소의 인력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등,축원표 설치 교체 가능
- 철저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로 반영구적 사용


원불

위패

인등

전기초, 쌍용촛대

보련기획 BORYEON | 010-5381-9355 031-526-2201~2 www.boryeon.com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189번길 27 A동 (모현면 일산리 549-1)
찬덕연등의 전통과 기술력을 계승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진달래의 개화는 남쪽의 봄과 함께 시작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피어나는 진달래의 3대 군락지는 여수 영취산, 창원 천주산, 거제 대금산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달래로 유명세를 떨치는 곳은 강화 고려산이다. 강화는 남한에서 가장 늦게 진달래가 피어난다. 늦은 만큼 아름답고, 반갑다. 4월 중 · 하순에 만개하는 진달래가 핀 고려산을 따라 걸으면, 적석사 · 청련사 · 백련사 등 고즈넉한 사찰들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강화 고려산 진달래 길의 모습. 사진 제공= 강화군청

봄꽃 산사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전국은 울긋불긋 '꽃대궐'이 된다. 산하대지 꽃대궐 안에는 봄꽃산사가 자리하고 있다. 진분홍 진달래부터 봄꽃의 중심 벚꽃, 샛노란 유채 등은 사찰 주변을 장엄하며 화엄세계로 만든다.

올해에도 봄꽃은 어김없이 피었다. 용혜원 시인이 봄꽃이 피는 날을 이렇게 노래한다. '봄 꽃피는 날/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어나는 걸.'

봄꽃 부처님이 현현한 전국 산사에서 내 마음에 꽃이 피는 날을 만끽해보자

정리=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진달래

진달래는 봄을 알리는 꽃이다. 두견화, 참꽃이라고도 한다.

한반도 전체에 피지만 여수 영취산, 창원 천주산, 거제 대금산이 진달래 3대 군락지로 손꼽힌다.

영취산 진달래 시자후 여수 흥국사

여수 영취산이라는 이름부터가 불교적이다. 인도의 영취산에서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법했다.

여수 영취산의 넓은 산자락의 품 안에는 흥국사가 자리 잡고 있다. 흥국사 옆 등산로를 따라 오르면, 영취산 자락을 만나는데 4월이 되면 이곳은 진분홍 진달래 설법 회상이 된다. 매년 진달래 개화에 맞춰 축제가 열리니 맞춰 찾아가는 게 좋다.

개화시기는 3월 20일부터 4월 초 · 중순까지 (061)685-5633

고향의 봄을 만나다 창원 천주암

창원 천주산은 진달래 3대 군락지 중 하나로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동시 '고향의 봄'의 배경이 됐던 곳이기도 하다. 천주산의 진달래 군락지는 용지봉 일대 6000㎡ 규모에 이른다. 산 정상인 용지봉 주변 동쪽 경사면과 천주봉 주변에는 진달래와 철쭉의 군락을 이루며 앞다퉈 꽃망울을 터트린다. 천주산에는 천주암이 자리고 있으며, 진달래 군락을 만나기 위해서는 천주암을 통해 올라가는 것이 좋다.

개화시기는 3월 23일부터 4월 중순까지 (055)295-0108

울긋불긋 '봄꽃 부처님' 시방세계 장엄하려 나투셨나



부안 개암사의 벚꽃.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과 일주문의 조화가 아름답다.

선분홍 꽃길 걷자 강화 백련사 등

강화 고려산은 남한에서 진달래가 가장 늦게 피는 곳으로 유명하다. 강화군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한 진달래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해발 400여m에 펼쳐진 진달래 능선을 따라 가면, 백련사 · 청련사 · 적석사 등 강화 유명 사찰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찰 모두 등산로가 만들어져 있으니 참고해 다니면 용이하다. 개화시기는 4월 1일부터 4월 중하 · 순까지 (032)933-5082

벚 꽃

3월 하순부터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는 벚꽃은 봄꽃의 대표주자다. 사람들은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꽃놀이를 즐기기에 여념이 없다.

봄꽃비 내리는 부안 개암사

전북 부안의 개암사를 찾아가는 길에는 마치 화우가 내리는 듯한 벚꽃을 볼 수 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면 봄꽃비가 내린다. 개암사 벚꽃길을 제대로 즐기려면 두 발에 의지해야 한다. 개암사는 634년 백제 왕사 묘련이 창건한 고찰로, 백제 부흥운동을 펼쳤던 사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전북기념물 26호인 채석강이 있다. 개화시기는 4월 8일부터 20일까지 (063)581-0080

벚꽃엔딩은 진안 탑사

4월 벚꽃의 절정을 놓쳤다면 지체없이 진안으로 향하자. 진안 마이산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비교적 늦게 벚꽃이 핀다. 마이산 묘에서 탑사까지의 2.5km구간은 진정한 벚꽃엔딩으로 불려도 좋다. 탑사에는 순수한 자연석으로 만든 크고 작은 돌탑 80여개가 유명하다. 인근 진안홍삼스파나 백운원촌마을 등이 볼거리다. 개화시기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063)433-0012

꽃부처 만나는 경주 기림사

경주 함월산에 자리한 기림사에는 수백년된 벚꽃나무들이 사찰을 둘러싸고 있다. 기림사의 봄에는 마치 겨울 초설이 쌓인 듯 절 지붕이 온통 하얗게 변한다. 기림사에는 예로부터 다섯 약수인 오정수가 나온다. 이로 인해 다도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벚꽃을 보며 조용히 차 한 잔 음미 해보는 것이 어떨까? 개화시기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054)744-2292

유채꽃

유채꽃은 제주의 봄을 알리는 전령이다. 제주 섭지코지를 비롯해 사천 삼천포대교 주변, 포항 호미곶, 부여 백마강변 등이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봄이 오는 소리 듣는 곳 서귀포 약천사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봄이 오는 곳 중 하나다. 특히 제주도의 상징 유채꽃이 만발하는데, 약천사에서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귀포유채꽃컨기대회가 열렸다. 동양 최대 규모 법당이 있는 약천사는 드넓은 앞마당이 모두 유채꽃 밭이다. 유채꽃은 4월 중순까지 핀다. 인근 올레8길에서도 약천사의 유채꽃밭을 만끽할 수 있다. 개화시기는 3월 15일~4월 말까지 (064)738-5000

용암산에 핀 꽃밭, 산방산 보문사

해안을 내려다보는 보문사는 산방산에 자리하고 있다. 산방산은 제주를 대표하는 유채꽃 명소다. 산방산과 유채꽃 밭을 배경삼아 추억의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다만 유채꽃 밭이 유료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점은 유의하자. 개화시기는 3월 15일~4월 중순까지 (064)794-3088



제주 산방산 보문사의 유채꽃밭. 제주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이다.

서해서 만나는 유채꽃, 서산 간월암

유채꽃을 보러 제주에 가지 못한다면 서산으로 향하자. 간월암이 있는 간월도에는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간월도와 간월암 간에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인근 바다와 어우러진 유채꽃 밭을 걷다보면 어느새 간월암에 다다른다. 주꾸미와 꽃게 등 서산의 풍성한 해산물은 입도 즐거운 식도락 여행을 선사한다. 개화시기는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041)668-6624

매 화

매화는 군자의 꽃이다.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워내는 고고한 기개는 청렴한 선비의 모습이다. 그래서 성현들은 매화를 사랑했다.

강변 따라 매화향취, 구례 화엄사

섬진강 건너 지리산 자락의 구례 화엄사는 늙은 매화나무가 흔연히 피워내는 매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홍매화는 화엄사 각황전 옆에 있다. 수령은 300~400년 정도이고 높이는 9m 정도다. 조선 숙종 때 각황전을 창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계파 선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나무다. 화엄사에서 나와 광양매화마을까지 섬진강변에는 매화꽃의 기운이 가득하다.

개화시기는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061)782-7600

350년 수령의 자장매, 양산 통도사

영축산 기슭의 통도사 천왕문을 들어서면 우측으로 매화나무 두 그루가 봄을 알린다. 아담한 자태의 매화나무 중 하나는 그 이름이 영취매다. 진한 분홍빛의 겹꽃이 유달리 붉고, 밀동에서 두 개 줄기로 갈려져 올라간다. 또 다른 하나는 통도매로 연한 분홍 빛깔이다. 여기에 영각 앞 수령이 350년이 넘는 자장매도 있다. 통도사를 창건하고 금강계단을 연 자장율사를 기념해 심은 매화나무다.

개화시기는 2월 초순부터 3월 중순까지 (055)382-7182

깊고 진한 매향 휘감은 순천 선암사

봄의 선암사는 '화해사찰'로 불린 만큼 꽃들이 만개한다. 200년 된 영산홍과 300년 된 철쭉들이 잊지만 사찰의 내력만큼 오래된 매화가 유명하다. 흙담장을 따라 홍매와 백매, 청매 등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린다. 620년 이상 됐다는 선암매를 비롯해 각황전 돌담길의 550년의 홍매 등은 천연기념물이다.

개화시기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25일 만개) (061)754-5247

철 쭉

철쭉을 개꽃이라고도 부른다. 진달래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먹을 수 없어 개꽃이라 불린 것이 유래다. 그래도 철쭉은 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다.

진분홍의 향연, 전주 감천사

5월 산의 주인공은 단연코 철쭉. 봄의 여왕 벚꽃이 퇴장하는 늦은 봄 철쭉의 계절이 다가온다. 철쭉은 보통 산에 피지만 전주 감천사의 경우 야트막한 언덕길에 철쭉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인근 한옥마을과 비빔밥 등도 함께 즐길 거리다. 개화시기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063)211-7106

철쭉동산 등반 시작점, 합천 법연사

합천 황매산에는 5월이면 철쭉이 가득 핀다. 이 황매산 자락에 위치한 법연사 인근은 철쭉으로 도배가 된다. 법연사는 무학대사 수행처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도록 기도가 올렸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만약 차량을 갖고 황매산을 찾는다면 법연사 주차장을 네비게이션으로 찍자. 개화시기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055)932-8811

기암과 철쭉의 조화, 대구 대견사

비슬산에 위치한 대구 대견사는 천왕봉 가까이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다. 일연 스님이 22년간 주석했다는 대견사는 일제 강제 폐사 후 2014년 복원됐다. 대견사에는 거대한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이 바위에서 철쭉 능선이 펼쳐진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는 반딧불이 전기차가 대견사까지 운행한다. 개화시기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053)746-0020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분사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신중탱화

진액 하수오추출액 10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악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에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악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악사사
무색소, 무설탕, 무보존제
Pleuroplerus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규격 : 12*19cm(복주머니), 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돼지감자, 연근 국내산 100%
자연 그대로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재배한 돼지감자와 연근을 드시기 좋도록 자연그대로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어 담았습니다.
돼지감자 분말
한박스 44봉 7만원
•효능 : 당뇨, 변비, 체장 기능 강화, 체지방 분해, 다이어트 효과, 해열, 지혈에 탁월한 효과
연근 분말
한박스 44봉 9만원
•효능 : 고혈압, 빈혈 예방, 피부미용, 위변보호, 변비예방,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 니코틴 제거에 탁월한 효과
음용 방법 보통 물 한 컵에 한봉지를 넣고 잘 저어서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유, 요구르트 등에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금강식품(금강사) 대리점모집中
경남 양산시 대동 2길 24 (어곡동)
기업은행 055-375-1398 권영로
문의 055-375-1398,010-2563-1398
지 웅 합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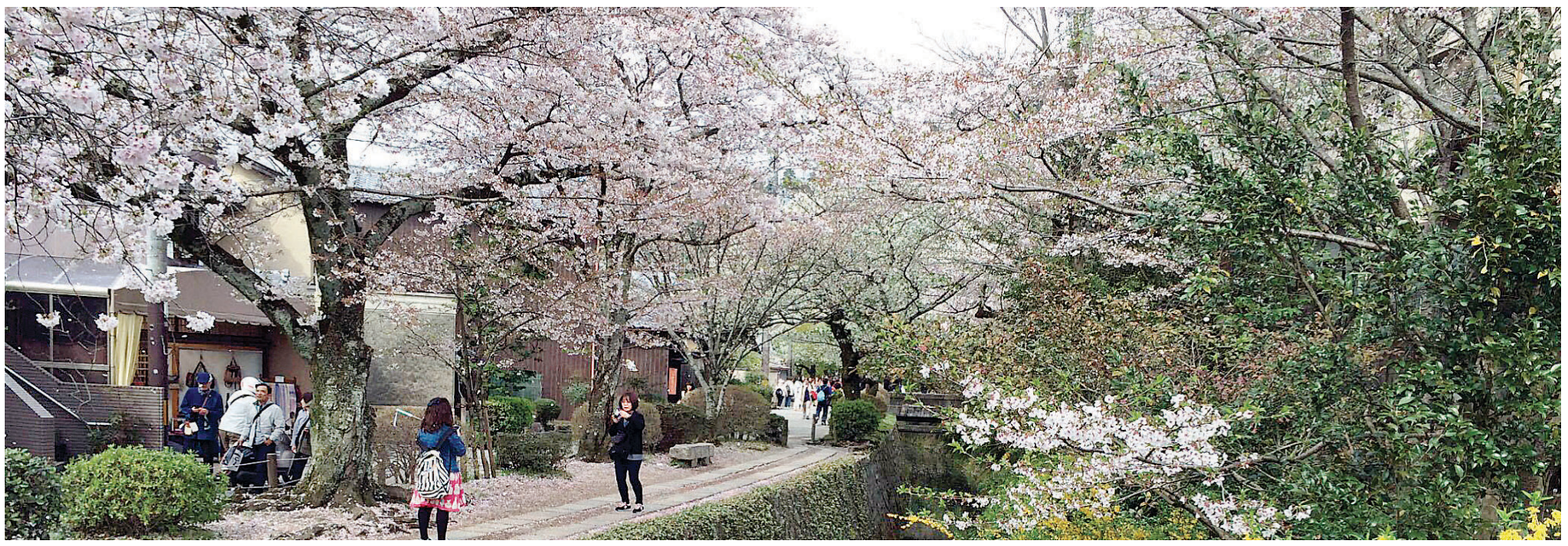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간사이 아줌마'가 뽑은
'花の寺' 6選

곳곳엔 명찰, 그 길에 만개한 벚꽃이여

일본에는 꽃으로 유명한 사찰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노데라(花の寺)'가 있다. 한국 말로 직역하면 '꽃의 절', '꽃절' 정도가 되겠다. 일본의 봄이라고 하면 벚꽃 아래서 꽃놀이를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봄꽃 명소가 많다. 특히 고찰이 많은 간사이 지방은 봄꽃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아 한국 불자들에게도 좋은 봄 순례코스가 되고 있다.

'간사이 아줌마' 나카노 요코 씨가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 '하나노데라' 답사 코스 6선을 선정했다. 일본 간사이 사찰서 흐드러진 벚꽃을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편집자 주〉


교토 도심의 대표 꽃길 '철학의 길'의 모습. 철학의 길따라 남쪽에는 '난젠지(南禪寺)'가 북쪽에는 '긴카쿠지(銀閣寺)' 등 명찰이 있다. 모두 길을 따라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

꽃이 아름다운 長谷寺 · 東寺

꽃이 예쁜 사찰로는 나라 하세데라(長谷寺)와 교토 도지(東寺)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하세데라는 학창 시절부터 다녔던 사찰인데, 벚꽃을 비롯하여 모란, 수국, 단풍 등 1년 내내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다. 기요미즈데라 무대와 약간 다르지만 본당 앞에 무대가 있고, 여기에서 산속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사찰 전체와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밝아진다.

오사카에서 하세데라로 갈 때에는 긴테쓰 오사카 우에혼마치(大阪上本町)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에혼마치역에서 오사카선 급행을 타고 가와치코쿠부역에서 준급(準急)으로 갈아타고 하세데라역까지 간다. 소요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우에혼마치역에서 준급을 타면 갈아타는 불편함 없이 하세데라역에 도착한다. 일부분이지만 하세데라역에서 임시 정차하는 급행도 있다. 전차 타기 전에 확인 필수다. 하세데라역에서 하세데라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이다. 이 산책길이야말로 일본의 옛날 분위기가 가득하고 재미있다.

하세데라는 오사카에서 멀지는 않지만 시골에 있어 기요미즈데라처럼 사람이 많지 않다.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사찰을 관광지라 생각지 않고 불교를 정말 좋아해 참배를 위해 찾는다. 간혹 외국인 관광객이 보이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아 아직 해외까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월이 되면 벚꽃이 피어 하세데라 법당 앞 무대에서 벚꽃과 사찰 건물들이 잘 조화되는 경치를 바라볼 수 있어 정말 아름답다. 하세데라 벚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무대에서 이 풍경을 보고 싶다면 4월 상순에 가는 것이 더 좋다.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에는 모란꽃이 피어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석남꽃, 철쭉 등 다른 꽃도 피어 있어 신록과 빨간색, 분홍색, 노랑색, 흰색 등 여러 색깔이 잘 어울려 마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아 행복하다. 하세데라 관람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료는 500엔.

교토역에서 오중탑이 보이는 도지(東寺)는 뛰어난 불상도 다수 봉안되어 있고 고보상이라는 재미있는 벼룩시장도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있어서 볼거리가 많은 사찰이다. 가장 가까운 역이 긴테쓰 도지역(東寺驛)이지만 교토역에서 걸어서 가기에도 멀지 않다.


꽃이 예쁜 하세데라(長谷寺)의 모란. 하세데라의 벚꽃은 4월 상순, 모란은 5월에 절경을 이룬다. 사진제공= 일본관광국


교토 도지(東寺)는 국보급 문화재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꽃절'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다. 사진제공= 일본관광국

도지에서는 매화, 철쭉 등의 꽃도 즐길 수 있지만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꽃은 역시 벚꽃이다. 특히 저녁에 관상하는 벚꽃이 정말 환상적이고 감동적이다. 저녁에 관상하는 벚꽃을 일본에서는 '요자쿠라(夜櫻)'라고 부른다. 일본에는 요자쿠라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요미즈데라가 유명하다. 그러나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인데다가 이 시기에는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까지 더해져서 접근이 어렵다.

필자는 도지에서 요자쿠라 구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지난해부터 다니고 있다. 도지 역시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기요미즈데라처럼 비탈길도 없고 평탄해 부담스럽지 않다.

도지 요자쿠라는 정말 아름답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도지 경내의 예쁜 꽃보다는 전각 안에 봉안된 불상이 훨씬 더 훌륭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도지가 꽃 구경하는 절이란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리라.

올해 도지의 야간 관람은 4월 16일까지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최종 입장시간은 오후 9시 30분까지. 입장료는 500엔이다.

철학의 길따라 南禪寺 · 銀閣寺

간사이 사찰 꽃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교토 동쪽에 있는 '철학의 길(데쓰가쿠노미치, 哲學の道)'이다. 철학의 길이란 이름은 교토대 철학자가 여기서 자주 산책하고 철학에 대해 깊은 사색을 한 것이 유래이다. 철학의 길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난젠지(南禪寺)', 북쪽에 '긴카쿠지(銀閣寺)' 등 유명한 사찰도 있고 철학의 길 일대에서 꽃길, 사찰 답사를 즐길 수 있어 참 좋다.

철학의 길에 갈 교통수단 안내는 일반적으로 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나온다. 하지만 교토를 답사하고자 할 때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보다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특히 교토역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람이 무척 많은데다가 길이 막혀 시간이 꽤 걸린다. 교통수단이 버스 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답사 코스 주변에 지하철이나 전철역이 있다면 전차를 이용하는 게 더 순조롭게 답사하는 비결이다.

지하철 도자이(東西)선 게아게(蹴上)역에서 내리고 10분 정도 걸으면 난젠지에 도착한다. 게아게역에서 난젠지에 가는 길 분위기가 참 좋아서 철학의 길에 도착하기 전부터 교토 답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난젠지 경내 벚꽃, 신록도 예쁘다. 난젠지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나 정원이 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꼭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경내의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을 그냥 지나가고 철학의 길 방향에 가면 된다. 비와코 소수이(琵琶湖疎水)라는 수로를 따라 걷는 철학의 길 벚꽃이 예쁜 길로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벚꽃과 수로가 잘 조화되는 풍경이 참 예뻐서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벚꽃 길을 즐기면서 30~40분 정도 북쪽에 가면 긴카쿠지(銀閣寺)에 도착한다. 긴카쿠지 경내의 봄 풍경도 예쁘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경내에 그리 높지 않은 전망대도 있어서 교토 동쪽 아름다운 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긴카쿠지에서 좀 더 걸으면 긴카쿠지미치라는 버스 정류장이 나온다.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경우 택시를 이용해도 되고 30분 가까이 걸리지만 게이한(京阪) 데마치야나기(出町柳)역까지 걸어갈 수도 있다. 교토대학교가 있는 이 길 주변에 고서점도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있다. 역사, 문화적인 헌 책을 구입해서 주변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이 답사 코스 즐거움의 하나이다.

사찰인근서 꽃놀이를 天龍寺 · 東大寺

교토와 나라의 유명한 사찰 주변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소개한다. 교토 서쪽 꽃 명소 대표는 역시 '아라시야마(嵐山)'이다. 아라시야마는 교토시 중심부에서 좀 떨어져 있어 산에 벚꽃이 피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아라시야마에 가는 방법은 버스 외에 전차로는 노면 전차, JR, 한큐(阪急)가 있는데 벚꽃이 필 때는 모두 붐빈다. 한큐가 비교적으로 편해서 오사카 우메다역에서 한큐를 타는 것을 추천한다.

아라시야마에서 산에 피는 벚꽃, 강물과 벚꽃이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도 물론 최고이지만 덴류지(天龍寺)에 꼭 가보았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 벚꽃을 비롯한 예쁜 봄꽃이 많이 핀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곳은 나라 공원(奈良公園) 일대다. 나라공원 일대에는 도다이지(東大寺)와 고후쿠지(興福寺) 등 일본의 대표적인 사찰이 있다. 게다가 사슴으로 유명한 공원 일대는 봄에 벚꽃을 비롯한 봄꽃이 활짝 피어있어서 정말 예쁘다. 이곳에 가면 나라역에서 도다이지 대불전으로 가는 길 뿐만 아니라 공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기를 추천한다. 나라공원에는 항상 사람이 많지만 좀 더 뒤쪽에 있는 골목길이나 공간에 가면 조용하고 기분이 편하다. 꽃과 사슴을 사진으로 함께 찍을 수 있는 것도 나라공원 특색이다.



나라와 교토 두 곳 모두 고도(古都)이지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시간이 되시면 나라, 교토 특색을 비교하면서 꽃 사찰, 꽃길을 만끽해 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다. 글 · 사진=나카노 요코

감수=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이번봄, 꽃나무가 수놓인 부처님 도량서 마음수행에 임해보는 것은 어떨까.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봄맞이 Temple Stay

부처님 꽃그늘 아래서 '마음 꽃' 피우소서

서로를 향해 돋은 가시 때문에 얼싸안지 못해 더욱 추웠던 겨울. 지난한 계절이 끝이 나고 비로소 봄이 찾아왔다. 불쑥 파고드는 스산함이 아직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빨갛게 하얗게 피어나는 매화송이들과 보도블록 사이로 바동바동 몸뚱이를 드러내는 기다랗고 가녀린 민들레 한 줄기를 보면 마침내 봄이 온 것이 틀림없다. 이 햇살이 여느 해보다 더 따사로이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일 터. 그대의 봄은 안녕한가.

훌쩍 떠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다. 봄내음을 맡으면 돌부처의 마음도 뒤숭숭해지는 법. 죽마고우와 뛰놀던 고향집 골목길 어귀를 걷고 싶기도, 옛 사람과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속삭이던 꽃나무 아래 누워 하염없이 봄 햇살을 마주하고 싶기도 할 것이다.

촉촉한 그 마음, 올해는 꽃과 새순이 피어나는 산사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일과 사람에 치인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봄 한 가운데의 오롯한 나를 마주할 것이다.

올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수암)이 마련한 봄 여행주간 템플스테이는 전국 80여 곳 사찰서 진행된다. 전국 모든 사찰서 1만원에 봄맞이 템플스테이를 즐길 수 있어 상춘객들에게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모두 휴식형으로 예불과 공양 시간 외 다른 시간은 자율적으로 사찰 프로그램에 임하거나,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은 당일형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참가비 5,000원.

신청접수는 4월 17일 오전 11시부터 5월 13일 오전 11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찰목록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서 확인 가능하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2017 행복만원 템플스테이 사찰 목록

지역	사찰명	날 짜	연령제한
강원	건봉사	5/6~5/7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백담사	5/10~5/13	초등학생부터 가능
	삼운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삼화사	4/30~5/7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월정사	5/1~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
경기도	금강정사	4/30~5/1, 5/6~5/7, 5/13~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묘적사	4/29~5/1, 5/6~5/7, 5/9~5/10, 5/11~5/12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봉녕사(수원)	4/29~4/30, 5/5~5/6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봉선사	5/11~5/12, 5/13~5/14	성인만 가능
	신륵사(여주)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용문사(양평)	5/5~5/6	성인만 가능
	육지장사	4/29~4/30, 5/2~5/7, 5/12~5/14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흥국사(고양)	4/29~4/30	초등학생부터 가능
경남	문수암(산청)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쌍계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용문사(남해)	4/29~5/3, 5/4~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용화사(통영)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경북	고운사(의성)	4/29~4/30, 5/13~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골굴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
	기림사	4/29~4/30, 5/2~5/3, 5/4~5/5, 5/13~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불국사	4/29~5/2	초등학생부터 가능 *
	용문사(예천)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은해사	5/1~5/6, 5/7~5/13	초등학생부터 가능
	축서사	4/29~4/30, 5/2~5/8, 5/12~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광주	무각사	4/29~4/30, 5/13~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증심사	5/10~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대구	동화사	4/29~5/14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부산	범어사	5/1~5/2	초등학생부터 가능*
	홍법사	4/29~5/2, 5/4~5/13	초등학생부터 가능
서울	관문사	5/10~5/11, 5/13~5/14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국제선센터	5/6~5/7	초등학생부터 가능*
	금선사	4/29~4/30, 5/2~5/7, 5/9~5/14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봉은사	5/1~5/6, 5/7~5/8, 5/11~5/14	성인만 가능*
	조계사	5/8~5/9, 5/11~5/12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진관사	5/6~5/7	성인만 가능*
	화계사	5/6~5/7, 5/13~5/14	중고등학생부터 가능
인천	전등사	5/1~5/2, 5/8~5/9, 5/10~5/11, 5/12~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전남	대흥사(해남)	5/10~5/11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미황사	4/29~5/2, 5/5~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백련사(강진)	5/6~5/7, 5/13~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선암사	4/29~5/2, 5/4~5/5, 5/7~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송광사(순천)	5/8~5/9, 5/10~5/11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쌍계사(진도)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화엄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전북	금산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내소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선운사	5/1~5/2, 5/8~5/12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실상사	5/11~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충남	갑사	5/9~5/12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마곡사	5/6~5/7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충북	구인사	5/5~5/6	초등학생부터 가능
	반야사	4/29~5/4, 5/5~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석종사	4/29~4/30, 4/29~5/2, 5/4~5/14	초등학생부터 가능
	영국사	4/29~5/14	미취학 아동부터 가능(모두)

*외국인 可 ※ 사찰 사정상 참가가능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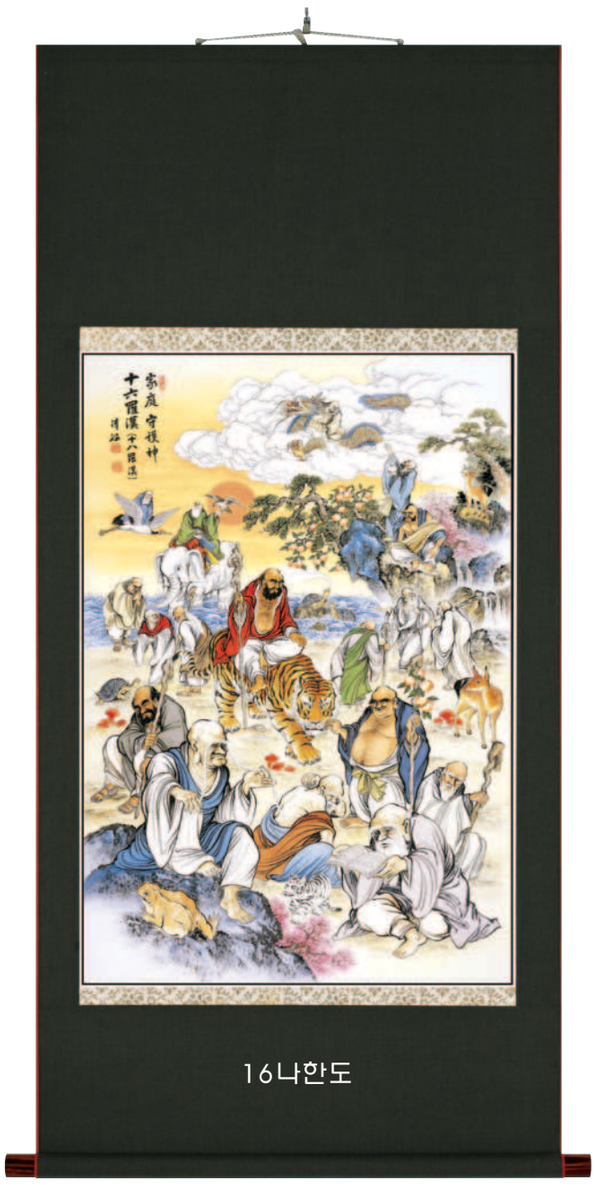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16나한도



달마도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